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일본학 박사학위논문

김석범 소설에 나타난 인물 형상(形像) 연구

김 정 희

강원대학교 대학원

일본학과

2020년 2월

황소연 교수 지도
일본학 박사학위논문

김석범 소설에 나타난 인물 형상(形像)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s in Kim Seok-beom's novel

강원대학교 대학원

일본학과

김 정 희

김석범 소설에 나타난 인물 형상(形像) 연구

김 정 희

강원대학교 대학원 일본학과

본 논문에서는 제일 작가 김석범이 역사적 현실 속에서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점을 주목한다. 작가의 작품 세계에는 역사적 정치 사건을 배경으로 제일조선인 ‘나’와 분신의 역할을 하는 주변인들을 설정하여 문학으로써 역사적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석범의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 ‘나’의 의미는 ‘제일조선인’이라는 처지에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소설 속 제일조선인 ‘나’는 남한과 북한, 제일조선인 사회와 일본의 정치적 환경에서 경계인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다. 김석범의 작품 세계는 무국적 제일(在日)의 삶의 존재 조건이 주제가 되고, 역사적 현실 사건을 배경으로 자신의 사상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작가의 작품은 주제별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일본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성찰한 작품이다. 둘째는 제일조선인 조직 활동 경험과 이탈로 겪게 되는 허무감과 조직에 대해 비판의식을 드러낸 정치 활동의 성격을 가진 작품이다. 셋째는 제주도 4·3사건을 인지하고 제일조선인으로서 이방인의 삶에서 오는 허무감을 극복하기 위해 창작한 작품이다.

김석범은 제일의 정체성과 정치적 성향을 가진 소설에서 주인공 ‘나’가 알고 있는 현실을 철저하게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자신이 체험한 현실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작품 속 이야기는 실제 작가가 제일의 삶에서 체험한 일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표현의 주체가 개인인 ‘나’가 아니라, 사회적 모순 속에 살아가는 존재인 제일조선인의 이야기이다.

김석범은 해방된 조국 건설에 동참하지 못하는 제일의 처지와 정체성의 문제로 허무주의에서 헤어날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 그런 상황에서 제주도 수난의 현장에서 도망쳐 온 사람의 증언에 의해 제주4·3사건을 접하고 충격을 받는다. 김석범은 제일의 삶에서 오는 정체성의 문제와 내면의 허무감을 떨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4·3을 소재로 창작활동을 하게 된다.

작가의 4·3 소설에서는 제주도 민중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구축하고 있다. 제일의 위치에서 4·3사건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력에 의해 허구(fiction)로서 4·3의 세계를 구상하였다. 작가는 자신의 소설을 통해서 고통의 시간과 폭력의 현실에 놓여있는 인간의 삶의 방법을 묻고 제일의 존재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1968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에서 이탈한 김석범은 일본어를 창작 언어로 삼아 본격적인 작가 활동을 시작한다. 이때부터 재일조선인 조직과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 의식과 더불어 재일조선인 ‘나(私)’의 정체성에 대한 번민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다.

김석범은 조직 이탈 후의 변화된 환경 속에서 재일조선인 문학인으로서 언어 사용 문제와 자신의 국적 문제, 고국의 의미 등 이데올로기에 대한 회의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전향적인 자세로 문학 활동을 한다.

기존의 김석범 문학 연구는 4·3을 소재로 한 작가의 대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유형 분석과 이데올로기적 사상을 결부시켜 작가의 정치적 성향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작품 내부의 세계가 지니고 있는 인간의 감정과 현실을 다루는 문학적 자유정신을 소홀히 하게 될 우려가 있다.

김석범은 소설 안에 자신의 모습이 투영된 재일조선인 등장인물을 설정하여 꿈과 환영, 낯새, 취기, 의식의 흐름 등의 문학적 작법으로 심상 풍경을 구사하며 현실의 상황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재일조선인 조직을 이탈한 이후의 작품에서 일본에서의 정치적 체험을 어떻게 이야기 속에서 전개하고 있는지, 작가가 왜 4·3을 구상하고 고국 지향적인 삶을 살 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작품 세계에서 보이는 역사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과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하는 조응적 상상 능력은 작가의 현실 감각과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현재 한반도 분단의 실정에서 김석범 문학이 던진 역사적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에 주목하고 남과 북, 좌와 우의 이데올로기 사상이 통합해 나갈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김석범 작품 세계를 고찰하는 의미가 있다.

□ 핵심주제어

재일조선인문학, 재일조선인조직, 제주4·3, 4·3소설, 귀환, 전향, 김병식사건, 한신교육사건, 문학적 형상화, 정치와 문학.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사 검토	7
3. 연구 범위와 방법	13
II. 재일조선인의 삶과 형상	16
1. 재일의 근거와 의미	16
2. 「허몽담」에 나타난 동화 문제	18
3. 「밤」에서 귀환의 의미	24
4. 꿈·냄새·취기·의식의 흐름에 나타난 심상풍경	30
5. 갈등 해결 서사	38
III. 조직 체험 전후의 재일조선인 형상	47
1. 언설공간으로서의 조직	47
2. 조직 내 사건과 창작 활동	52
3. 위장 전향 문제	56
4. 니힐리즘과 조직 이탈	60
5. 문학으로의 전향	68
IV. 재일의식과 4·3 소설	73
1. 재일의 시각에서 제주도	73
2. 4·3 소설의 원형과 작가의식 형성	77
3. 4·3 소설과 자기 구제	85
4. 소설에 나타난 저항 의식	93
5. 4·3 소설의 의미	99
V. 재일 체험과 작가 의식	103
1. 실존의 서사화	103
2. 재일 체험과 문학적 형상화	106
3. 4·3 정명을 위한 김석범 소설 읽기	111

VI. 결론	118
<input type="checkbox"/> 참고문헌	121
<input type="checkbox"/> 저작연보	126
<input type="checkbox"/> Abstract	132

I. 서론

1. 연구 목적

본 논문에서는 이데올로기로 분열된 동아시아의 역사적 사건 과정에서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재일 작가 김석범의 작품 세계를 살펴본다. 김석범의 소설에서는 한반도와 재일한국·조선인 사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소재로 단순히 사건에 관한 사상(事象)만을 설명하지 않고, 작가의 내면의 사상(思想)과 자세를 반영하고 있다. 작가의 소설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역사적 사건을 문학으로 접근해 사회적 관심과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작품 세계에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작가 자신과 분신을 배치하며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작품 속 주인공 ‘나(私)’의 이미지는 ‘재일조선인¹⁾’이라는 처지에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재일조선인 ‘나’는 남한과 북한, 재일조선인 사회와 일본의 정치적 환경에서 경계인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다.

일본은 패전 이후 1947년, 재일조선인을 치안 대상으로 관리와 규제하기 위해 외국인 등록령을 실시하였다. (외국인 대부분이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된 재일 조선인과 중국인이었다) 당시 재일조선인 전체를 ‘조선’으로 기재한 것이 무국적자(조선적)의 시작이다. 1948년 남북 분단 정부 수립 후, 일부가 ‘한국’으로 기재되고,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한국 국적이 인정되고, 이외 ‘조선’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국적 이전에 ‘조선’이 식민지 시대의 명칭에 따른 일시적 표기였는데 국적란의 유령(幽靈) 같은 표기가 오늘에 이르고 있다.²⁾

김석범의 국적란에 기재된 ‘조선적’은 실질적으로 국적의 담보가 없어서 기호나 표식에 불과한 것으로 무국적자이다. 분단 이전의 ‘통일’의 의미를 가진 재일의 ‘조선적(무국적)’의 존재 조건이 작가의 작품에 주제가 되고, 작품 세계가 역사적 현실과 호응 관계를 맺고 있다.

1)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북한을 둘러싼 정치적 의미를 별개로 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일본에서 거주하는 우리 민족을 의미하는 말로 ‘재일조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일본으로 귀화한 한반도 출신은 제외한다. 무국적(조선적, 特別永住者) 신분인 김석범 자신도 ‘재일조선인’이라 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이처럼 기술한다.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한국적’은 449,634명, ‘조선적’은 29,559명 (일본 総務省 소관 독립행정법인 통계센터, 2019년 7월 발표)이다.

2) 金石範, 「在日にとっての国籍について」, 『新編「在日」の思想』, 講談社, 2001, 104쪽.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강제 연행자를 포함해 다수의 재일조선인이 독립한 고국으로 돌아왔다. 1946년 약 130만이 귀국하고 당시 조선인 등록 총수 64만6943명 중에 귀국 희망자는 51만 4035명(약80%)이다. 그러나 귀국 희망자도 SCAP(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에 의해 반입 통화 제한이나, 동산 제한, 그리고 미군정 하의 조국의 정치·경제 사정의 혼란 등으로 귀국을 미루고, 그대로 정주한 것이 오늘날의 ‘재일’이라고 김석범은 언급하고 있다.³⁾

재일조선 문학인으로서 김석범은 한반도와 일본의 경계에서 정치적 사함을 소재로 다루며 재일의 고유한 특이성을 창작 활동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작가의 소설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고발과 폭로의 성격에 한하지 않고,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분열 과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지닌다.

재일조선인 문학에 관하여 이소가이 지로(磯貝治良)는 재일조선인 1, 2세대 문학인의 작품은 식민지 지배의 역사와 그 시대의 작가 체험이 중심이었고, 전기 2세대(김석범을 포함한 1세대에 가까운 세대)작가의 경우는 ‘재일’의 환경에서 민족적인 것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지를 갈등을 주제로 한다고 했다. 이소가이에 의하면 일본어를 표현 수단으로 하여 ‘조선적인 것’을 농밀하게 그려내고, 조국에 대한 견고한 민족적 요구에 따라 표현한 것이 재일조선인의 일본어 문학의 핵이고, 고유의 리얼리티를 가진 문학세계의 창조⁴⁾ 라고 평하였다.

재일 2세대⁵⁾ 김석범은 작품 안에 민족적인 것을 담아내며 자신의 사상을 확인하는 문학인의 삶을 지향하였다. 조직 내에서 문학 활동을 통해 사회주의적 사상을 실현하고자 했지만, 조직의 이념을 강요받고 창작 언어를 한글로 제한하는 등의 조직적 규제에 반감을 갖는다. 조직에서 활동하며 허가를 거치지 않고 1950년대부터 제주4·3사건⁶⁾(이하 4·3)을 소재로 작품

3) 金石範, 「在日の思想」, 『新編「在日」の思想』講談社, 2001. 17쪽. 一九四五年八月、日本の敗戦によって朝鮮が解放され、強制連行者をふくめて多数の在日朝鮮人が独立した故国へと帰って行った。一九四六年三月までに約一三〇万が帰国しており、当時の朝鮮人登録総数(GHQ指示によって日本政府厚生省主管のもとでなされた登録で、現在の外国人登録とは違う)六四万六九四三名のうち、帰国希望者が五一万四〇三五(約八〇%)となっている。しかし、帰国希望者もSCAP(連合国最高司令官)による持ち帰り通貨制限(千円まで)や動産制限、そして米軍政下の祖国の政治、経済事情の混乱などによって、その足がにぶり、帰国の思いを明日に托しながらそのまま居残り続けたのが、今日の「在日」をあらしめたことになるだろう。

4) 磯貝治良, 「新しい世代の在日朝鮮人文学」, 『季刊三千里』50号 終刊, 1987, 108쪽.

5) 이소가이 지로는 재일 2세대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고, 김석범을 1세대에 가까운 ‘전기 2세대’로 규정하였다. 학자에 따라 조국 지향의 민족의식이 강한 점을 들어 김석범을 1세대 또는 1.5세대라고 하지만, 본고에서는 작가의 작품 성향에 관한 관점보다 일본에서 출생한 점을 기준으로 재일 2세대 작가로 규정한다.

6) 일본에서 4·3사건의 역사적 구성은 처음 문학작품에서 형상화한 것에 의존하였다. 기록으로는 1963년 발간된 金奉鉉·金民柱 共篇의 『濟州島人民たちの4·3武装闘争史』(文友社)와 1978년 金泰鉉의 『濟州島血の歴史-(4·3)武装闘争の記録』(国書刊行会)등이 있다. 존 메릴의 일본어 판 『濟州島 四·三蜂起』(文京洙 譯, 新幹社, 1988) 서문에 김석범은 ‘1970년대 중반까지 곤란했던 해방 전후사의 재검토가 민중·민주 세력의 노력으로 친일파 문제 규명 등의 성과를 가져왔지만, 4·3사태 진상규명의 움직임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김석범은 4·3사건 40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존 메릴의 책은 미군의 내부분서를 자료로 객관적인 서술을 하여 4·3 연구에 공헌한 바가 크다고 평하였다. 국내에서는 2000년 1월 12일 공포된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의해 최고의결기구로서 제주도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구성되어 2000년 8월 28일 출범했다. 2003년 10월 15일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확정, 통과시킴으로써 4·3사건의 피해 실태에 대해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처음으로 표명하였다.

을 발표한다. 그리고 1968년 재일조선인 조직을 나온 이후 작품을 발표할 공간을 잃게 되었다. 이 시기에 자신의 창작 언어를 일본어로 본격화하며, 작품의 내용도 조직의 내부와 외부에 관한 이야기로 언설 공간이 확장되고 새로운 문학인의 길을 가게 된다.

재일조선인 조직에서의 체험과 이탈 과정을 겪은 김석범은 정신적 지향(指向)이나 신념(信念)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려는 태도를 작품에서 드러낸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혁명운동을 지향했던 삶의 궤도에서 이탈하면서 생긴 허무감과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 4·3을 소재로 창작활동을 이어간다.

작가는 한반도를 둘러싼 이데올로기적 사상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변모를 소설 속 주인공인 ‘나’와 분신의 체험을 통해 작품 속에서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면서 분열된 민족의 역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4·3의 역사적 사건과 재일조선인 조직에서 일어난 사건을 재구성하고 상상력을 발휘한 작품에서 단순히 실제 사건의 전개 과정보다는, 허구로써 사실적 효과를 만들어내며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역사적 사건을 재조명하게 한다.

작가는 본격적인 작가 활동을 시작한 1970년에 들어와서 「허몽담(虛夢譚)」⁷⁾, 「밤(夜)」⁸⁾, 「등록도둑(ト一口泥棒)」⁹⁾, 「사기꾼(詐欺師)」¹⁰⁾, 「1945년 여름(1945年夏)」¹¹⁾, 「밤의 소리(夜の声)」¹²⁾, 「도상(途上)」¹³⁾, 「취우(驟雨)」¹⁴⁾, 「우아한 유혹(優雅な誘い)」¹⁵⁾, 「지존의 아들(至尊の息子)」¹⁶⁾, 「왕생이문(往生異聞)」¹⁷⁾ 등 이데올로기에 대한 회의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전향적인 자세¹⁸⁾가 보이는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이들 작품에서는 언어 문제와 국적 문제를 언급하며 재일조선인의 정체성과 재일조선인 조직과 남한 정권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재일조선인 조직을 이탈하고 처음으로 재일조선인 주인공 ‘나’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동화의 문제를 다룬 작품이 「허몽담」이다. 또 조직 체험과 이탈을 경험하고 나서 조직의 실상

7) 金石範, 「虛夢譚」, 『世界』, 1969.8.

8) _____, 「夜」, 『世界』, 1971.11.

9) _____, 「ト一口泥棒」, 『文学界』, 1972.5.

10) _____, 「詐欺師」, 『群像』, 1973.11.

11) _____, 「1945年夏」, 筑摩書房, 1974.4.

12) _____, 「夜の声」, 『文芸』, 1974.4.

13) _____, 「途上」, 『海』, 1974.5.

14) _____, 「驟雨」, 『季刊三千里』, 1975.5.

15) _____, 「優雅な誘い」, 『文芸』, 1976.11.

16) _____, 「至尊の息子」, 『すばる』, 1978.8.

17) _____, 「往生異聞」, 『すばる』, 1979.8. 集英社, 1979.11.

18) 황치복, 「한일 전향소설의 문학사적 성격 - 한설야(韓雪野)와 나가노 시게하루(中野重治)를 중심으로」, 『한국문학 이론과 평론』 6권, 2002, 355~356쪽을 보면, 전향을 어떤 사상운동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다른 형태의 운동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상 전향을 ‘과정’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때, 전향문학이란 ‘전향의 내부적 외부적 계기와 그 충격, 사상 전향에 부딪힌 전향자의 내면적 갈등과 모색 등의 전향과정에 대한 문제를 형상화한 문학’이라는 정의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본 논문 Ⅲ장에서 김석범 문학을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난 ‘민족적인 것’, ‘조선적인 것’을 추구하며 문학에서 전향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기술한다.

을 처음 드러내며 작가의 사상적 의식을 드러낸 작품이 「도상」이다. 조직에 관한 비판적 시각은 「왕생이문」에서 한층 더 표면화하고 있다. 「밤」에서는 제일조선인 ‘나’에게 진정한 고국의 의미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1990년대의 자전적 소설 「작열하는 어둠」을 통해서 제일조선인 조직을 이탈하고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문학으로써 정치 활동을 이어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작가가 제일조선인 조직에서 활동한 경험과 탈당에서 오는 허무감과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한 삶의 방법으로 선택한 길이 4·3을 소재로 글을 쓰는 것이었다. 내부의 허무감과 삶의 의미로 방황하던 시기에 4·3에 관한 증언을 듣고, ‘나’의 감정은 그저 감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이때부터 작가는 4·3을 구상하고 구체적인 작품을 쓰며 자기 구원의 길을 찾고자 한다.

1950년대부터 최근¹⁹⁾까지 「1949년 무렵 일지에서—죽음의 산의 일절에서(一九四九年頃の日誌から—死の山の—節から)」(이하 「1949년 무렵의 일지에서」)²⁰⁾, 「간수 박서방(看守朴書房)」²¹⁾, 「까마귀의 죽음(鴉の死)」²²⁾, 「관덕정(觀德亭)」²³⁾, 「만덕유령기담(万德幽靈奇譚)」²⁴⁾, 「화산도(火山島)」²⁵⁾, 「금박의 세월(金縛りの歲月)」²⁶⁾, 「만월(滿月)」²⁷⁾, 「이방근의 죽음(李芳根の死)」²⁸⁾ 등 4·3을 소재로 한 작품(이하 4·3 소설)을 집중적으로 발표하였다.

작가의 작품은 한국전쟁 직전 혼란한 한반도의 실정을 그대로 집약하면서 해방기의 고통의 시간과 폭력의 역사를 기억하게 해주는 제주 4·3 문학²⁹⁾의 중심이기도 하다. 히라즈카 다케시(平塚毅)는 1982년경 한국 고등학교 국정교과서에 역사 인식에 의구심이 있는 기술이지만, ‘제주도 폭동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제주4·3사건’이 게재되었는데, 매장되었던 과거에서 ‘제주도 4·3사건’이라고 기록하게 된 의미를 김석범의 작품과 관계해서 찾는 것이 이후의 과제라

19) 1925년생 김석범의 작가 인생을 창작 언어를 기준으로 보면, 초기 일본어 창작 활동기인 1951년 26세 때, 최초 작품을 『조선평론』 창간호에 박통이라는 필명으로 「1949년 무렵의 일지에서—죽음의 산의 일절에서」를 발표한다. 이후 「간수 박서방」과 「까마귀의 죽음」 등의 단편소설을 발표한다. 중기 조선어 창작 활동기인 1961년 『조선신보』에 「핑 사냥」과 「혼백」 등을 한글로 발표한다. 후기 일본어 창작 활동기인 1969년 『세계』에 「허몽담」을 일본어로 발표한 이후부터 2019년 현재 제일문학인으로서 소설과 비평 등 창작과 강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 金石範, 「一九四九年頃の日誌から—死の山の—節から」, 『朝鮮評論』, 創刊号, 1951.12.

21) _____, 「看守朴書房」, 『文芸首都』, 1957.8

22) _____, 「鴉の死」, 『文芸首都』, 1957.12.

23) _____, 「觀德亭」, 『文化評論』, 1962.5.

24) _____, 『万德幽靈奇譚』, 筑摩書房, 1970.11.

25) _____, 『海嘯(火山島)』, 『文学界』, 1976.2~1981.8. 『火山島』, 1부 『文藝春秋』, 1983.6~1983.9. 『火山島』 2부 『文学界』, 1986.6~1994.9. 『火山島』 3부, 『文藝春秋』, 1996.8~1997.2.

26) _____, 『金縛りの歲月』, 集英社, 1986.9.

27) _____, 『滿月』, 『群像』, 2001.4.

28) _____, 「李芳根の死」(連作『壊滅』2), 『すばる』, 2005.10.

29) 제주4·3문학은 1948년 제주에서 일어난 4·3사건을 소재로 하거나 4·3의 정신을 담아 4·3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일깨우는 문학을 말한다.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제주4·3평화문학상과 청소년 문예 공모 등을 통해 4·3을 기억하고 과거 왜곡된 역사에 대한 진실과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고 하였다.³⁰⁾

작가의 4·3을 소재로 한 1950년대 초기 4·3 소설과 일본어를 본격적 창작 언어로 삼아 새로운 시작을 알린 1970년대 4·3 소설은 「화산도」를 비롯한 작가의 4·3 소설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출발의 의미를 지닌 작품을 단계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에서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작가 의식의 형성과 변화, 이후 작가의 작품 세계의 방향을 이해할 수 있다.

작가의 4·3 소설의 시작은 일지 형식의 「1949년 무렵의 일지에서」이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나’는 재일조선인으로 관찰자의 입장에서 4·3을 바라보고 있다. 본격적으로 일본 독자에게 4·3을 알리게 된 작품은 단편소설 「까마귀의 죽음」이다. 이 작품에서는 사회주의 사상과 민족의식이 투철한 지식인 주인공이 재일조선인의 삶을 접고 귀국하여 4·3에 대응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1970년대 들어와서 발표한 「만덕유령기담」에서는 사건에 대한 작가 내면의 저항 의식을 양민에 초점을 맞추며 일본 독자에게 폭넓은 4·3의 세계를 제시해 주고 있다. 작가의 대표작인 장편 「화산도」에서는 재일조선인 ‘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방대한 인물을 등장시켜 역사적 사실을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4·3의 독자적인 모습을 소설로 형상화했다.

제주에서 일어난 4·3에 대하여 1970년대까지 국내에서 언급이 불가능했지만, 작가의 작품은 1950년대부터 재일의 위치에서 허구로써 4·3의 역사적 현상을 그리고 있다. 작품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고발성과 이데올로기적 사상이 좌우로 편향되지 않고 문학으로서 역사적 현실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은영은 김석범의 작품을 ‘조선’을 무대로 하고 ‘조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그리려 하고, 일본을 무대로 하는 경우도 일상생활이 아니라, 조직이나 4·3을 중심으로 고정되어있다³¹⁾고 했다. 사회 참여와 정치적 성격을 가진 작가의 작품 배경은 이데올로기의 바탕이 되는 언설(言說) 공간으로써 ‘조직’과 관계가 있다.

재일조선인 조직 경험과 이탈의 정치적 체험을 어떻게 이야기로 전개하고 있는지, 정치적 신념을 가진 문학인의 삶과 작품 내부 세계에 대한 이해를 위해 언설 공간의 주체가 되는 재일사회의 ‘조직’과 재일조선인 ‘나(私)’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작가가 왜 4·3을 구상하고 구체적인 작품을 쓰며 고국 지향적인 작가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그 연결성을 갖고 생각해 보고자 한다.

30) 平塚毅, 『金石範報告・發言録への補足説明』, Rikkyo American Studies 21, 1999, 64~65쪽. 韓国の高校の国定教科書に、たとえ歴史認識に疑念のある記述だとしても「済州島四・三事件」が載せられたその事実は大きいものと考えます(教科書に記載されたのは1982年からのようですが、「済州島四・三事件」という名称ではなく、「済州島暴動事件」となっています。葬り去られていた過去から「済州島四・三事件」と記されたことの意味を、金石範氏の作品との連綿たる繋がりを見つけていくことが今後の課題です。

31) 吳恩英, 「在日朝鮮人文学における「朝鮮的なもの」—金石範の作品を中心に—」, 名古屋大学, 博士論文要旨文, 2012.

작가의 작품에는 과거 경험했던 에피소드 기술을 의식의 흐름을 타고 연상적, 유기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거나, 꿈의 내용을 삽입시켜 구체적으로 현실의 상황을 재현하며 재일조선인의 삶에서 체험한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작가의 표현 방법은 ‘나’가 알고 있는 현실을 철저하게 그릴 필요에 의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작가가 일본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며 접했던 일본 사소설의 영향을 받았지만, 방법론에서 차이점이 있다. 즉, 일본의 사소설이 표현의 주체가 개인인 ‘나’라면, 김석범의 작품 속 ‘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재일의 존재로서의 사회적 모순에 적응하고 대항하며 살아가는 ‘나(私)’의 이야기이다.

최근 김석범 작품이 분절된 민족의 대립과 갈등을 문학적으로 구현해 낸 것이 높이 평가되어 이호철 통일문학상(2017년)과 제주4·3평화상(2015년)을 받았다. 작가의 대표작 장편 「화산도」³²⁾가 완역되어 국내에 출간되면서 일본어로 쓴 김석범 작품에 대한 거리감이 좁혀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의 양쪽 문학계에서 애매한 위치에 있었던 작품에 대해 본격적으로 토론의 장이 마련되고 있다.

최근까지 김석범의 작품은 문학성에 대한 평가보다는 작품 내부의 세계와 작가가 지닌 이데올로기적 사상을 지나치게 결부시켜 해석함으로써 문학성에 대한 평가가 결여되어 있었다. 이는 작품에 내재한 인간의 감정과 현실을 다룬 문학적 자유정신을 소홀히 하게 될 우려가 있다.

김석범은 작품 세계에서 남과 북으로 분열된 민족의 현실과 민단과 조총련으로 분열된 재일사회의 정치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작가가 민족주의 사상을 가지고 시대적 상황을 읽어내는 시각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작중의 재일조선인의 형상은 역사적 현실 속에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를 통해 과거 오류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문학적 힘을 기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김석범 소설 속에서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재일조선인의 시각을 살펴보고, 작가의 역사적 현실 세계에 대한 비판적 의식과 사건을 재구성하는 조용적 상상 능력을 알아

32) 한글 「화산도」는 1965년부터 2년간 조선문학예술동맹의 기관지 『문학예술』에 격월로 연재되었다. 9회 약 400매로 발표하였으나, 제13호부터 20호까지 정기적으로 간행되었던 잡지가 1년 가까이 간행되지 못했다. 67년 제21호에 9회가 발표되고 제3장까지 미완성 작품으로 중단되었다. 작가 자신의 증언에 의하면, 조직에서 평가되지 못하고 무시되었다고 한다. 일본어 『火山島』는 『문예춘추』에서 전 7권(1983년 6월, 7월, 9월, 1996년 8월, 11월, 1997년 2월, 9월)이 간행되었다. 『火山島』 제1회째 연재는 『문학계』(1976년 2월호~1981년 8월호, 1980년 12월호는 휴간)에 『해소』-밀물 때 일어나는 거친 파도 소리-라는 제목으로 66회(전 7장<제1장~ 제9장>, 전 61절) 연재하였다. 그 후 3장분(제10장<제10장~ 제12장>)이 가필되고, 『火山島』 제1부가 3권의 책으로 간행되었다. 제2회째 연재도 『문학계』(1986년 6월~ 1995년 9월호, 1989년 1월호와 3월호는 휴간)에 『火山島』 2부 110회(전 16장 <제1장~ 제15장, 종장>, 전 110절) 연재하였다. 단행본은 2절 분(제 25장 7/8)에 가필과 종장(2절에서 6절)으로 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1988년 제3권까지 전 5권(이호철 김석희 역, 실천문학사)으로 번역 출판되고, 2015년 전 12권(김환기·김학동 역, 보고서)이 번역되었다. 일본에서도 2001년 岩波書店에서 재출판 되었다.

본다. 작품이 가진 사건에 대한 고발의 의미와 사건의 본질이 드러나도록 형상화된 부분을 통해 분단의 현실과 통일을 향한 오늘의 시점에서 통일문학으로서의 의미를 생각해본다.

2. 연구사 검토

1) ‘재일조선인문학’으로서 김석범 문학 연구

김석범과 같이 무국적(‘조선적’ 등록법상의 記号)인 존재로 일본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문학에 대한 호칭은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재일문학’이라는 입장은 일본에 사는 여러 민족의 문학도 포함되므로 너무 광범위하다. 또, 한국의 입장에서 보는 ‘재일한국인문학’이라는 견해는 김석범처럼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적합하지 않다.

본고에서는 무국적자인 김석범이 자신의 문학을 ‘재일조선인문학’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수용하여 ‘재일조선인문학’이라고 하고자 한다. 김학동³³⁾(2007년) 역시 ‘김석범과 같이 통일된 조국을 기다리겠다며 한국 국적 취득을 거부하는 작가들까지 전부 재일한국인문학과 재일한국인 작가라는 용어로 묶는 것은 그러한 작가들이 작품에 임했던 작가 정신을 침해하고 재일조선인 문학의 본질이 희석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케다 세이지(竹田靑嗣)(1983년)³⁴⁾는 김석범 문학이 재일조선인이 지닌 결여와 공허의 감각을 언어의 상상력의 세계를 통해 조국·민족을 지향하고 있다고 평하며, ‘왜 재일인가’라는 김석범의 물음은 윤리적인 자책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재일의 현실적 안일함에 대해 심판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김석범 문학이 재일한국·조선인 문학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관한 논문에서 나카무라 후쿠지(中村福治)³⁵⁾(2000년)는 ‘재일조선인문학’의 출발이라고 평가되는 김달수의 「박달의 재판」, 「태백산맥」과 ‘재일조선인문학’의 대표라고 평가되는 김석범의 「화산도」, 「만덕유령기담」을 비교하였다. 나카무라³⁶⁾(2001년)는 김석범은 강렬한 민족의식과 언어 감각, 날카로운 역사 인식을 하고, 재일조선인의 존재 형태가 급속도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조국을 무대로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만들고, 재일 1세대가 주로 다루었던 ‘민족’, ‘조국’, ‘민중’, ‘해방’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고 평가하였다.

와다 요시히로(和田圭弘)³⁷⁾(2009년)는 김석범 문학론에서 1963년부터 1972년까지의 시기를 한

33) 김학동, 『민족문학으로서의 재일조선인 문학』,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2쪽

34) 竹田靑嗣, 『〈在日〉という根拠- 恢成 金石範 金鶴泳』, 国文社, 1983.

35) 나카무라 후쿠지(中村福治), 「김석범 문학이 재일조선인 문학에서 차지하는 위치」, 『용봉인문논총』 29권, 2000.

36) 나카무라 후쿠지(中村福治), 『김석범 「화산도」 읽기』 삼인, 2001.

37) 和田圭弘, 「金石範の文学論について一九六三から一九七二まで」, 『言語社會』 第3号, 2009.

정하여 김석범이 지향하는 리얼리즘 문학 개념과 문학 운동을 둘러싼 문제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와다는 1970년경부터 재일한국·조선인문학이라는 틀에서 작가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김석범은 일본어를 창작언어로 삼아 작가로서 새로운 출발을 전개한 시점으로 ‘재일조선인문학’의 틀을 형성하는데 많이 관여해왔다고 평하였다.

이한창³⁸⁾(2000년)은 조총련 조직이 김석범을 비롯한 재일조선 문학인들을 사회주의 건설을 명분으로 통제함으로써 동포 문학이 침체되는 등 재일조선인 문학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논하였다. 정대성³⁹⁾(2005년)은 조총련이 문학인들의 서클과 분과 활동을 금하고 개인의 다양성 특히 일본어 사용을 허무주의, 패배주의 등으로 낙인찍고 단죄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 제3세계의 민족어 회복 운동과 북한의 유일 지배 체제 강화라는 사회적 배경이 작가들과 대중들을 조직에서 이탈 시켜 도리어 조직이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설명한다. 오은영⁴⁰⁾(2009년)은 김석범이 작품을 쓰기 시작한 배경과 문학인의 길을 선택한 이유에 조직 활동의 체험이 주요 요인임을 주목하였다. 또한, 재일조선인 문학의 성립 과정과 일본 공산당과의 관계, 작가의 작품 배경인 조직과의 관계를 기술함으로써 작가의 사상적 의식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김석범 문학을 읽는 시각을 역사적인 단계와 사회적 배경의 관점에서 논한 정대성⁴¹⁾(2006)은 작가의 삶과 작품 세계에 내재한 사상과 행동이 좌익이라는 고정관념을 벗고, 이중 언어의 역동성에 의미를 부여하여 다각적 시각에서 읽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오은영⁴²⁾(2008년)이 1945년 전후 재일조선인을 소재로 한 「똥과 자유」, 「허몽담」, 「1945년 여름」 세 편을 중심으로 재일조선인들의 좌절과 절망, 재일의 모순점 등을 고찰하고, 김석범 작품 안에 ‘냄새’에 관한 표현이 자주 등장함을 들어 김석범 소설 안에서 차별의 냄새, 여성의 냄새, 타는 냄새를 분류하고 그 함축하는 의미⁴³⁾를 찾아 김석범 문학을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고자 하였다.

김학동⁴⁴⁾(2007년)은 민족문학의 개념을 제시하고 김석범을 비롯한 재일한국·조선인 작가들이 일본어 글쓰기를 통해 한국·조선인인 것을 구현한 점에 관해 고찰하였다. 문학의 범주를 언어만으로 귀속 결정하는 것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고, 재일한국·조선인 문학을 한국문학의 범주에서 논의되고 평가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소재영⁴⁵⁾(2009년)은 재일동포문학이 남북 어

38) 이한창, 「재일 동포조직이 동포문학에 끼친 영향」, 『日本語文學』 제8집, 1998.

39) 정대성, 「작가 김석범의 인생역정, 작품세계, 사상과 행동 서론적인 소묘로서」 『한일민족문제연구』 9권, 2005.

40) 吳恩英, 「金石範文学とその政治的背景」, 『日本文化學報』 第43輯, 2009.

41) 정대성, 「김석범 문학을 읽는 여러 가지 시각- 그 역사적인 단계와 사회적 배경」, 『일본학보』 66권, 2006.

42) 吳恩英, 「金石範の作品に表われる矛盾について—四三事件不在の作品群を中心に—」, 『日本語文學』 第38輯, 2008.

43) 吳恩英, 「金石範文学における「におい」」, 『日本文化學報』 第56輯, 2013.

44) 김학동, 「민족문학으로서의 재일조선인문학」, 『日本文化學報』 제84집, 2007.

45) 소재영, 「재일동포문학의 민족 문학적 성격 연구」, 『국학연구론총』 제4집, 2009.

느 한쪽에 속한 편향된 문학이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 아래, 김석범을 비롯한 재일동포 문학인의 작품이 민족 문학적 성격에 대해서 논하고 재일한국·조선인 문학을 통일문학사를 전망하는 귀결점으로 이해했다. 김석범⁴⁶⁾(2015년)은 재일한국·조선인 문학에 대하여 일본 문학은 상위 문학, 일본 문학의 일부분인 ‘재일조선인문학’은 하위 문학이라는 문학 개념이 일본 전후 사회에서 오랫동안 당연시되고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김석범 문학은 일본 문학이 아니라 일본어 문학, 디아스포라 문학으로 문학은 언어만으로써 형성하거나 그 ‘국적’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상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곽형덕⁴⁷⁾(2016년)은 김석범이 조총련을 떠난 이후 1968년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1988년까지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고, 『고국행』을 검토해 『화산도』⁴⁸⁾부와 관련된 성과 ‘재일’의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곽형덕은 김석범은 작품에서 남과 북 양쪽 체제를 비판하고 통일 ‘조국’을 지향하며 공생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평하였다.

고명철⁴⁸⁾(2016년)은 김석범의 『화산도』 속 제주가 지닌 지정학적 특성과 인문학적 가치는 정치적 상상력을 넘어 해방의 기획으로서 ‘문제 지향적 공간’이라고 제시하였다. 또, 『화산도』는 특정한 국민문학(일본문학, 한국문학, 북한문학)에 구속되지 않은 이른바 ‘경계의 문학’의 속성을 띠면서 국민문학으로 온전히 추구하기 힘든 문학적 진실을 탐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한정⁴⁹⁾(2016년)은 ‘일본어’로 쓴다는 문제의식을 언어론적 차원에까지 탐구한 김석범이 재일한국·조선인 작가로서 한국·조선적인 것을 담아내고, 일본어의 ‘주박(呪縛)’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한 제동장치 역할을 했다고 하였다.⁵⁰⁾

나카무라 이루손(中村一成)⁵¹⁾(2018년)은 김석범을 비롯한 1920년대부터 1940년대 출생한 6인의 재일조선인 정인(鄭仁, 시인), 박정혜(朴正惠, 교사·작가), 고사명(高史明, 소설가), 박종명(朴鐘鳴, 작가), 이실근(李實根, 재일조선인 원폭 피해자 지원)의 ‘사상(思想)으로서의 조선적’에 관하여 언급했다. 이들 재일조선인에게 ‘조선적’은 ‘사상’을 의미하며 한국이나 일본을 기피하거나 북한을 지지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김석범의 문학의 원점은 ‘상실’에 있다고 보고, 권력에 의해 빼앗긴 것을 상상력에 의해 작품화하였다고 했다.

46) 김석범, 「한국어판 『화산도』 출간에 즈음하여」, 『화산도』 1권, 보고서, 2015, 6~7쪽.

47) 곽형덕, 「‘재일’의 근거로서의 화산도」 제주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53권, 2016.

48) 고명철, 「해방공간의 혼돈과 섬의 혁명에 대한 김석범의 문학적 고투 - 김석범의 화산도 연구(1)」, 『영주어문』 34집, 2016.

49) 이한정, 「김석범의 ‘조선적인 것’의 문학적 진실과 정치적 상상력 - 김석범의 화산도 연구(2)」, 『한민족 문화연구』 57호, 2017.

50) 이한정, 「김석범의 언어론 - ‘일본어’로 쓴다는 것」, 『일본학』 제42집, 2016.

51) 中村一成, 『ルポ 思想としての朝鮮籍』, 岩波書店, 2017.

2) 4·3 작품에 대한 연구

제주 출신 재외(在外) 문인들 작품에 관한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펼친 『제주문학』 제23집 ‘권두정담(卷頭鼎談)⁵²⁾에서 김석범의 ‘「화산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제주문학’은 일제 강점기 제주 출신들에 의해 제주도에서 문학 활동이 산발적으로 전개되었지만,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였고 지역성의 차원에서 평가된 것도 드물었다.⁵³⁾ 제주도 최초의 잡지 『신생』⁵⁴⁾을 통해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제주 지역의 문인들에 의해 문학적 결과물이 자율적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해방 이후 제주에서 이루어진 문학 활동을 파악하기 어려운 가장 큰 요인이 4·3이라 할 수 있다. 유실된 자료를 역사와 사회 연구 등에서 보완하고 당시의 문학적 상황들을 종합해 나갈 때, 해방 공간의 면모는 좀 더 뚜렷해질 것이다.

김병택은 4·3을 소설의 소재로 선택할 때 두 개의 이질적인 이데올로기가 끊임없이 교체되던 시기에 발생한 수난의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4·3 소설의 문학성을 논의하는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요소들과의 유기적 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⁵⁵⁾고 언급하였다. 제주문학에서 가장 대표성을 띠는 것이 4·3 문학이고, 4·3에 관한 최초의 문학 작품화가 김석범의 소설이다.

박미선⁵⁶⁾(2002년)은 김석범의 초기 4·3 소설 「간수 박서방」과 「관덕정」의 등장인물에 초점을 두고 논하였다. 작가의 소설은 조형력에 의해 탄생한 민중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적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언어적 제약에서 벗어나 있는 일본이라는 공간에서 비경험자의 시각으로 글쓰기에 객관성을 띠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봉⁵⁷⁾(2003년)은 김석범의 4·3 소설에 바보형 인물이 지속해서 등장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김석범 소설의 바보형 인물은 용모나 행위가 우스꽝스럽고 미천한 신분으로 일반적 바보

52) 濟州文人協會, 참석자: 강통원·김영화·고시흥, 「특집 제주출신 재외 문인 작품. 권두정담 제주문학의 회고와 전망」, 『濟州文學』 제23집, 1993.

53) 제주문인협회, 앞의 책, 11~12쪽. 제주문학은 1950년대 6.25 전란으로 피난민이 유입되고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과 젊은 교사들 중심으로 문학에 관심이 고조되면서 출발하였다. 즉, 6.25 전란을 동기로 문학 활동이 시작되어 문단의 틀이 형성되었다는 견해이다. 제주 문학의 범위는 좁은 의미에서 첫째,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에 살면서 문학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문학. 둘째 제주에서 태어나 유소년 시절을 제주에서 보내고 성년 이후 외지에 나가 문학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문학. 셋째, 성년 이후 제주에 건너와 오랫동안 제주에 살면서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의 문학이라고 보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하였다. 본 논자도 김석범 문학의 경우 제주를 제재로 하고 있고 작품 안에 제주도 방언을 가타카나로 쓰고 있는 점 등에서 제주 문학 안에서 수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4) 김병택, 『제주 현대문학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5, 80~81쪽. 『신생』은 제주도 최초의 잡지였을 뿐만 아니라, 해방 직후 제주지역의 문학적 역량을 결집한 최초의 성과물이다. 문학 전문지는 아니었지만, 편집인이 주로 문학 관련자였고 잡지 내용의 절반을 문학 작품으로 채웠다. 지역 문학적인 차원의 관점을 견지하면서 일제강점기 지역 문학의 성과를 부분적으로나마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4.3의 역사적 사건이 제주문학의 발전에도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신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복, 최길두 등은 신생에 참여한 이후 4.3의 소용돌이를 겪으면서 문학 활동이 위축되었고, 결국은 활동을 중단하였다.

55) 김병택, 앞의 책, 251쪽.

56) 박미선, 「김석범 문학의 4·3 연구 대응 방법」, 『비교문화연구』 5권, 2002.

57) 이재봉, 「바보의 신화화 - 김석범 소설의 바보형 인물」, 『한국문학논총』 제34집, 2003.

유형이라 할 수 있지만, 대중과 소통하지 않고, 세계와의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엄숙과 우스꽝스러운 것이 구분되지 않는 신화적 세계의 인물이라고 평하였다. 김석범 소설 속 바보형 인물이 독자에게 웃음을 주지 않는 비웃음의 대상으로 독특한 형상을 하고 있고, 소설 속에서 유명 같은 존재가 된 ‘만덕’은 신화화되었다고 했다. 김혜연⁵⁸⁾(2007년)은 김석범을 재일 1.5세대로 규정하고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4·3 공간에서 바보형 인물을 설정하고 비극적 상황을 형상화하였다고 평하였다. 서영인⁵⁹⁾은 (2012년) 「까마귀의 죽음」과 「허몽담」에 드러난 경계인의 정체성을 주제로 한 논의에서 김석범을 제1세대 재일조선인 작가라는 관점에서 논하였다.

김석범 문학 연구는 대표작 「까마귀의 죽음」과 「화산도」를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두 작품을 구조적 틀에서 분석한 김학동⁶⁰⁾(2007년)은 이들 작품의 중계적 위치에 있는 한글 『화산도』의 집필 배경과 작품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하였다.

소명선⁶¹⁾(2008년)은 일본 근·현대문학 속에서 제주도가 어떻게 표상되고 있는지, 4·3에 대한 언급조차 한국에서 금기시되던 때에 김석범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 반대를 표명한 민중봉기의 진상과 양민 대학살에 대한 역사적 고발의 의미를 지닌 장편 『화산도』를 완결하여 통일조국의 염원을 담아내었다고 평하였다.

노종상⁶²⁾(2010년)은 4·3을 테마로 한 김석범과 현기영의 소설에서 구성요소 중 하나인 심적 거리를 비교 논의하였다. 현기영은 제주도 출신으로 4·3을 직접 겪은 작가인데 반하여, 김석범은 간접적으로 경험하였지만, 육체적·지리적 거리는 멀어도 도덕적·심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사건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점을 기술하였다.

조수일·박종명⁶³⁾(2010년)은 김석범의 작품이 4·3 전후를 배경으로 남한의 정치 노선과 제주도민 간의 갈등, 이념적 대립, 그 틈새에 있는 인간군상을 세밀하게 그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등장인물들의 ‘기억’을 ‘장애’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김석범의 작품을 읽어보고, 특히 ‘신체’와 ‘정신’을 축으로 삼아 등장인물들의 ‘기억’이 어떻게 서사 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한창⁶⁴⁾(2011)은 4·3을 소재로 한 첫 작품 「1949년 무렵의 일지에서」에 관한 고찰에서 김석범 문학의 원형으로서 의미를 부여하였다. 또, 이한창⁶⁵⁾(2012년)은 김석범의 「까마귀의

58) 김혜연, 「김석범의 「까마귀의 죽음」의 인물형과 디아스포라 역사의식 연구」, 『국제한인 문학연구』 제4호, 2007.

59) 서영인, 「김석범 문학과 경계인의 정체성-초기 작품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40집, 2012.

60) 김학동, 「김석범 한글 『화산도』론 - 한글 『화산도』의 집필 배경과 「까마귀의 죽음」 및 『火山島』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日語日文學研究』 제62집, 2007.

61) 소명선, 「문학적 표상으로서의 <섬> - 일본 근·현대문학 속의 ‘제주도’-」, 『동북아 문화연구』 제7집, 2008.

62) 노종상, 「4.3의 문학적 형상화와 ‘심적 거리(psychic distance)’ 현기영의 「순이삼촌과 김석범의 「까마귀의 죽음」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통권 79호, 2010.

63) 조수일·박종명, 「金石範의 「남겨진 기억(遺された記憶)」論-‘신체’와 ‘정신’의 ‘기억’ 서사를 중심으로」, 『日本語文學』 44권, 2010.

64) 이한창, 「김석범의 「1949년의 일지에서」에 관한 고찰」, 『日本語文學』 제54집, 2012.

죽음」에 등장하는 인물의 모습을 정리하고 작품이 나오게 되는 과정과 김석범의 조직 활동을 살펴보았다. 임성택⁶⁶⁾(2017년)은 작품 속 인물을 영웅형 인물과 지식인의 모습, 조선적인 민중형 인물, 좌우익의 대립을 묘사하는 인물로 유형별 분석하였다.

김계자⁶⁷⁾(2014년)는 김석범의 「1945년 여름」 속에 그려진 4·3의 폭력성과 고발성을 살펴 보고, 해방과 패전이라는 관념과 현실의 역사적 기억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일본 사회를 향해 묻는 김석범의 문제의식을 고찰하였다. 재일의 디아스포라 논의에서 은폐되고 있는 ‘일본’의 문제를 김석범의 〈8·15〉의 환기에서 답을 찾고자 했다.

김환기⁶⁸⁾(2015년)는 서사화가 용이하지 않은 격동기 해방정국의 정치 이데올로기 상황(미군정, 이승만 정권, 남북 분단 등)과 굴절된 제주도(제주 4·3)의 사회문화 지점을 거대한 이야기의 세계로 담아내고 해방 직후 정치 이데올로기 정국을 서사화한 점을 들어 「화산도」의 역사적, 문학사적 의미에 대해서 평하였다.

하야시 고지(林浩治)⁶⁹⁾(2016년)는 재일조선인 김석범이 해방 후 조국 건설에 참여 못한 후회와 자기혐오의 실존 문제를 제주도와 결부시킨 작품 세계에서 표현하고 있다고 했다. 하야시는 김석범이 제주 4·3을 배경으로 한 소설 속 등장인물을 매개로 자기표현을 하고, 정치적·역사적 과제 속에서 작가로서의 본질을 찾아냈다고 평하였다.

송혜원⁷⁰⁾(2017년)은 김석범 작품에 등장하는 통역, 스파이가 어떤 의도로 채용되고,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그 이중성에 대하여 고찰하고, 국가 단위의 문학에 머물지 않고 복수의 ‘조선문학’이라는 개념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김동현⁷¹⁾(2017년)은 김석범의 대표작 「화산도」는 해방기 국가 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포섭과 배제의 문제를 제시한다고 보았다. 4·3을 이념적 대립이 아니라 ‘서울-제주’라는 지역적 대립의 관점에서 논하고, 4·3을 ‘식민-해방’이라는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보았다. 「화산도」는 ‘희생담론’에 정체된 4·3에 관한 인식의 전환과 논의의 장을 확장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하였다.

김학동⁷²⁾(2007)은 『화산도』론에서 친일파와 공산주의자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논하였고, 김종옥⁷³⁾(2010년)은 『화산도』론을 통해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건설 과정에 나타난

65) 이한창, 「김석범의 「까마귀의 죽음」에 관한 고찰」, 『日本語文學』 제56집, 2013.

66) 임성택, 「김석범의 초기 소설 인물 형상 연구」, 『日本語文學』 제58輯, 2013.

67) 김계자, 「환기와 소거 그리고 일본어 문학: 김석범의 「1945년 여름」」, 『한림일본학』 25집, 2014.

68) 김환기, 「김석범·『화산도』 <제주4.3>- 『화산도』의 역사적/문학사적 의미」, 『일본학』 41호, 2015.

69) 林浩治, 「金石範文學論-在日の実存を濟州島に結ぶ-イデーとしての濟州島-」, 『神奈川大学評論 / 神奈川大学評論 編集専門委員会 編』, 2016.

70) 宋惠媛, 「金石範作品における通訳、スパイ、アメリカ-複数の朝鮮文学をつなぐために-」, 『日本學報』 第111輯, 2017.

71) 김동현, 「김석범 문학과 제주 - 장소의 탄생과 기억(주체)의 발견」, 『영주어문』 제35집, 2017.

72) 김학동, 「『화산도』론-친일파와 공산주의자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제13호, 2007.

73) 김종옥, 「국가권력의 폭력성과 디아스포라의 양상- 김석범의 『화산도』론」, 『비교한국학』 18권 3호, 2010.

억압과 배제의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국가권력의 폭력성과 디아스포라의 양상에 대해 고찰하였다. 권성우⁷⁴⁾(2017년)는 『화산도』론에서 ‘친일’과 ‘대일협력’에 대한 면밀하고 단호한 문제 제기라는 관점에서 논하였다. 조수일⁷⁵⁾(2018년)은 『화산도』론에서 이방근과 남승지의 상관관계와 일본어 독자에게 제주도를 어떻게 읽게 할 것인가 중층(重層)하는 상호작용에 대하여 논하였다.

기존의 김석범 연구가 ‘재일조선인문학’과 ‘제주4·3문학’의 틀에서 그 가치와 의미에 대하여 국내와 일본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4·3을 소재로 한 「화산도」와 「까마귀 죽음」 등 몇몇 작품에 집중되거나 작품 위주의 분석보다는 김석범의 사상과 재일의 정치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김석범 문학이 국적의 틀을 넘어 한국문학과 일본문학의 접점에 있는 재일조선인에 의한 ‘일본어문학’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작가의 체험담이나 사상적 시각을 담은 소설에 등장하는 재일조선인의 형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재일조선인 조직과의 관계와 작가의 4·3 소설로 이어지는 부분에 논의의 방향을 맞추어 김석범 소설을 연계성을 가지고 분석하여 김석범 문학의 전체상과 작가의 재일의식을 이해하고자 한다.

3. 연구 범위와 방법

본 논문은 조직 활동 체험과 이탈과 관련해서 재일조선인 김석범의 심경이 묘사된 소설과 4·3 소설의 원형이 되는 작품을 중심으로 그 연관성을 기술한다. 국내 연구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던 작품을 포함함으로써 기존의 논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한다.

「1949년 무렵 일지에서—죽음의 산의 일절에서(一九四九年頃の日誌から—死の山の—節から)」, 「까마귀의 죽음(鴉の死)」, 「만덕유령기담(万徳幽靈奇譚)」, 「허몽담(虛夢譚)」, 「밤(夜)」, 「도상(途上)」, 「왕생이문(往生異聞)」, 「작열하는 어둠(炸裂する闇)」, 「화산도(火山島)」를 중심으로 김석범 고유의 재일조선인의 모습을 살펴보고 자신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한 소설의 고찰을 통해 김석범 문학의 형상을 구체화 시키고자 한다.

I 장에서 김석범의 작품군은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볼 수 있음을 제시한다. 첫째는 일본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성찰한 작품이다. 둘째는 재일조선인 조직 활동 경험에 의한 문학적 정치 활동의 성향을 작품화 한 것이다. 셋째는 제주도 4·3을 인지하고 이방인의 삶을

74) 권성우, 「김석범의 『火山島』에 나타난 ‘친일’ 비판의 의미」, 『국제한인문학연구』 제19호, 2017.

75) 趙秀一, 「金石範 『火山島』論- 重層する語りの相互作用を中心に-」, 『社会文学』, 編集委員会 編 (47), 2018.

극복하기 위해 창작한 작품이다. 역사적 현실 사건을 배경으로 김석범 소설 안에 나타난 인물의 형상(形像) 연구를 목적으로 설정하고 기존의 연구를 정리·검토한다. 그리고 연구 방법과 범위를 제시한다.

II장에서 재일의 삶에서 오는 정체성의 문제를 다룬 작품을 가지고 ‘재일조선인의 삶과 형상’을 살펴본다. 재일조선인으로서 일본어를 창작 언어로 문학인의 삶을 선택하면서 언어와 동화의 문제를 다룬 작품이 「허몽담(虛夢譚)」(1969)이다. 그리고 귀향에 대한 생각을 ‘나’와 주변의 재일조선인 행동을 통해 형상화한 작품이 「밤(夜)」(1971)이다. 이들 작품을 통해 문학적으로 재일의 삶을 형상화한 작가 의식을 이해하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김석범 문학의 배경이 되는 재일조선인 조직과 관련된 작품을 통해 조직 체험 전후의 재일조선인 형상을 살펴본다. 김석범이 ‘김병식 사건’을 소재로 재일조선인 조직의 실상을 처음으로 드러낸 작품이 「도상(途上)」(1974)이다. 이후 ‘위장 전향’을 소재로 조직원들의 해방 전후의 삶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 「왕생이문(往生異聞)」(1979)이다. 그리고 일본 사회에서 일어났던 ‘4·24한신교육사건’을 소재로 한 「작열하는 어둠」(1993)에서는 조직을 이탈하고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작가와 조직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이들 작품을 통해 작가의 재일조선인 조직과 정치적 사건을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지, 조직에서 탈당하고 나서 겪은 체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작품에서 사상적 흐름과 전향적인 자세를 살펴본다. 김석범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혁명가의 삶에서 정치적 활동을 이어가려는 방법으로 선택한 문학 활동으로의 마음의 변화(改心) 과정과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게 된 이유를 작품 속 재일조선인 ‘나’를 중심으로 한 인물의 행동을 통해 알아본다.

IV장에서는 김석범의 4·3 소설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1949년 무렵의 일지에서」(1951), 「까마귀의 죽음」(1957), 「만덕유령기담」(1970)을 중심으로 작가의 ‘재일의 의식’과 작가의 시점에서 4·3에 관한 문학적 형상화를 살펴본다. 작품에서 모두 4·3을 시간적·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작품의 발표 시점에 있어 4·3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각과 표현의 변화를 주목한다.

작가의 4·3 소설의 원형으로 생각되는 세 편의 작품을 중심으로 제주도 4·3으로부터 도망쳐온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상상력을 더하며 작가가 구상했던 4·3의 역사를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V장 ‘재일 체험과 작가 의식’에서는 작품 안에 그리고 있는 역사적 사건과 현실과의 호응 관계를 파악하고, 재일조선인 주인공 ‘나(私)’와 실존하는 김석범의 심적 거리를 통해 재일에서 있었던 사건 체험과 조직 이탈로 겪게 된 이후의 언어 사용의 문제와 문학으로의 전향적 자세를 살펴본다. ‘제주도4·3사건’을 역사적 기록에 바로 세우려는 정명(正名)을 위한 작업에

있어서 작가의 소설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각 장에서 주제별 작품 분석을 통해 작중 인물 재일조선인 ‘나’의 의식의 흐름과 주변인의 행동으로 표현된 역사적 사건에 대한 대응력을 살펴보고 그 안에 담겨있는 작가 의식의 형성과 변화를 이해하여 김석범 문학의 전체상을 파악한다.

II. 재일조선인의 삶과 형상

1. 재일의 근거와 의미

김석범(본명:慎陽根)⁷⁶⁾은 제주도 삼양동이 고향인 어머니(康貞山)가 일본으로 건너가고 3개월 정도 지난 후 1925년 10월 2일 오사카 이카이노에서 낳은 재일 2세대이다. 김석범이 두 살 때 36세의 아버지는 제주도에 병으로 사망하고 어머니가 일본에서 재봉 일과 노동자를 상대로 하숙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다. 김석범은 다섯 살 무렵 전협(일본 전국노동조합 전국협의회)에서 활동하며 노동 운동에 참여하던 형이 사복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장면을 목격한다. 김석범은 풍족하지 않은 가정환경에도 조선과 일본 노동 운동가에게 원조하던 어머니와 형의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혁명적 사상을 지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재일 2세대 김석범은 일본의 입국관리법이 정한 특별영주자의 신분으로 외국인 등록증의 국적란에는 일본 제국주의가 지배하던 시대에 일본 국민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조선’이라는 기호로 적혀있다. 김석범은 한반도와 일본의 경계에서 국가 구성원인 국민의 자격도 국적의 증명도 갖고 있지 않은 이산민(diaspora)이라 할 수 있다.

남북 모두 ‘한국’ 국적, ‘조선’ 국적을 가진 재일 교포를 각각 재외 공민으로 하고 있지만, 나의 경우는 기호로서의 ‘조선’ 국적 그대로이고, 재외 공민도 아닐뿐더러, 앞으로 북과 일본이 국교가 정상화되더라도 북의 국적 그리고 한국 국적을 취득할 생각은 없다. ‘국적’이 ‘국민’의 증명이고 증거라고 한다면 나는 어느 나라의 국민도 아니다 말하자면 무국적이다.⁷⁷⁾

재일조선인 김석범은 이방인의 감각으로 남북 분단에 의한 조국 상실의 정치적 요

76) 金石範, 『金石範作品集Ⅱ』, 平凡社, 2005년에 수록된 상세 연보를 참고로 한다. 김석범의 연보는 『筑摩現代文学大系 95』와 『新編「在日」の思想』에 수록된 자필 연보와 김석범 인터뷰를 참고로 히라즈카 타케시(平塚毅)가 작성한 것이다.

77) 金石範, 「私の場合 國民・國籍」, 『季刊東北学』 제27호, 2008, 29쪽. 南・北ともに「韓国」籍、「朝鮮」籍の在日同胞をそれぞれ在外公民としているが、私の場合は記号としての「朝鮮」籍そのままであり、在外公民でもなければ、将来「北」と日本の国交正常化がなされた場合でも、北の共和国籍を、そして韓国籍を取得する考えはない。「国籍」が「国民」の証明であり、証拠だとするなら、私はどこの「国」の国民でもない。つまりは無国籍者となる。

인을 안고 사는 존재이다. 김석범의 재일의 근거는 일본 식민지 지배의 소산이며, 해방 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 복잡한 정치적 상황과도 얽혀있다.

1946년 시점에서 귀국 희망자는 대부분 귀국을 마쳤는데, 해방된 조국으로 귀국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본으로 역류·밀항하는 일이 생기거나, 일본에서 생활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일본으로 들어온 현상이 해방 후 3, 4년간 집중적으로 일어났다.⁷⁸⁾ 해방 이후 많은 재일조선인은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귀국을 단념하고 재일의 삶을 이어간 사람들을 중심으로 재일(在日)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김석범이 말하는 재일의 실존 의미는 남과 북의 상황을 같은 시야에 놓고 총체적·객관적으로 보고,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자립성을 가지는 데 있다. 김석범은 통일이 실현되어 남북의 역사를 총괄하여 다시 쓰기 작업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통일된 민족의 이념에 따라 왜곡되고 결락된 역사를 바르게 복원되지 않는 한, 재일조선인을 포함한 ‘조선민족’은 진정한 해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조국 통일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재일조선인의 창조적 역할을 강조한다.

문학인으로서 재일조선인 김석범은 재일의 특징과 실정을 주제로 민족 통일의 지향성을 그리고 있다. 식민지의 잔재라는 재일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재일조선인의 심정과 재일의 실정에 관한 민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김시중은 일제 강점기 때의 김사랑을 이은 김달수와 그 계열의 김석범의 작품 테마가 고국에 맞춰져 있어 재일 동포에게 민족성의 각성 척도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재일 동포의 생존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는 점⁷⁹⁾을 지적한 바가 있다. 하지만, 김석범 문학의 근본은 ‘재일조선인의 삶’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삶의 환경에서 가지게 된 허무의식을 고국과 일본에서의 해방 공간을 배경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야시 고지(林浩治)는 1970년대 이회성이나 김학형이 재일 2세의 입장에서 재일 교포를 테마로 아쿠타가와상(芥川賞)을 받으며 재일한국·조선인 문학이 주목받았는데,

78) 金石範, 「在日とはなにか」, 『新編「在日」の思想』, 講談社, 2001, 70쪽. 一九四六年の時点で絶えたといわねばならない現象が起こってきたからだった。それだけではない解放された独立祖国へ引揚げた人たちがふたたび日本へ逆流、密航してくるという事態が生まれた。いや、それだけではない。日本での生活の経験のない者たちが、祖国と故郷を捨てて数トンの漁船で日本に密航する危険を冒すようになる。再入国者を含めてその数は不明だが、これは解放後ほんの三、四年間に集中的に起った現象だった。

79) 座談會出席者: 高銀·金時種·金潤, 司會: 李恢成, 「統一を志向する民族文学とはなにか」, 『季刊民涛』 6号, 1989, 260쪽.

그즈음 김석범은 「까마귀의 죽음」이나 「만덕유령기담」 등 작품이 일부 알려지고, 『말의 속박(ことばの呪縛)』, (筑摩書房, 71년), 『입이 있는 자는 말해(口あるものは語れ)』(筑摩書房, 75년), 『민족·말·문학(民族ことば文学)』(創樹社, 76년) 등을 발표하면서 재일조선인의 입장을 논하고, 재일조선 문학인이 일본어로 쓰는 의미와 곤란함에 대한 김석범의 비평 활동은 ‘재일조선인문학’이라는 말을 정착⁸⁰⁾하게 했다고 평한다.

재일 2세대 김석범은 일본어가 생활의 기본 언어이지만, 문학인으로서 고국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본어로 쓰는 것에 고심했다. 김석범이 재일조선인 조직 조총련 활동 당시 ‘조선어’를 사용하라는 조직적 통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창작 언어를 일본어로 표현한 것은 재일조선인에 의한 문학이 재일조선인 독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뿐더러, 재일 2세조차도 고향의 말을 잘 모르는 재일의 현실에서 일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김석범이 한반도와 일본, 남과 북의 경계에서 민족주의 의식을 가지고 조선적인 것을 지키려는 신념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작품이 1969년 발표한 「허몽담(虛夢譚)」이다. 작가는 일본어를 창작 언어로 선택한 것에 대한 고민과 일본으로 동화하고 있는 자신을 질책하는 의미를 작품 세계에 표현하고 있다.

1971년 발표한 「밤(夜)」에서는 북으로의 ‘귀국사업’을 배경으로 재일조선인에게 진정한 고국, 고향이 어디인지를 작품을 통해 생각하고 있다. 작가 스스로 고국으로의 귀환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김석범은 조국의 통일을 바라며 자신의 국적 문제와 언어 문제, 고국의 의미를 생각하며 재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노력을 소설에서 표현하고 있다. 재일조선인이 일본에 정착화가 진행되고 민족적인 것의 풍화와 일본으로의 동화가 일어나는 사회 현상을 인지하고, 작가는 문학으로 일본에서 재일의 존재 의식을 가지고 이민족이 공존하는 길을 스스로 모색하고자 한다.

2. 「허몽담」에 나타난 동화의 문제

김석범이 1962년에 발표한 「관덕정」 이후 7년 만에 본격적으로 일본어를 창작 언어

80) 林浩治, 「虚無と對峙して書く-金石範文学論序說-」, 『社會文學』 제26호, 2007, 87쪽.

로 삼고 발표한 작품이 「허몽담」이다. 작품 안에 재일조선인의 사용 언어를 소재로 의식적으로 조선적인 것을 담아내려는 의지를 보이고, 재일조선인의 일본으로 동화의 문제를 주제로 하고 있다.

「허몽담」은 20세 김석범이 1945년 8월 15일 동경의 미노와(三ノ輪) 병원에서 조선의 광복 소식을 방송으로 듣고, 조국 땅에서 환희로 조선독립 만세를 부르지 못한 광복의 날 체험을 ‘나(R)’의 시각에서 그린 작품이다.

재일조선인 ‘나’가 거미줄 같은 그물망 안에서 수많은 소라게⁸¹⁾에게 오장육부가 뜯기고 먹혀버린 허망한 꿈속 이야기를 꿈에서 깨어난 후 회상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짊어지고 장소를 이동하며 살아가는 소라게의 습성과 이방인과 같은 재일조선인의 삶을 접목해서 표현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기타노 아키히코(北野昭彦)는 꿈속에서 잃어버린 ‘조선의 창자’는 ‘조선의 정신’을 비유한 것으로, 소라게는 ‘나’의 조선의 정신을 먹는 것이고, 일본으로의 동화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았다.⁸²⁾ 재일조선인 ‘나’의 오장육부가 소라게에게 먹히는 꿈은 동화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의 표현이다.

꿈속에서 ‘나’는 창자가 먹히는 데도 아랫배에 웅크리고 있는 흥측한 무녀의 주술 탓인지 전혀 아프지도 피도 나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다. 작가는 꿈속에서 아무런 고통도 없이 자신의 오장육부가 없어지는 신체적 결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의 오장육부가 훼손되는 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는 표현은 재일조선인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내부에 갖고 있던 민족 고유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데도 어떤 고통도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적 경각심의 표현으로 보인다.

작가는 재일조선인을 오장육부가 없는 외형의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다. 꿈속에서 20년 만에 찾은 고향은 창자가 없는 텅 빈 몸으로 자신에게 맞지도 않은 ‘조선옷’을 입고 찾아간 낯선 공간으로 묘사하고 있다. 조선 땅에서 대중 토론회에 참가하고, 오장육부가 없는 공복을 채울 만한 것을 찾아 조선 팔

81) 소라게, 남의집살이(やどかり, 宿借り)의 습성은 성장하면서 점차 큰 껍데기를 찾으며 그전의 껍데기는 버린다. 이런 특성 때문에 사람들에게 Hermit crab(은둔자 게)으로 불린다. 몇몇 소라게들은 껍데기 없이 지내는데 이것은 새로운 껍데기를 찾고 있는 중이다. 큰 소라게가 새로운 껍데기를 찾기 위해 전에 사용하던 껍데기를 버리면 조금 작은 소라게가 그 껍데기를 이용한다. 소라게는 자라면서 점점 더 큰 껍데기가 필요하다. 때때로 적당한 껍데기의 수가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 각각의 소라게가 껍데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격렬히 경쟁한다. (네이버 백과사전)

82) 北野昭彦, 「金石範「虚夢譚」の〈私〉と朝鮮育ちの日本人F-在日朝鮮人〈私〉と在日性を照らすもう一つの装置-」, 『論究日本文学』第81号, 2005, 58쪽.

도 여행을 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결여된 민족의 것을 찾으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꿈에서 홍길동의 분신을 자처하는 정령이 창자가 없으니 ‘조선인’이 아니라고 부정한다. ‘나’는 고국에서도 이방인의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조선’으로 오는 길에 없어졌다고, 나누어 줄 것을 호소하지만 버림받고, 홀로 잃어버린 창자를 찾아 광야를 헤매며 공포에 소리를 지르다 잠에서 깨어난다. 김석범은 허망한 꿈속 이야기에서 고국행에 느끼는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작중에 기분 나쁜 꿈의 원인을 얼마 전 수술하고 바륨 액을 먹어야 하는 거북함 때문인 것 같다고 애써 증명하고 있지만, 결국 김석범은 일본 땅에서 재일조선인으로 살아가는 자신에게 ‘조선인’으로서 결여·결핍에 대한 두려움을 꿈속 이야기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김석범 소설에서는 꿈에서 깨어나서 회상하는 것과 함께 특유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과거의 기억을 연상하는 기법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아침에 병원으로 갔다 집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주인공 ‘나’의 의식에 흐르는 과거의 기억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구조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기억 속 버스 안 풍경 속에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일본인이고 ‘나’는 여기가 일본이라는 것도 이따금 잊어버릴 만큼 일본이라는 공간에 익숙해져 있다. 작가는 ‘무의식’과 ‘익숙함’에 젖어있는 일상이 곧 ‘동화’의 다른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동화’에 대한 각성은 버스에서 옆에 타고 있던 일본인 회사원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야기에서 일어난다. 주인공 ‘나’는 “내일부터 과장이 외국에서 돌아와서 이제 해방이야”(141쪽)라는 두 사람의 대화를 얼핏 듣게 되고, 유독 ‘해방’이라는 말을 예민하게 느낀다. 재일조선인에게 조국, 민족, 역사, 자유 등과 함께 ‘해방’이라는 말은 일본에의 동화에 대한 ‘거부감’이나 ‘단절감’을 갖게 하는 말이다. 김석범은 결코 ‘동화’ 되지 않는 ‘단절(斷絶)’과 ‘한(恨)’의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로 재일조선인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중 ‘해방’이라는 말은 엉뚱한 연상 작용으로 20년 전 광복을 맞이하던 날 도쿄에서 만났던 어떤 여인과의 에피소드 회상으로 이어진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패전을 알리는 방송이 끝나고 주인공 ‘나’가 우에노행 전차를 탔을 때의 기억이다. ‘나’는 궁성 앞 일본 군인들의 집단 자살 광경을 직접 보고 싶어 가는 길이었다. 어떤 여

인이 내 앞 좌석에 앉아 일본의 패전 소식에 눈물을 흐느끼고 있다. 슬픔에 잠긴 전차 안 분위기는 ‘나’에게도 슬픔을 강요한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여인의 주술에 걸린 것처럼 ‘나’도 눈물을 흘렸다. 그 여인은 ‘나’의 눈물이 자신과 동질의 눈물이라고, 일본 사람으로 착각한 듯, 더욱 소리 내 울었다. 하지만 조선인으로 피지배 민족의 ‘나’의 원한은 그 여인의 울음소리가 어느덧 웃음소리로 인식된다.

김석범은 과거 기억 속 여인의 울음과 ‘나’의 눈물의 이질감은 곧 일본과 조선인 사이의 단절의 다른 표현으로 그리고 있다. 작중 조선옷 차림으로 일본 거리를 돌아다니신 어머니와 재일조선 여인들이 냉엄한 단절 위에서 평생 살아왔다는 표현에서도 일본 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조선적인 것을 지켜온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 일본과의 단절감은 곧, 조선적인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재일조선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작가의 조선적인 것을 지키려는 의지는 꿈의 세계에서 신기하게도 대사나 생각, 감정도 모두 ‘조선말’이라는 대목에서도 확인시키고 있다.

꿈에서 대사는 모두 조선말이었다. 생각도 감정을 전달하는 역할도 조선말로 구성된 꿈은, 꿈으로서 완벽했다. 이것은 내 일상생활에서 흔치 않은 일이다. 그리고 더욱 감명을 준 것은 꿈속에 나는 조선옷 차림이었다. 나는 원래 조선옷을 입어 본 적이 없다. 그런 내가 간신히 당도한 파고다 공원에서 하는 대중 토론장에 조선옷 두루마기를 바람에 나부끼며 참가하고 있었다. 나 자신의 모습에 가슴이 먹먹했다.⁸³⁾(「허몽담」 138쪽)

자신의 오장육부를 잃어버리고 맞지도 않는 ‘조선옷’을 입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고향 땅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의 감개(感慨)를 표현하고, 꿈속 언어는 ‘조선말’이었던 것에 강한 긍정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본에 동화되어간다는 ‘나’의 막연한 불안감은 또 다른 기억을 환기하면서 해소하려고 한다. 일본인 친구 F와 함께 갔던 술집에서 ‘나’는 식민지 조선에서 생활했던 일본인 연주자가 장구로 조선 민요를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다. ‘조선’은 그 연주자(소위 入植者の 아들)나 친구 F에게 과거의 감상과 마음이 설 수 있는 공간으로 인

83) 夢の全編を通しての台詞が全部朝鮮語だったのである。思考も感情の運び役も朝鮮語がその構成を受持った夢としては、それは完璧だった。これは私の日常生活で余りあることではない。それになお感銘を与えたのは、夢の中の私は朝鮮服だったことだ。私はそもそも朝鮮服を着たことがない。その私が、辿りついたパゴダ公園での大衆討論に朝鮮服の周衣(ツルマキ)の裾を風にひるがえしながら参加していたのだ。私は自分のその姿に胸を打たれたのだった。

식되고 있다. F에게 조선은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으로 느끼는데, ‘나’는 어린 시절을 보낸 ‘일본’을 고향으로 느낄 수 없다.

F 씨는 조선에 고향이 있다고 느끼고, 나는 일본에 고향이 있다고 느낄 수 없으니까 — 나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일본에 밀착할 수가 없다. F 씨는 조선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조선은 나의 혼(魂, 서울)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일본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이 굴절된 심정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 점에서는 F 씨가 나보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⁸⁴⁾(「허몽담」 150쪽)

재일조선인이 일본 사회로부터의 차별과 단절감을 가진 것과 상반되게 일본인 친구 F와 입식자의 아들은 식민지하에 있던 조선에서의 옛 시절을 그리워하며 서울을 추억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 국적을 가지고 서울을 고향으로 생각하는 F와 남북 어느 곳에도 귀속하지 못하고 일본에도 귀화하지 않은 무국적의 디아스포라 같은 ‘나’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있다.

‘나’는 일본인들이 옛 추억을 회상하며 조선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며 분개하여 그들에게 조선과의 단절을 강하게 요구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자신이 조선과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도 읽을 수 있다. 작가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지금도 살고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조선적인 언어와 문화가 상실되어 가는 것에 대한 변민을 하고 있다. 재일조선인은 세대가 지나면서 일본에의 동화작용은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고, 일본 사회에의 동화와 적응의 경계에 놓여있게 된 재일조선인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김석범은 허망한 꿈속의 재일조선인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재일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문제를 작품 안으로 끌어들이기도 한다. 그중 하나가 재일조선인이 외국인 등록증을 항상 휴대하고 제시에 응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이야기이다.

작중에 ‘나’는 병원 가는 길 버스 안에서 안주머니에 있는 외국인 등록증을 확인하고 안심한다. 지문까지 넣은 증명서를 항상 소지해야 하고 경찰의 요구하면 제시해야 한다. 실제 재일조선인이 일본 사회에 제재를 받으며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단절감

84) Fさんは朝鮮に故郷があると感じ、私は日本に故郷があると感じられないから—。私は私の中にいっぱいであるはずの日本にべったりできない。Fさんは朝鮮を愛するといい、朝鮮はわが魂(ソウル)と呼び、私は日本を愛すると確信をもっていえないこの屈折した心情はどう説明すればよいのか.....、その点ではね、Fさんは私より幸福といえる。

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주머니에 손끝에 잡힌 얇은 등록증의 한 페이지에는 나의 왼손 집게손가락 지문이 엄지발가락 크기로 검게 찍혀있다. 세상에 증명서는 많지만, 아마 지문이 부착될 정도로 공을 들인 것은 전대미문이 아닐까. 그러니 제일외국인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조선인이 그것을 개의 감찰이 아니라, 조선인 감찰이라고 부르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⁸⁵⁾(「허몽담」 139쪽)

재일한국·조선인에게 외국인 등록법은 일본 정부에서 외국인의 거주 및 신분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차별과 억압의 부정적 의미로 작용한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재일한국·조선인의 법적 지위를 지키기 위한 모임의 기록을 보면, 등록증명서의 휴대, 제시 의무는 모든 재일한국·조선인을 피의자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외국인에게는 등록 증명서가 되는 것을 휴대 제시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만, 이러한 제도는 주민등록법이나 호적법에는 찾아볼 수 없다. 외국인 등록법 특유의 제도이다. 외국인이 처음 등록 신청을 했을 때는 등록법 4조에서 등록 원표라는 것에 기재된다. 각 市町村장은 이 원표에 따라 등록 증명서를 만들고, 이것을 신청인에게 내준다. (법 5조) 외국인 증명서를 항상 소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14세 미만의 외국인은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 조 2항에는 “외국인은 입국 심사관, 입국 경비관, 경찰관, 해상보안관, 철도 공안 직원 그 이외 법무성령이 정한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직원이 그 직무의 집행에 있어서 등록 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할 경우는, 이것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정한다. 이것이 증명서 제시 의무라는 것이고, 상시 휴대 의무 또는 제시 의무에 위반한 자는 법 1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3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⁸⁶⁾

85) 内ポケットの指先に挟まれた薄手の登録証の中のページには、私の左手ひとさし指の指紋が足の親指大に黒ぐると拡がっている。世に証明書多しといえども、おそらく指紋付きという念入りのものは前代未聞ではないか。だから在日外国人の九割を占める朝鮮人が、それを犬の鑑札ならぬ朝鮮人鑑札と呼ぶのも故のないことではないのだ。

86) 在日朝鮮人の人権を守る会、『在日朝鮮人の法的地位—奪された基本的の実態—』, 1964, 77~78쪽. 登録証明書の携帯、呈示義務-全在日朝鮮人を被疑者扱い-外国人には「登録証明書」なるものを携帯、呈示する義務が課されているが、このような制度は住民登録法や戸籍法には見られない。外国人登録法特有の制度である。外国人が初めて登録申請をしたときは登録法四条で、登録原票というものに記載される。市町村長はこの原票に基づいて、登録証明書をつくり、これを申請人に交付する。(法5条)。外国人証明書を常に携帯し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十四才に満たない外国人は登録証明書を携帯していることを要しない。条二項はさらに「外国人は、入国審査官、入国警備官、警察官、海上保安官、鉄道公安職員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職員がその職務の執行に当り登録証明書の呈示を求めた場合には、これを呈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定める。これが証明書の呈示義務といわれるもので、この常時携帯義務又は呈示義務に違反した者には法一八条で一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禁錮または三万円以下の罰金が科せられることになる。

이승우 외 5명, 『재일동포의 법적지위 제한과 분쟁 해결』, 북코리아, 2006, 131쪽. 1955년 실시된 지문날인 제도는 몇 번의 개정을 거쳐 1980년 후반까지 일본에 1년 이상 체류하는 16세 이상 외국인이 대상이 되었다. 1993

김석범은 작중에 재일조선인의 생활에 밀접한 문제로 작용하는 외국인 등록법의 부당함을 끌어들이며 재일한국·조선인을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공평하게 관리한다는 미명 아래 일본 정부가 재일조선인의 기본적 권리와 민족적·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에 대해 비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작중에 허망한 꿈속의 “ ‘나’ ‘R’은 분명 ‘나’ ‘R’이었을까! 기묘하고 기분 나쁜 꿈이었다. 그야말로 확대하여 해석해보면 허망한 꿈인 것 같다.”(「허몽담」 155쪽)라는 독백의 의미는 오장육부가 텅 비고 겉모습,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 같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조의 의미가 담겨있다. 작가가 민족적인 것, 조선적인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의식하면서, 일본어를 가지고 민족의 이야기를 쓴다는 것에 두려움을 가졌던 당시 심경을 작품 안에 담아내고 있다.

3. 「밤」에서 귀환의 의미

「밤」에서는 1960년 12월 오사카를 무대로 이국땅, 일본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와 재일조선인의 삶을 배경으로 작가가 스스로 ‘귀향’·‘귀국’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 이 작품은 실제 김석범의 어머니가 1958년 72세의 나이로 일본에서 삶을 마감하였던 일과 1959년 12월 제1차 귀국선이 니가타(新潟)항 출발로 시작된 ‘북한으로의 귀국 운동’이 일어났던 재일조선인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작중에서 재일조선인들은 자신의 실제 고향은 남쪽 제주도이지만,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가는 것을 ‘귀국’, ‘돌아가다 帰る’라고 표현하고 있다.

‘귀국’은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재일조선인들에게 북한은 물론 ‘조국(fatherland)’의 일부이지만, 그들 대다수가 태어난 땅은 아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그들은 자신들에게 친숙한 조상의 도시와 마을로 ‘돌아가는 것(returning)’ 이 아니라 매우 낯선 사회를 향해 떠나가는 것이었다. 엄격히 말한다면, 가장 정확한 용어는 아마도 ‘이주(移住)’ 일 것이다. 그러나 이 대규모 사업에 참여한 조선인과 일본인들은 이 사업을 거의 언제나 ‘귀국 사업’으로 간주했고, 이 ‘귀국’이라는 용어는 당시 국제 적십자위원회와 같은 국제단체의 문서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⁸⁷⁾

년 영주자 및 특별 영주자에 대해서 지문날인을 폐지하고 사진, 서명 및 일정 가족 사항 등록(16세 이상)으로 대신한다. 1999년 법 개정에서는 비영주자에게 지문 날인을 폐지하고 1년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사진, 서명 및 가족관계를 등록하게 했다.

귀국이라는 말은 ‘자기 나라로의 회귀한다’는 의미를 가진 표현이다. 작품 「밤」에 등장하는 제주도 출신 재일조선인들이 원래의 장소로 회귀한다는 의미를 가진 ‘귀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조국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북으로의 이주를 ‘귀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재일조선인 사회에서의 ‘북송사업’은 처음 1959년 12월 14일 238세대 975명의 재일조선인을 태우고 소련선 크리리온호·토볼스크호가 귀국 제1선으로 니가타항을 출발하였다. 1967년 일본과 북한 적십자사의 귀환 협정이 깨지면서 8월에 귀환 신청이 마감되고, 12월 긴급조치에 의한 제155차 귀국선이 출항한 이후, 북으로의 항로가 폐쇄되었다. 귀국 사업은 우여곡절 끝에 1984년 187회까지 28,448세대 93,339명(日本赤十字本社外事部 조사)이 귀국했다.⁸⁸⁾ 재일조선인들에게 귀국이 실현된 것은 ‘인도주의의 위대한 승리’이며 ‘차별과 멸시로부터 진정한 해방의 길’, ‘지상 낙원’으로 가는 길로 여겼다.

북으로 가는 귀국사업은 해방 직후 귀국과 달리, 조총련이 계획적이고 집단으로 추진한 사업이었다. 북한행 ‘귀국’은 냉전 시기 자본주의 진영에서 공산주의 진영으로 갔던 대량 이주였다.⁸⁹⁾ 재일조선인들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조국으로 갈 수 있는 꿈이 실현된 것에 감격했다.

하지만, 냉전으로 이어진 역사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재일조선인들의 북한으로의 ‘귀국’은 일본 정부와 북한 정부, 소련과 미국 그리고 국제적십자위원회까지 얽혀서 진행된 사업으로 북송선을 탄 사람들의 안위에 대해서는 그 어디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당시 조총련 활동가로 귀국 사업 추진을 했던 장명수는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믿고 북으로 귀국한 사람 일부가 행방불명된 것 자체가 귀국자에 대한 약속을 저버린 것으로, 북한의 헌법 위반이며, 귀국자에 대한 책임⁹⁰⁾을 촉구하였다. 당시 재일조선인 사회의 분위기를 감지한 김석범은 자신의 소설에서 귀환의 의미를 생각하고 북으로 가는 것이 귀국인가, 진정한 고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밤」은 어머니와 난녀, 그리고 주변의 재일조선인 여인의 생과 사에 관한 이야기

87) 테사 모리스 스즈키 지음, 한철호 옮김, 『북한행 액서더스 - 그들은 왜 북송선을 타야만 했는가?』, 도서출판 책과 함께, 2007, 7쪽.

88) 張明秀, 「帰国運動とは何だったのか」, 『季刊民涛』 9号, 1989.12, 150쪽.

89) 테사 모리스 스즈키, 앞의 책, 33쪽.

90) 張明秀, 앞의 책, 170쪽.

이다. 작가 자신의 모습이 투영된 주인공 ‘나’를 통해 주변의 재일조선인 여인들의 삶을 꿰뚫어 보고 귀환에 대한 엇갈리는 견해를 설정하여 귀국의 의미를 스스로 묻고 있다. 작중에서 조선인 여인들이 북한으로 가는 배를 타는 것을 ‘귀국’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다. 자신이 태어난 곳이 비록 제주이지만, 일본 땅을 당당하게 떠나서 같은 민족이 사는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에게 ‘귀국’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재일조선인에게 그것은 하나의 상황의 창조와 다를 게 없다. 그것은 하나의 움직임이다. 가만히 갇혀 있던 자가, 거기에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일본에서 밖으로 나가든, 안 나가든, 비로소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된 것이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를 얻는 것이다. 설사 그것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해도 일본에서 출국하려면 할 수 있다는 것이 멋진 일이다. 그리고 이 씨 할머니는 얼어붙은 동해를 걸어서 건너는 것이 아니라, 배로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것이다.⁹¹⁾(「밤」 452쪽)

재일조선인은 일본 땅을 떠나 자신의 의지로 북으로 갈 수 있는 ‘자유’의 길이 열리고, 귀환의 장소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된다. 작중에 4·3의 학살 현장에서 일본으로 도망쳐온 난녀에게 귀환의 장소는 결코 고향 제주도가 아니다. 그녀는 언제까지 일본에 살 수 없다며 조국의 땅이라며 북한으로 이주의 의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난녀의 남편은 어머니가 계신 제주가 고향이고 귀국을 한다면 남쪽으로 간다고 대립각을 세운다. 난녀는 결국 완강한 남편의 기세에 눌리고 만다. 난녀의 기억 속 고향은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아픈 기억의 공간이다.

벌써 10여 년이 지났지만, 1948년 전후 외로운 섬 제주도에서 일어난 미국과 한국 정부군이 섬사람에게 가한 미증유 학살의 현장에서 도망쳐 온 그녀가 하는 말이 이해된다. 그녀는 살해당한 아버지와 가족과 친구가 머릿속에 자리 잡고 떠나지 않는다. 절름발이가 된 왼쪽 발로 서서 죽은 사람의 장례식에 그녀가 살아서 존재하고 있는 눈앞의 사실이 조금은 당혹스러울 뿐이다. 나는 그녀의 절름발이가 고향에서 경찰의 고문에 의한 것이고, 그나마 목숨을 부지하게 된 것을 알고 나서, 스스로 고향을 거부하는 그 마음을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고향에서는 무

91) われわれにとっての「帰国」とはいったい何だろう。在日朝鮮人にとってそれは一つの状況の創造に他ならない。それは一つの動きなのである。じっと閉じこめられていたものが、そこから動くということは素晴らしいことだ。日本から外へ出るか、出ないか、はじめて動きうる余地を持ったのであり、それはある意味においては自由でさえありうる。たとえそれはふたたび戻ることはできないにしても、日本から出国しようとするればできるということは素晴らしいことだ。そして李婆さんは凍りついた日本海を歩いて渡るのではなく、船で大っぴらに行けるのである。

수한 까마귀가 무수한 시체를 파먹은 채로 내팽개쳐져 있어도 그것은 그것이다. 이 초라한 장례식도 이것은 이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생활이라는 거다.⁹²⁾(「밤」 444쪽)

김석범은 작중에 4·3이 미국과 한국 정부의 ‘공권력’에 의한 학살임을 말하고 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실시되고, 같은 해 5월 31일에 개원한 제헌 의회는 7월 17일에 헌법을 제정하여, 1948년 8월 15일 헌법에 근거하여 정부의 수립을 선포함으로써 해방 후 3년간의 미군정이 종식되었고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였다. 고향을 떠나 재일조선인의 처지가 된 난녀의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 있는 고향의 이미지는 공권력에 의한 수난의 공간이다.

작중 재일조선인 부락의 환경은 지난날 고향에서의 아픈 상흔을 생활 속에서 늘 환기시키는 장소로 설정하고 있다. 동네 작은 공장 2층에 거주하는 난녀는 여름에도 창을 닫는다. 남풍을 타고 조금 떨어진 화장터에서 불어오는 냄새는 고향에 대한 기억으로 소생되기 때문이다.

매장 문화의 신앙적 세계에 익숙한 재일조선인 여인들은 이국땅 일본에서 한 줌 재가 되어버린 어머니의 주검을 슬퍼하며 고향 타령을 한다. 이를 지켜본 난녀는 “뭐가 고향이야. 우리에게서 이제 고향 같은 것은 없어, 시쳇더니 가득한 고향에도 아름다운 무지개는 뜨지만, 무지개는 사라지고 주검은 소생하지 않아 고향에 대한 환상은 없어,”(444쪽)라는 녀두리를 한다. 난녀의 기억 속에 10년 전 타는 냄새와 함께 사체에 휘발유를 끼얹고 태운 검은 연기가 멀리에서 보이던 풍경은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고향에 대한 기억으로 되새기게 한다.

주인공 ‘나’는 난녀의 아들 입에서 나온 ‘미체는 살인마’(457쪽)라는 적개심의 표현을 듣고, 난녀의 복수심과 한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교육된 것인지, 상처가 대물림하는 것에 깊은 우려의 심경을 드러낸다. 그리고 고향에서 경찰에게 고문당하고 절름발이가 된 난녀의 뒷모습을 보며, 고향의 산과 바다, 아름다운 정경에 그리움

92) もう十余年たったのだが、一九四八年を前後して孤島の濟州島で起ったアメリカと韓国政府軍による島民に対する未曾有の虐殺の中から逃れてきた彼女のというのが分る。殺された父や家族や友のことなどが巢食って離れないその頭の中が、そして跛の左足が、死者が葬式という儀式の中に存在している目前の事実にいささか当惑しているかも知れない。私は彼女の跛がふるさとの警察での拷問のそれでも命拾いをした結果だということを知ったときから、自らのふるさとを拒否するその姿勢が分るような気がしたのだった。しかしそれでもだ、それでも、ふるさとでは無数の鴉が無数の屍体をついばむままにまかせられたとしても、それはそれ、この安上りの葬式もこれはこれといわざるをえないだろう。それが生活というものだ。

은 간직하고 있지만, 조국이 통일되어도 돌아가지 않을 곳, 고향이 없다는 확고함을 가진 채 난녀가 재일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된다. 작가는 고향의 이미지를 공권력에 의한 수난의 절망과 한(恨)의 공간으로 규정하고 귀환을 부정하는 이유를 난녀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재일조선인 사회에서 나름 경제력을 가지고 있던 이 씨 할머니에게 북한행 귀국선을 타는 것은 고향은 잃어버렸지만, 고향을 대신하는 꿈의 공간으로 가는 의미이다. 할머니가 북한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고도 성장기에 접어들던 일본 생활을 접을 만큼 손자들의 미래의 꿈을 펼칠 환상의 공간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식당 이 씨 할머니가 머지않아 입항하는 올해 마지막 귀국선으로 귀국하게 돼서 인사하러 가는 것이다. 일본에서의 자녀 교육이 걱정이라는 아들의 부탁을 받아들여 손자들을 데리고 한발 앞서 귀국하게 되었다. 현해탄이 얼어붙기만 하면 걸어서라도 고향에 돌아갈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이 씨 할머니는, 드디어 동해를 건너게 된 것이다.⁹³⁾(「밤」 451~452쪽)

이 씨 할머니 이야기를 통해 북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떠나는 재일조선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실제 1970년대까지만 해도 조선학교의 교과 내용은 ‘귀국’을 전제로 한 교육이었다. 1960~70년대 귀국(북송) 사업을 위해서라도 우리말 교육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1970년대 말, 80년대 초 이후 교육 방향이 ‘귀국’에서 ‘정주’ ‘공생’⁹⁴⁾으로 바뀌면서 재일조선인들에게 귀국의 꿈은 희미해지게 되었다.

「밤」에서는 북으로 떠난 사람들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작품에서 더는 이어지지 않고 북송선을 타게 된 경위에 대해서만 그리고 있다. 작가는 ‘귀국’ 문제에 관해서 이후의 다른 작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조직 활동가들이 ‘귀국’한다는 것은 질병이라든가 다른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조직’ 내의 비판분자가 ‘조직’적 조치로서 ‘귀국’을 종용받았다. 조직이라고는 하지만 중앙의 최고지도부를 좌지우지하는 권력그룹에 의해, ‘귀국’이라는 형태로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가 배제되어 온 것이다.⁹⁵⁾ (「도상」 9쪽)

93) 食堂(シクタン)의李婆さんがまもなく入港する今年最後の帰国船で帰国することになっていて、その挨拶に行くのである。日本での子供の教育のことが心配だという息子の願いを入れて、孫たちを連れて一足先に帰国することになったのだった。玄海灘が凍りついてくれさえすれば、歩いてでもふるさとに帰ると口癖にっていた李婆さんは、ついに日本海を渡るようになったのだ。

94) 신명직, 『재일코리아 3색의 경계를 넘어』, 고즈윈, 2007, 25쪽.

「도상」에서는 ‘귀국’은 곧 조직적 조치로 북으로의 ‘송환’의 이미지로 그리고 있다. 그리고 「작열하는 어둠」에서는 조직원 양철승과 정세효를 포함한 몇몇 과학자들이 북송선을 탄 이후 행방불명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얼마 안 있어 S 시에 근거를 둔 지하조직이 일정한 역할을 완수하여 조직을 해체하고, 양철승은 북으로 귀국했다. 남녘 제주도를 고향으로 둔 자가 「북」으로 ‘귀국’ 한 것이다.⁹⁶⁾(「작열하는 어둠」 471쪽)

김석범은 북으로의 이주를 ‘귀국’에서 송환으로 북한행을 행방불명의 불투명한 삶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일조선인에게 귀국 실현의 부정적 조국 상실자가 망향의 한을 가지고 재일의 삶을 살아가게 된 이유이다. 주인공이 망향의 한을 품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을 찾는 행위는 곧 ‘나’에게 잃어버린 것, 자신에게 없는 것에 대한 회한과 그리움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소각장 속으로 쫓겨 들어간 나를 포함한 재일조선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선택할 자유가 없었던 자의 과거의 모습이다. 나는 지금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잃어버린 인간인지 모르지만, 이 ‘조선인’의 이미지 앞에는 통곡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동시에 어머니의 모습이기 때문이다.⁹⁷⁾(「밤」 441쪽)

작중 ‘나’는 무의식중에 어머니가 계셨던 병원으로 발길이 옮겨간 자신의 모습에서 어머니와 고국을 하나로 생각하며 통한의 눈물을 흘리는 자신을 발견한다. ‘나’는 1년 전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냉정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인간이기에 자신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작가는 ‘나’를 통해 고향을 떠나 억척스럽게 살다 결국 이국땅에서 생을 마감한 어머니의 허망한 삶을 회상하며 제대로 고향 땅에 묻히길 바라는 재일조선인의 민족적인 정서를 끌어내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95) 組織の活動家たちの「帰国」には病気とかその他のケースもあるのだったが、しかしじっさいは「組織」内の批判分子が「組織」的措置として「帰国」をさせられていた。組織といってもそれは中央の最高指導部を牛耳る権力グループというべきだが、「帰国」という形で彼らの気に入らぬものが排除されてきたのだった。

96) やがてS市に根拠を置いた地下組織が一定の役割を果し、組織を解消して、梁哲承は北の共和国へ帰国した。南の地の濟州島をふるさとに持つ者が、「北」へ"帰国"するのである。

97) それは焼き場の中へ追いこまれて行った、在日朝鮮人の私をも含めての姿といえる。えらぶ自由のなかったもののかつての姿である。私はいま母の死に際しても涙を失った人間かも知れぬが、この「朝鮮人」のイメージのまえには慟哭するかも知れぬだろう。それは同時に母の姿でもあるからだ。

‘난녀의 말처럼 고향에 있는 인간이 모두 변해버렸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피의 색으로 변한 사막 같은 고향을 영원히 버리려는 난녀 역시 변해있고, 변한 사람의 한 사람일 것이다’(「밤」 449쪽)라는 작중 ‘나’의 독백은 외부적 상황에 인간은 변하지만, 고국은 마음속에 어머니의 모습처럼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어머니는 곧 귀환의 안식처로 귀결하고 있다.

4. 꿈·냄새·취기·의식의 흐름에 나타난 심상풍경

김석범의 소설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이야기를 진행하지 않고 제일조선인 주인공 ‘나’의 의식의 흐름을 타고 내적 독백 형태를 하고 있다. 즉, 자꾸만 주인공의 주관적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구조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의식의 흐름에 따라 불쑥불쑥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그 인물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이어지고 있다. 한참을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떠돌다 결국 본래의 출발점인 현실로 돌아와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또, 작중에 현실 세계의 억압된 감정과 생각을 풀어내는 방법으로 꿈을 통한 전개가 두드러진다. 작가의 꿈을 통한 무의식의 비현실성은 객관적 묘사보다 철저하게 의식의 내면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내면의 흐름을 묘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짧은 단편의 이야기 안에 사건 자체의 흥미보다는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나 배경을 중심으로 소설을 엮어나감으로써 묘사 자체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하는 특이점을 갖고 있다.

나의 경우, 꿈을 그럴 때는 무의식에서 가져옵니다. 거기에는 망상도 있습니다만, 언뜻 비사회적, 비현실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현실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의식 세계를 표현한다면 그 토대는 무의식에 있습니다.

예술가 중에서 소설가는 음악가나 화가와 달리, 개념을 의식해서 직접 언어로 표현합니다. 소설의 반은 무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무의식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다만, 무의식 층이 깊으면 깊을수록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끌어내는 방법이 훌륭해야 하겠지만요. 무의식은 겉으로 나오지 않는 것으로 현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문자로 표현하면 현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현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98)

작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를 소설로 표현하게 되면 현실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방법론에서 꿈을 통해 꿈속 이야기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꿈을 깨고 나서 꿈을 기억하는 구조이다. 이것은 무의식 층에 있는 것을 의식적으로 끌어내는 것이 김석범의 독특한 작법이다.

1) 염몽(厭夢)과 환상, 무의식 속에서의 현실 재현

7년간의 공백을 두고 1969년 「허몽담」을 발표할 즈음, 작가는 언어 선택에 대한 고민과 조선적인 것을 써야 한다는 강박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니시 마사히코(西成彦)에 의하면, ‘오사카에서 태어난 그에게 ‘母語’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제주도 태생인 ‘어머니의 언어’ 즉, 제주도의 언어가 그것이었다. 그러나 그에게 ‘國語’, ‘養父의 언어’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본어의 영향은, 특히 그가 작가로서 도무지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었다.’99) 작중에서는 이러한 이중 언어 생활자인 작가가 주인공을 통해 언어 사용에 대한 고민을 불길한 염몽(厭夢) 형태로 그려내고 있다.

허망한 꿈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창자와 함께 심장마저 도려내는 것 같은 그 꿈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적어도 조선말로 구성되어 있던 그것만은 허물고 싶지 않았다. 나는 눈이 내리는 밤의 찬 공기 속에서 혼자 얼굴을 붉히며 쓴웃음을 짓고 있는 나의 일그러진 얼굴을 어딘가의 거울 속에서 보았었다.100)(「허몽담」 155쪽)

98) 金石範, 『《火山島》小説世界を語る!』, 右文書院, 2010. 226~227쪽. 私のばあい、〈夢〉とかを描くとき、〈無意識〉として捉えるんですよ。そこには妄想もありますが、一見非社会的・非現実的なもの、目に見えないものだからといって、現実じゃないということはないんです。意識世界でそれを表現するなら私の考え方としては、その土台は〈無意識〉にあるんですよ。

あらゆる芸術家のなかでも小説家は、音楽家や絵描きとかと違って概念を意識して直接言語を取り扱います。小説の操作というのは、パーセンテージは解りませんが、半分は〈無意識〉だと思います。計算から出てくるようなものではないんです。その〈無意識〉とはなにかという問題はもちろんありますよ。ただ〈無意識〉の層が深ければ深いほど、いい作品ができるんですよ。もちろん引き出し方がじょうずでなければだめだけれどもね。〈無意識〉は意識のうえにあがらないですし、おもてに出ないから現実じゃないとも言えます。でもこれを文字として表現すれば、現実的な役割を果たすわけです。だから目に見えないからといって、それが現実ではないということは言えないわけです。

99) 西成彦, 「小説の一言語使用問題-中西伊之助から金石範まで-」, 『植民地文学とその言語』 25卷 2号, 立命館言語文化研究, 2002, 114쪽. 大阪の生まれたが、彼にとって「母語」と呼べるものがあつたとしたら、言うまでもなく、濟州島生れの「母親の言葉」(=濟州島の言語)がそれであつた。しかし、彼にとっての「國語」、それこそ「養父の言語」とでも呼ぶよりほかない日本語の影響は、とりわけ彼が作家であろうとしたとき、とても払いのけられるものではなかつた。

100) 虚妄な夢だと思ったが、いやそのように思い、そのはらわたといっしょに心をえぐり取る思いのその夢を否定したかったが、少なくとも朝鮮語で構成されていたそのことだけは崩したくなかつた。私は、雪の降る夜気の中でひとり赤面しながら苦笑している自分のその歪んだ顔を、どこか鏡の中に見るのだった。

주인공 ‘나’는 내면에서 꿈의 기억을 소생시키고는 다시 들여다보고, 꿈속의 ‘나’는 분명 ‘나’였을까, 기묘하고 불쾌한 꿈의 분위기에 마음의 공허와 허망함을 느낀다. 이러한 심리는 꿈에서 현실로 돌아와서는 꿈속에서 언어는 모두 조선어였다고 불합리할 정도로 꿈에 무슨 말을 사용했었는지 구애받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다. 니시는 ‘김석범은 작중 꿈속 이야기에서 등장인물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분명하게 말을 하지 않는데, 어차피 ‘꿈’은 그런 것이고, 꿈에서 깨어난 후에 알게 되는 꿈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재해석으로써만 꿈의 기억이란 존재하기 때문¹⁰¹⁾이라고 했다.

조총련에서 활동할 때는 한글로 글을 썼지만, 조직을 나온 시점에서 일본어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작가 자신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재일조선인 문학인으로서의 언어에 대한 고민을 꿈의 이야기로 표현한 것이다.

나는 미타문학(三田文学, 1970년 3월호) 좌담회에서 「허구와 현실에 대해서」(우나미 아키라(宇波彰), 가라타니 고우진(柄谷行人), 고토 메이세이(後藤明生), 이회성(李恢成))을 읽을 기회가 있었다. 그중 고토 씨가 픽션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일본어 픽션인 이상 쓰는 사람의 국적 등은 문제가 아니고, 조선인인 것을 잊어야 한다. 적어도 도외시해야 한다는 식으로 언급한 대목이 있었다. 물론 픽션은 상상력에 의해 자립한 세계이고, 그 나름의 보편성과 연결되는 것이므로 무슨 언어로 쓰든 간에 거기에 작가 주체의 국적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확실하다. 허구의 메커니즘에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나는 도무지 이 말이 마음에 걸려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¹⁰²⁾

피지배자의 상흔을 가진 작가에게 일본어는 단순한 이국어가 아니다. 김석범은 모국어를 잃어버리고 내부에 ‘조선어’라는 정신적 지주를 가지지 못하면 일본어가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꿈속 이야기에서 재현하고 있다.

101) 西成彦, 앞의 글, 122쪽. 金石範は作中に描かれる夢のなかで、登場人物が何話を話すかまで明示的に語ろうとはしないが、それは「夢」がしょせんそういうものであって、それこそ覚醒後になされる、その意味内容の再解析としてしか夢の記憶など存在しないものだからなのだ。

102) 金石範, 「私にとってのことは」, 『新編「在日」の思想』, 講談社, 2001, 130쪽. 私は『三田文學』(一九七〇年三月号)の座談会で「虚構と現実について」(宇波彰、柄谷行人、後藤明生、李恢成)を読む機会にめぐまれた。そのなかに、後藤明生氏がフィクションの問題とからませながら、日本語によるフィクションである以上は書く人間の国籍などは問題ではなく、朝鮮人であることを忘れるべきであり、少なくとも度外視すべきだというようなことをのべているくじりがあった。もちろんフィクションは想像力による自立した世界であって、それなりに普遍につながるものであるから、何語で書かれていようともそこに作家主体の国籍などは問題になりえない部分があるのはたしかだ。虚構のメカニズムにはそのような側面があるのを認めながらも、私はしかしどうもこのことがひっかかってならなかった。

작가는 「허몽담」에서 꿈과 환상의 장치를 가지고 20년 만에 찾아간 고향은 낯설고, 조선의 옷은 어딘가 맞지 않아 어색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무의식의 비현실 세계 속에 나타난 고향은 너무나 낯설었다. 현실에서 마음대로 갈 수 없는 망향자의 심정이다. 더구나 조선인의 오장육부는 잃어버린 채 끝없는 광야에서 홀로 잃어버린 창자를 찾아 헤매는 모습이다. 지금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일본적인 것에 동화되지 않도록 자신 안의 조선적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자기반성의 심경을 「허몽담」에 담아내고 있다.

「작열하는 어둠」에서도 꿈에서 깨어난 후 주인공이 꿈속 기억을 더듬어 풀어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말하자면, 작가의 꿈의 세계는 주인공이 꿈을 꾸는 구조가 아니라, 꿈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들여다보는 구조이다. 작품 속 꿈의 세계는 악몽(惡夢)이며 사실과 일치하는 정몽(正夢)이다.

요즘 들어 자주 어떤 광경이 머릿속에서 멀리 스쳐 지나가는 새의 그림자처럼 번지고, 황량한 나무 하나 없는 철광산이 몇 십 년의 시간을 거슬러 지금 눈앞에 펼쳐진다.

여름의 태양이 타오르는 인적 없는 철광산에서 한 청년이 손에 들고 있던 다이내마이트 폭발에 날아가 버린 한순간이 작열하고, 새의 그림자가 하늘을 날아간다.¹⁰³⁾(「작열하는 어둠」 425쪽)

정세운이 죽은 사실을 마치 주인공 ‘나’가 겪은 것처럼 꿈의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 주인공 ‘나’는 직접 자살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지만, 꿈속에서 새의 그림자 형상으로 불꽃을 일며 폭발한 광경이 환영이 되어 자신을 붙잡고 있다. 친구 정세운이 자살하기 전 만나자는 부탁을 거절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채감에서 정몽(正夢)의 형태로 되살아나고 있다.

2) 냄새에 의한 연상 작용

「밤」에서 주인공 ‘나’(임 씨)는 1년간 거의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꿈에서조차 어머니를 잊고 있었다. ‘나’에게 비 오는 날과 타는 냄새의 기억은 돌아가신 어머니, 그리

103) 近頃よく、ある光景が腦裡を遠くかすめる鳥の影のようにひらめき、荒涼とした樹木のない鉄鉱山が何十年の時間をいまに引き寄せて、眼のまえにひろがる。

夏の太陽に灼ける無人の鉄鉱山で、一人の青年がその手にしたダイナマイトの爆発に吹き飛ばされる一瞬が炸裂し、鳥の影が空を飛んでいく。

고 고향을 연상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재일조선인 마을에서 나는 생선구이 냄새와 마을 근처 화장터의 연기가 바람을 타고 오고 그 냄새가 어우러져 어머니의 장례식 날을 회상한다. ‘나’는 장례식 날 어머니가 화장터에서 연기가 될 때의 냄새와 닮았다고 생각하고, 집 근처 꼬치집에서 나는 생선 냄새에 그다지 위화감이 없다.

나는 그 냄새가 나는, 그리고 포럼 사이로 파란 연기를 뿜어내는 쪽으로 눈을 돌리고, ‘아아, 이 냄새다. 어머니도 이런 냄새가 났었지’라고 생각하며 거리의 인파를 가로질러 그쪽으로 갔다. 아니, 건너기 전에 한발 내디딘 채, 그대로 주저했다.¹⁰⁴⁾(「밤」 445쪽)

‘나’에게 냄새의 기억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다면, 난녀에게 냄새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향의 냄새이다. 재일조선인들이 밀집한 지역에 사는 난녀는 주변 가게에서 저녁 무렵이면 매일같이 생선 굽는 냄새가 난다. 그녀는 언젠가부터 창문을 열지 않는다. 근처 화장터 굴뚝에서 나는 냄새와 뒤섞여 고향에 대한 기억으로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난녀에게 타는 냄새는 10년 전인 23살 무렵, 고향에서 시체 더미를 태운 연기와 섞여 나던 냄새의 기억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그녀에게는 참혹한 고국, 해방되어도 돌아갈 생각이 없는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슬픈 냄새이다.

화장터와의 거리는 최소 3, 4백 미터이지만, 냄새는 부드러운 남풍을 타고 남쪽을 향한 그 창 언저리에 희미하게 떠돈다. 그러나 그 냄새가 화장터에서 나는 냄새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는 이미 그 냄새에 익숙해져 있어서인지, 아니 그날그날 삶의 무게 탓일 것이다. 두 아이의 어머니인 그녀는 놀라는 모습도 없었다. 그리고 다만, 이제는 그 냄새와 함께 고향을 생각해 내게 되었다고 한다.¹⁰⁵⁾(「밤」 447쪽)

냄새에 대한 기억의 차는 선명하다. 나에게 어머니 장례식 날 화장터에서 나던 냄

104) 私はそのにおいのする、そしてのれんのあいだから青い煙を吸きだしている方へ眼を走らせながら、ああ、このにおいなんだ。母だってこれみたいなにおいになったんだ、と思いながら通りの人波を横切ってそちらへ渡った。いや、渡るまえにほんとうは一步踏み出したまま、躊躇したのだ。

105) 火葬場との距離は少なくとも三、四百メートルはあるのだが、においはやわらかい南風に乗って南向きのその窓からかすかに漂いこんできたのである。しかしそれがそうだと分かったとき、そのときはすでにそのにおいにもう馴染んでしまっていたせいか、いやその日々の引きずる生活の重さのせいだろう、二児の母親の彼女はおどろく様子もなかった。そしてただ、ああ、これからはそのにおいといっしょに、ふるさとを思い出すようになるといったという。

새가 어머니를 부르는 기억이라면, 난녀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향의 냄새이다. 두 사람은 각각 냄새를 매개체로 고향과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떠올린다. 오은영 주인공에게 있어서 냄새는 ‘조선’을 연상시키는 것으로서 또 ‘조선’으로 인도하는 충동의 원천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난녀가 조국을 등져 제일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¹⁰⁶)라고 했다.

작가가 고향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냄새와 결부시키는 수법은 「만덕유령기담」과 「화산도」에서도 나온다. 「밤」에서는 타는 냄새를 매개로 어머니를 회상하였다면, 「만덕유령기담」의 주인공 만덕은 서울 보살의 머리빗에서 나던 동백기름 냄새로 희미한 어머니의 기억으로 재생한다. 「화산도」에서는 ‘부엌 쪽에서 한약을 달이는 냄새가 안뜰을 건너, 신기했다. 뭔가 아득한 기억 저편 그리운 무엇처럼, 덧문 틈새에서 일 것이다. 토벽 냄새나는 헛간으로 스며들듯이 냄새가 풍겨 왔다. 남승지는 냄새의 한 조각을 손으로 건져 올리듯 팔을 움직여 보았다. 아아, 오사카의 어머니가 생각난다…… 오사카, 이카이노 거리에 떠돌던 탕약 냄새’¹⁰⁷)로 작가는 냄새와 어머니와의 기억을 연결하는 문학적 예술성을 가지고 자신의 심상 풍경을 그리고 있다.

3) 취기에 의한 환영

「왕생이문」의 시작과 마무리 부분은 ‘나’(공상오)의 시점에서 황태수의 죽음과 얽힌 사연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전체 이야기의 흐름 중 대부분은 3인칭 관찰자적 입장에서 황태수의 심리와 그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이다. 시점이 전환되는 분기점에서는 술에 취한 ‘나’가 취기 속에서 황태수의 환영을 떠올리며 이야기 전개 시점에 변화를 주고 있다.

취기가 전신에 천천히 돌아, 역시 나는 죽은 황태수를 생각했다. 물속에서 떠오르듯 흔들흔들 술기운에 휩싸여 황태수가 수면을 걸어서 다가온다…… 모두, 자네의 형도 모두 속물이야. 그래도 자네의 형은 그런대로 순수하지, 속물이 뭔지 아나? 땅을 기는 날개 없는 벌레지. 자네는 다르지. 자네는 날개를 가지고 있어. 아름다운 부드러운 날개를……. 그러겠지, 아니 그랬을 거야 그렇다고

106) 吳恩英, 「金石範文学におけるにおい」, 『日本文化學報』第56輯, 2013, 252쪽.

107) 厨房のほうから漢方を煎じるにおいが中庭を渡って、不思議だ、何か遠い記憶に乗った懐かしいもののように、板扉の間からだろう、土壁臭い納屋へ沁みるようににおって来た。南承之はにおいの一切れを手で掬うように腕を動かしてみた。ああ、大阪の母を思い出す……。大阪、猪飼野の町の路地に漂う煎じ葉のにおい。(『火山島』VII, 第24章 100쪽)

하면, 지금 그 날개를 나는 가지고 있을까?¹⁰⁸⁾(「왕생이문」 96쪽)

주인공 ‘나’는 동경 길거리에서 객사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흔적을 찾아 나섰지만, 그 어디에도 황태수와 관련된 것은 찾을 수 없었다. ‘나’는 황태수가 조직에 있는 자들이 혁명가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형 공상구 말고는 다 위선이고 속물이라고 했던 말을 떠올리는 것으로 황태수의 조직원에 대한 불만의 심경을 대신하여 이야기한다.

작중에서는 죽은 자의 실체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취기를 통해 심층의 심리에서 원격 조작처럼 황태수의 환영을 보게 한다. 작가의 ‘취기’에 의한 환영의 소환은 황태수의 심리 표현에서도 나타난다.

술은 확실히 황태수의 불면에 도움이 되고, 정신에 어떤 안정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도가 지나치면 다음은 안정이 무너진다. 신기하게도 금주하는 사이는 거의 괴로워하지 않고, 잊고 있던 것이, 취기의 마력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깊은 땅속으로부터 망령처럼 변해서 황태수를 괴롭혔다. 깊은 취기 끝자락은 유년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의 과거 전체가 벌집같이 울퉁불퉁한 구멍으로 이어져 있다.¹⁰⁹⁾(「왕생이문」 142쪽)

이처럼 작가는 황태수의 위장 전향의 경위와 출옥 후의 조직과의 마찰, 알코올 중독으로 삶을 버리게 된 사연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나’와 황태수의 술기운을 이용하여 과거로의 회귀와 환영을 끌어내고 있다.

술기운이 깊어지는 것은 일상을 초월한 세계로의 몰입이다. 술기운은 두개골 주변에 퍼져 몸과 외부 세계의 경계를 허물고, 방에 가라앉은 침묵의 밤기운에 녹아든다. 나 개인을 뛰어넘어 밤의 속으로 펼쳐지는 지극히 행복한 순간이다. 술기운의 큰 바다에 흔들리는 육체와 혼.¹¹⁰⁾

108) 酒氣が全身にたゆとうように廻ってくると、やっぱり私は死んだ黄太寿のことを思った。水中から浮び上がるようにゆらりゆらりと酔いに包まれて現われた黄太寿が、水面を歩きながら迫ってくる。……みんな、きみの兄貴も、みんな俗物なんだ。それでもきみの兄貴はましざ、純粋なんだ。俗物とは何か分かるか、地を這う羽のない虫なのだ。きみは違う。きみは羽を持っている、美しい、やわらかい羽を……。そうだろうか。いや、そうだっただろうか。そうだったとしたら、いまその羽をおれは持っているだろうか。

109) 酒はたしかに黄太寿の不眠を救い、その精神にある安定をもたらしたのは事実だ。しかし度が過ぎればこんどは安定そのものが崩される。不思議なもので禁酒のあいだはほとんど苦にならなかったり、忘れていたことが、酔いの魔力に生命を吹き込まれて深い地底から亡霊みたいに形を変えて浮上し黄太寿を苦しめる。深い酔いの底の地底は幼年時代にまで遡る彼の過去全体の蜂の巣みたいにでこぼこの穴に通じていた。

110) 金石範, 「酒について」, 『新編「在日」の思想』, 講談社, 2001, 290쪽. 深まる酔いのひろがり日常を越えた世界へ没入である。酔いは頭蓋の囲いを押しひろげて軀と外界との境界を取り払い、部屋に沁みた沈黙の夜気に溶けこんでいく。個が自分を越えて夜のなかにひろがる至福の瞬間である。酔いの大海にたゆたう肉体と魂。

작중 황태수의 경우 음주는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동시에 자신을 해방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석범은 「나의 술의 공덕」이라는 에세이¹¹¹⁾를 발표할 정도로 자신의 작품에서 ‘취기’를 자주 다루기도 하고, 술이 주는 해방감을 통해 현실을 회피하려는 등장인물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왕생이문」은 ‘나’(공상오)가 조출한 황태수의 장례식을 마치고, 황태수의 거취를 황명수(황태수의 사촌)와 토구네 할머니(황태수가 자주 찾던 식당 주인)로부터 알코올 중독자가 된 황태수의 근황을 들었던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황태수와 만나지 못했던 시간의 행적을 이야기하는 데는 술과 취기가 주요한 장치가 되고 있다.

해방 전후의 정치적 굴곡의 삶을 살아온 재일조선인 황태수가 사회 부적응자가 되어 술에 의지하고 결국 알코올 중독자로 일본 거리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것처럼, 작가는 「화산도」에서도 이방근이 ‘취기로 양쪽 관자놀이의 혈관이 핏대를 세우고 실룩실룩 춤추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뇌가 없다. 있는 것은 알코올 냄새뿐인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¹¹²⁾라는 표현으로 술기운은 일상에서 벗어나 망각의 세계로 이끄는 수단이며 우울한 감정 표현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4) 의식의 흐름

「도상」은 주인공 마달부가 전날 재일조선인 조직의 옛 동료 공춘삼의 전화를 받고 오후 3시 동경 역 근처 찻집으로 그를 만나러 가는 아주 짧은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작가는 반나절 정도의 여정 속에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을 타고 나오는 에피소드를 꼬집어내며 이야기를 확장하고 있다. 관찰자 시점과 1인칭 주인공 시점이 공존하고 있고 내용이 분절되고 있어 독자가 작품을 이해하는 데는 마치 퍼즐을 맞추는 기분이 들 수 있다.

마달부는 전차를 타러 가는 도중에 죽은 동물 사체에서 튀어나온 두 개의 다리를 본다. 이 때문인지 전철 안에서 잘린 두 개의 손가락이 바지를 입고 춤을 추는 기묘한 꿈을 꾸다. 꿈의 여파는 굵은 손가락을 뚝뚝 소리 내며 거만하게 말하던 하봉길과 만난 기억으로 이어진다. 하봉길은 조직에 관한 글을 쓰는 마달부를 비난했던 인물이

111) 金石範, 앞의 책, 287쪽. 「わが「酒徳」なるもの」, 『酒』1月号, 1976.

112) 酔気に両こめかみの血管が筋を立ててびくびく躍っていた。頭のなかには脳がない。あるのはアルコールのにおいだけか。何も無い空っぽの状態。(『火山島』VII, 第21章, 199쪽)

다. 작가는 마달부가 박정희 정권의 수하 기관인 조선통일신보의 이영근과 비교하는 말에 기분이 상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으로 마달부가 한국 쪽과도 거리감을 두는 인물로 설정하고 있다.

연쇄적 기억의 장치는 전차에서 공춘삼의 상사이자 조직의 간부 김유옥과 만남으로 이어진다. 조직을 이탈한 자신을 회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던 기억은 같은 동네에 사는 조직 활동가 일명 철학 선생을 만났을 때도 느꼈던 감정이다. 작가는 기억이 연속성을 타고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사이, 어느덧 공춘삼과 약속 장소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연결한다.

작가는 자유연상 기법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맞물리게 하며, ‘나(私)’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내면의 질서를 찾기 위해 꿈과 의식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이야기를 생성하며 연속성을 보인다. 즉, 작품 세계는 옛날의 현실이 지금이 되어 꿈속에서 재현해 보이는 구조를 만들고 의식을 따라 기억을 끄집어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며 자신의 심상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5. 갈등 해결 서사

김석범은 재일문예잡지 『계간민도』에서 남쪽 제주도 출신이지만, 사상적으로나 심정적으로 북쪽으로 치우쳤던 사람이고, 조총련에서 일을 해왔고, 원래 태생이 사회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살아왔다¹¹³⁾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김석범은 북한의 사회주의 사상과 체제를 옹호한 것은 아니다. 김석범은 ‘주체사상(主體思想)과 민주주의(民主主義)’에 관한 생각에서 북한의 김일성을 선두로 하는 개인숭배와 친자 세습 제도를 비판한다.

절대 권력이 계승되는 시스템 자체가 관료주의이다. 거기에 민주주의라는 것은 위로부터 주어 진 민주주의다. 북에 민주주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북에서 민주주의를 펼친다면 그것은 김일성 주석이 주는 것이다. 이런 민주주의가 어디에 있는가.¹¹⁴⁾

113) 出席者：金石範·金時鐘·金潤·竹田青嗣·李恢成。「90年代の世界と在日を考える」座談會②. 『季刊民濤』第1期 終刊号, 1990.10, 266쪽.

114) 『季刊民濤』, 앞의 책, 280쪽. 「絶対權力が継承されていく、そのシステム自体が官僚主義になっている。そこで民主主義というのは、上から与えられた民主主義。北に民主主義があるのかどうかは知らないけれど、これから北で民

김석범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적 이론을 기본으로 민족 문학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조총련 조직이 요구하는 교조적 문학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자유로운 창작의 장이 필요했다. 김석범을 비롯한 많은 재일조선인 작가는 좌익 문학 조직 활동 참여로 출발하였지만, 차츰 개인의 선택과 결단에 의한 사상의 변화 즉, 전향적인 태도가 생겨나면서 언어와 의식에 있어서 새로운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전향의 일반적 개념을 ①공산주의자를 믿던 자가 공산주의를 포기함을 뜻하는 것(이를테면 소괄호), ②진보적 합리주의 사상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중괄호), ③좌우 어느 쪽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사상적 회심(回心) 현상(대괄호)¹¹⁵⁾으로 나누어 생각할 때, 작가의 경우, 전향이라는 의미를 반민족적인 행위로 해석하기보다는 사고의 전환, 개심의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김석범은 ‘전향’에 대해, 제국주의의 천황제 권력에 대한 독립 투쟁을 절대적인 가치 기준으로 사회주의 운동과 결합한 민족 독립투쟁의 과정에서 ‘친일’, ‘민족반역’ 행위를 전향이라 정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사회주의자나 민족주의자를 막론하고 일제하의 친일의 민족 반역 행위를 전향¹¹⁶⁾으로 생각하고 있다. 즉, 김석범이 말하는 전향은 단순한 사상의 변화, 이행의 개인의 자의적인 사고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 국가권력과의 투쟁, 그리고 민족적 절조, 자신의 이익, 출세 등을 위해 민족을 파는 행위 등 강한 윤리성이 담겨있다.

김석범이 전향과 친일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정작 작가는 1970년대 이후 작품에서 조직의 이념으로부터 개심(改心)현상이라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재일조선인 조직 활동을 하고, 조총련 조직이 결국 북한의 지시와 이념에 의해 움직이고 최고부의 원칙이 고정화되어 버린 상황을 인지하여 조직 활동을 접게 되면서 나타난 태도이다. 조직을 통한 운동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정치 활동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문학 활동은 다른 형태의 정치 활동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석범의 문학에서 보이는 전향적 성격은 사상 전향을 ‘과정’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때 ‘전향의 내부적 외부적 계기와 그 충격, 사상 전향에 부딪힌 전향자의 내면적

主主義をやろうと、そうしたら金日成主席が与えてくれるわけだ。こんな民主主義がどこにある。」

115) 김민철, 「일제하 사회주의자들의 전향 논리」, 『역사비평』 30호, 1995, 231~232쪽.

116) 金石範, 『轉向と親日派』, 岩波書店, 1993, 9쪽.

갈등과 모색 등의 전향 과정에 대한 문제를 형상화한 문학¹¹⁷⁾이라는 정의가 가능할 것이다.

조직으로부터 이탈한 김석범의 전향적인 자세는 본격적인 작가 활동을 의미하며 창작 언어로써 일본어 선택에 대한 확고한 이유의 표현이다. 「도상」에서 ‘조직을 탈당한 배신자가 조직에 대한 공격과 파괴 공작을 일본어로 일본 잡지에 조직에 대한 공격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아이 잘못을 집안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일본인들의 손을 빌려 우리 아이를 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26쪽)라고 조직원에게 질책을 당하자 마달부가 말문이 막혀버렸다는 장면이 있다.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이런 식의 비판에 바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작자가 직면하고 있던 ‘왜 쓰는가’, ‘누구를 향해 쓰는가’ 라고 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재일조선인은 언어를 두려워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일본어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의식하는 데 있어서, 모국어를 모르는 것에 끊임없는 불안과 꺼림칙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재일의 생활에서 터득한 단 하나의 언어이며, 전부인 일본어에 대해서도 조선인이기 때문에 어딘가 직관적으로 위화감도 느끼는 존재이다.

게다가 일본어는 재일조선인에게 있어서 폭력적이기까지 하다. 과거 조선어를 빼앗고, 일본어를 강요당했는데, 그뿐만이 아니다. 일본어가 민족 멸시와 인간 멸시의 관념을 흡수하고, 확장한 과거 침략자의 말이고, 그 속에 조선인에 대한 멸시의 말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문제는 일본어의 폭력성에 대해 재일조선인이 (모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일본어로만 항거할 수 밖에 없다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언어의 억압적인 구조가 되어 다시 그들 위로 덮쳐오는 데 있다.¹¹⁸⁾

「도상」을 집필할 무렵의 김석범은 작품에서 사용할 언어의 문제에 관한 평론을 연이어 발표하였다. 한글 창작을 사실상 그만두고, 자신의 창작 언어에 관한 생각을

117) 황치복, 「한일 전향소설의 문학사적 성격- 한설야(韓雪野)와 나카노 시게하루(中野重治)를 중심으로」, 『한국문학 이론과 평론』 6권 3호, 2002, 355~356쪽.

118) 金石範, 「私にとってのことば」, 『新編「在日」の思想』, 講談社, 2001, 125~126쪽. 在日朝鮮人はことばにおびえる存在だといえる。日本語を知らぬからではない。却って意識するものにとっては、母国語を知らぬことへの絶えざる不安と後ろめたさから自由ではない。そして在日の生活で身につけたただ一つのことばであり、すべてである日本語に対しても、朝鮮人であるが故にどこか直観的に違和感をもつ存在なのだ。それに日本語は在日朝鮮人にとって暴力的でさえある。というのは、かつて朝鮮語を奪われ、日本語を強制されたということだが、それだけではない。日本語が民族蔑視と人間蔑視の観念を吸いこんで脹らんだ過去の侵略者のことばであり、そのなかに朝鮮人などに対する蔑視のことばを多く包みこんだままのことばでもあるからだが、それだけでもない。問題は、その日本語の暴力性に対する、在日朝鮮人の(母国語を知らぬ故に)日本語でしか抗しえぬという相乗的な関係が、ことばの抑圧的な構造となって、ふたたび彼らの上へのしかかってくるところにある。

피력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고서는 작가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문학적 도구인 언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재일조선인인 내가 일본어로 창작하는 것은 이른바 비정상적인(abnormal) 입장에서 나와 일본어의 관계를 지금까지 말해왔는데, 그것은 실제 작가로서 필요에 의한 것이다.

일본어의 틀 안에서 조선인 작가가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그것이었는데, 지금까지 반복하는 요점은 다음과 같다.

그것은 일본어가 가진 민족적 형식(즉, 소리, 형태 등 물질적·개별적 측면, 이른바 잘 쓸 수 있다는 의미에 해당)의 기능이 조선인인 나를 속박한다는 것인데, 그 속박은 민족어인 일본어 그 자체의 기능(논리적 측면)과 일본어가 과거 지배자, 우리 언어를 포함해 민족적인 것을 수탈한 자의 말이라는 윤리적인 측면이 일체가 된 것이다.¹¹⁹⁾

작가는 일본어로 민족의 것을 쓸 수 있느냐는 일본어의 주박(呪縛)에 대한 의견을 말한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재일조선인이 민족의 말이 아닌 일본어로 말을 하고 현실에 대응하고 있다. ‘일본어로 일본어를 뛰어넘는’ 허구의 세계에서 고국의 이야기를 쓸 수 있다는 것이 작가의 생각이다.

재일조선인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 때문에 조국을 멀리하게 된 디아스포라이며 그 디아스포라에 의한 문학이 재일조선인문학이고 세대를 거쳐 변용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나는 재일조선인 문학은 일본 문학이 아니라 일본어 문학이라고 주장하는데 내 주장의 골자는 재일조선인문학이 과거 식민지 지배자의 언어인 일본어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도 조선인 작가로서의 (문학적) 자유를 자기의 것으로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결론은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문학은 다른 예술 분야와 달리 언어로 성립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문학은 언어에 의하여 언어(일본어의 구속)를 초월하는 것이다.¹²⁰⁾

김석범은 조국과 일본의 경계에서 언어뿐만 아니라, 남한과 북한의 경계에서 신체적

119) 金石範, 「日本語で朝鮮が書けるか」, 『新編 在日の思想』, 講談社, 2001, 175쪽. 私は在日朝鮮人でありながら日本語で創作しているといういわばアブノーマルな立場から、自分と日本語との関係についていままでかなり発言して来たが、それは実作家としての必要から生まれたものだった。

日本語のワクのなかで朝鮮人作家としての自由がありうるかどうかを明らかにするのがそれだったが、これまでも繰り返していることなので、要点を記せば次のようになる。

それは、日本語の持つ民族的形式(つまり、音、形などの物質的、個別的側面、いわゆる能記—意味するもの—にあたる)の機能が、朝鮮人の私を束縛するということだが、その束縛は、民族語である日本語そのものの機能(論理的側面)と日本語が過去の支配者、われわれのことばを含めて民族的なものの収奪者の言葉であったという倫理的側面が一体になったものだ。

120) 김석범, 「왜 일본어문학이냐」, 『창작과 비평』, 2007 겨울. 119~120쪽.

구속에 대한 변민도 작품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분단된 조국의 접점에서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불안정한 위치로 신체적 결속 조건을 거부하는 무국적의 삶을 사는 작가의 모습은 「도상」의 주인공 마달부의 모습에 투영되고 있다.

마달부는 원래 조직 안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활동가로서 꿈을 꾸었지만, 이 탈자, 탈락자의 불안정한 위치를 무릅쓰고 조총련과 민단의 어느 곳에도 결속되지 않은 경계인의 삶을 선택한다.

공산주의의 대의명분을 내세워 조직을 파괴하고, 조직에서 동지 상호 간의 불신을 조장하여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인간 그 자체를 파괴한 자들의 죄과와 책임과는 다른 것이다. 적어도 제일의 사회과학자들은 (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지만) 머지않아 이들 제일조선인 운동사상 일찍이 없었던 죄과의 기록을 써넣어 둘 만큼 큰 문제이다. 죄다 100엔 균일가 식의 일률적인 자기비판이 이 경우에는 있을 수 없다. 도대체 무엇이 가장 근원적인 잘못이었을까. 그 가늠하기 어려운 영향과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된 것인가.¹²¹⁾(「도상」 29 쪽)

조직에서는 중앙지도부에 대한 무조건 복종과 충성을 맹세하게 하고, 비판적인 자에게는 종파(분파) 분자라는 낙인을 찍고 광적인 마녀사냥이 행해졌다고 표현하고 있다. 주인공 마달부는 정치가도 활동가도 아닌 그저 문학을 좋아하는 인물이었지만, 조직에서는 Y 중앙위원장(한덕수)과 심복인 Z 제1 중앙위원장(김병식) 중심의 관료주의화된 권력 그룹에 충성하는 것이 곧 조국과 김일성에 대한 충성이라며 강요한다. 침묵 조차 허락되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조직에서 마달부는 부적응자가 된다.

작중에 일방적인 조직의 조치에 불응하고 적응하지 못한 이탈자 마달부가 조직의 신문사에서 함께 일하다 중앙 조직에서 실천적 활동가가 된 하봉길과 만남을 회상하는 장면에서 조직을 둘러싼 제일조선인들 사이에서의 대립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조직의 Z 제1 부위원장이 실각한 여파 중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었다. Z는 몇 개월 전에 조직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당, 반조직, 반혁명분자’의 낙인까지 조국에게 찍힌 것이다. 마침 남북적십자회담의

121) 共産主義の大義名分をかかげて組織を破壊し、組織における同志相互間の不信をつくり上げて、もっとも重要な人間関係、人間そのものを破壊したもたちの罪科と責任とは違うのだ。少くとも在日の社会科学者たちは(彼らだけに限らないが)いずれこれらの、在日朝鮮人運動史上かつてなかった罪科の記録を書きとめて残す必要があるほどの大問題なのである。何もかも百円均一式の一律の自己批判はこの場合にはありえない。いったい、何がもっとも根元的な過ちだったのか。その計り知れぬ影響と責任の所在はどうなったのか。

자문위원으로 북한으로 간 상태여서 다행이지 만약 일본에 있다고 한다면 아마 동포들에게 못매질을 당하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그 생명의 안부조차 불안할 정도이다. 122)(「도상」 20쪽)

하봉길은 조직을 위해, Y 중앙위원장의 옹호를 위해 생명을 건 인간이야말로 진정한 혁명가이고, 김일성에 대한 충성의 표시라고 설명한다. 이에 마달부는 자신의 혁명적 사상에 대한 혼란한 마음에서도 기회주의적인 조직 활동가들에 대한 비판의 자세는 혼잣말에 그치고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못하였다.

저 남자는 옛날 일제강점기 때 ‘황국 신문’에 있었을 때도 이런 태도로 황국 일본에 충성스럽게 그지없었을지 모른다... 아 아, 이런 내 생각이야말로 혁명적 사상의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고 뭐가! 123) (「도상」 24쪽)

해방 전 조국 상실자 재일조선인이 친일적 행동을 하고 남의집살이처럼 행동하다가 해방 이후는 재일조선인 조직에 대한 충성이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라고 내세우며, 진정한 사회주의의 모습을 왜곡한 재일조선인 조직에 대해 회의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조직의 지도자들은 재일 교포가 일찍이 식민지 지배를 경험한 까닭에 한층 더 강한 그 애국심의 위에 가부좌하고 앉아, 그것을 사취해 왔다고도 생각된다. 왜 조금 더 인간적으로 되지 못하는 것일까. 조직의 인간이라는 것은, 사회주의라는 것은 가장 인간다운 인간을 이르는 것이 아닌가. 왜 자신의 잘못에 대해 겸허한 반성을 하지 않는 것일까. 조직에서 자기비판은 이제 Y 위원장에게 잘못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바뀌치기 당한 느낌마저 든다. 적어도 최소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이라도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중앙위원장이라고 하는 조직의 최고책임자에게 대한 신뢰를 동포들은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Y 개인에 대한 신뢰 없이 그저 조직 기능상의 필요로 중앙위원장 자리의 인간을 인정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서운 것이다.....124)(「도상」 29쪽)

122) 中央組織のZ第一副委員長が失脚した余波の一つには違いなかった。Zは何ヵ月かまえに組織から外されただけでなく、「反党、反組織、反革命分子」の烙印まで祖国から押されたのである。ちょうど南北朝鮮赤十字会談の諮問委員として北朝鮮へ行ったままだったからよかったものの、もし日本にいたとすれば、おそらく同胞たちの袋叩きに会うことが必定だった。その生命の安全さえおぼつかなかったのだ。

123) あの男は、日帝時代のむかし、「皇国新聞」にいたときも、あんな調子で皇国日本に忠勤を励んだかもしれないんだ.....ああ、こういうおれの考えこそ、革命的思想の弱さの証拠ということになるのだろう!

124) 組織の指導者たちは、在日同胞の、かつて植民地支配を経験したが故にひとときわ強いその愛国心の上に、胡坐をかいて座り、それを詐取してきたようにさえ思われる。なぜもう少し人間的になれないのか。組織の人間とは、社会主義とはもっとも人間らしい人間の謂ではなかったのか。なぜ自分の過ちに対して謙虚な反省がなされないのだろう。組織で自己批判はすべてY委員長の無謬を証明するためにすり替えられた感じさえする。せめて、最小限の自己の非を認める発言でもあったならば、それだけでも中央委員長という組織の最高責任者への信頼は同胞のなかに繋ぎとめられたことだろう。Y個人には信頼をおかずに、ただ組織機能上の必要から、中央委員長というポストの人間を認めて

「도상」의 ‘나’ 마달부는 진정한 사회주의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조직 내의 편향된 정치적 이념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사회주의적 혁명의 장으로서 ‘조직’은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심경을 이야기하고 있다. 북마전(伏魔殿)으로 변해 가는 조직에서 글을 쓰는 것은 너무나 제한이 있어서 조직의 테두리에서 이탈자가 된다. 작가의 사상이 사회주의로부터의 변절은 아니라, 조직과 심적 거리를 유지하며 혁명적 실천 운동가를 지향했던 삶을 포기하고 문학에 의한 정치적 활동으로 바꾸게 되었다. 결국 ‘나’는 고독한 민족주의의 삶을 문학인의 삶으로 이어나간다.

마달부의 모습은 공산주의 운동으로 민족 해방운동을 지속할 수 없음을 각성한 「화산도」의 이방근과도 닮아있다. 이방근은 이데올로기 사상으로부터 고독한 존재로 스스로 전향을 결의한 인물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파탄, 존재의 파멸을 의미한다. 집, 친척, 마을, 민족, 국가, 종교, 사상… 온갖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재하고, 그 ‘귀속’에서 제외될 때 고독의 조건이 만들어진다. ‘친일’도, 그리고 일본인 전체의 광신적인 무서운 전쟁으로의 진군도, ‘시대’에서 낙오되는 고독의 공포로부터의 도망이었는데도 모른다.¹²⁵⁾(『火山島』 VI, 第二十章, 115쪽)

나카무라는 「화산도」의 이방근이 정신적으로는 위장 전향이지만, 그것은 변명이라면서 고독이라는 조건이 전향을 부득이하게 만들었고, 이것은 이러한 전향이 전후 이방근의 삶을 규정하였으며, 공산당과 남로당의 활동에 참여 못 하게 한다.¹²⁶⁾고 한다. 이방근이나 마달부나 모두 좌도 우도 아닌 중도적 입장을 지니고 있지만 고독한 인물이다.

아무래도 우리는 궤도에서 벗어난 인간인 듯하다. 공춘삼도 나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래서 궤도가 없으면 혼자서 걸어갈 수밖에 없고 어쨌든, 도상(途上)이다. 우리는 도상에 무리를 이룬 얼굴, 얼굴, 얼굴 중 하나의 얼굴이다. 마달부는 자신이 글을 쓰고 가는 이상 어딘지는 확실히는 모르지만, 거기서 자신을 몰아넣을 수밖에

いるにすぎないとすれば、それこそ恐ろしいことなのだ……。

125) 人間は本質的に孤独に耐えられる存在ではない。それは人間の破綻、存在の破滅を意味する。家、親戚、ムラ、民族、国家、宗教、思想……あらゆる共同体の一員として存在し、その「帰属」から外れるとき孤独の条件が生まれる。「親日」も、そして日本人全体の神がかり的な恐ろしい戦争への進軍も、"時代"から払い落とされる孤独の恐怖からの逃亡だったかも知れない。

126) 나카무라 후쿠지(中村福治), 『김석범 화산도 읽기- 제주4.3항쟁과 재일한국인문학』, 삼인, 96쪽.

에 없다고 생각했다. 자신을 몰아가는 것에 의해서만 자신을 펼쳐나갈 수밖에 없는 느낌이 든다. 이제부터도 그 도상은 멀 것이다.¹²⁷⁾(「도상」 38쪽)

여기서 궤도를 벗어났다는 의미는 조직에서 이탈한 삶이라 할 수 있다. 주인공 마달부가 이탈자가 되어 삶을 살아가야 하는 번민과 조직을 떠난 후 문학인으로서의 길(途上)을 가고자 하는 다짐을 이야기하고 있다. 궤도 이탈은 한글을 창작 언어로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글 집필의 종언으로 작가로서 새로운 독자로의 길을 찾아야만 했을 것이다.

‘조직’이 합법적인 대중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권력 그룹은 일본이 외국이라는 것을 절대적인 조건으로, 그것을 숨기려고 해 온 것은 아닌가. 그리고 재일조선인 대중의 소박한 애국심을 등에 업고 편히 지내고, 조직을 마치 하나의 악당 소굴 같은 것으로 전락시킨다면, 그 죄과는 정말 크고, 씻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마달부는 자신의 행동은 단순히 글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그는 조직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이상, 조직에 대한 관심을 버릴 수가 없다.¹²⁸⁾(「도상」 26쪽)

김석범은 작중 인물처럼 고독한 외부자가 되었지만, 창작 언어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되고, 일본 공산당과 재일조선인 조직 체험은 작가로서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재일조선인들에게 있어서 ‘조직’을 이탈하면 폐인, 패잔병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불안 심리가 있으면서도 조직이라는 궤도를 벗어나 본연의 민족 지향적인 문학인의 삶을 선택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인다.

다음 대목에서도 중앙조직의 간부인 하봉길과 만났던 일을 회상하는 글에서 활동가의 삶을 버리고 문학을 선택한 이유를 알 수 있다.

127) どうもおれたちは軌道から取り外された人間らしい。孔春三もおれと同じようなものなのだ。で、軌道がなければ一人で歩いてでも行くよりは仕方あるまい。どれもこれも途上なのだ。われわれは途上に群れる顔、顔、顔のなかの一つの顔なのだ。馬達夫は自分がものを書いていく以上どこへかは定かに分らぬが、そこへ自分を追い込んで行かざるをえないと思った。自分を追い込むことによってしか、自分を開いて行くことができない感じがする。これからもその途上は長いだろう。

128) 「組織」が合法的な大衆団体としての性格を持つものであることを忘れてはなるまい。にもかかわらず、権力グループは日本が外国であることを絶対的な条件にして、それを隠れみのにして来たのではなかったか。そして在日朝鮮人大衆の素朴な愛国心の上に胡坐をかいて、組織をまるで一つの伏魔殿のようなものに落とし入れたとするならば、その罪科はまことに大きく、拭われるものではないのだ。馬達夫は自分を単なる物書きにすぎないと思っていた。それでも彼は組織の存在を否定するのではない以上、組織への関心を捨てることができないのだ。

(하봉길) 조직에 대한 반역이 조국에 대한 반역이 아니고 뭔가?

(마달부) 반역?..... 하하하 이거 큰일 날 소리군. 알았어. 조직에의 대한 반역이라고 하자. 그러나 나는 자네들처럼 조직과 조국을 동일시는 하지 않아. 자네들은 오만하지 않은가. 그런 발상에 익숙해져 버려, 자신들을 절대화해 버리는 거지. 조직과 조국과는 별개야. 조직의 길은 조국으로 통하는 길이지만. 조국 그 자체, 조국 통일 그 자체는 아니란 말일세.

(하봉길) 그것이 역지라는 것이야 조직, 당에 대한 충성이 김일성 원수에 대한 충성이고, 그것이 조국에 대한 충성이라고 하는 것 정도는 자네도 알고 있잖아. 적어도 몇 년째 조직에서 밥을 먹었을 테니까.¹²⁹⁾(「도상」 27쪽)

「도상」은 조직의 구속에서 벗어나 좌우로 편향되지 않은 마달부라는 작가의 모습이 투영된 인물을 설정하고, 작중에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활동가들의 모습을 통해 작품 경향과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한 요소들을 집합시키고 있다.

김석범은 1970년대 재일사회에서 일어난 사건과 탈당의 체험을 재현하며 자신이 추구했던 사회주의 혁명과 조직의 원칙이 동떨어진 것을 깨닫고 내면의 갈등에서 비롯된 마음의 변화를 작품을 통해 표면화하려 한 것을 알 수 있다.

129) (河奉吉) 組織への反逆が祖国への反逆ではなくて何だ?

(馬達夫) 反逆?..... はっははあっ、これも大変なことばだ。分かった、組織への反逆としよう。しかし、おれはきみたちみたいに組織と祖国とをいっしょくたにはしないぞ。きみたちは傲慢じゃないのか。そういう発想に慣れてしまって、自分たちを絶対化してしまっているんだ。組織と祖国とは別だ。組織の道は祖国へ通ずる道だが、祖国そのもの、祖国統一そのものではないぞ。

(河奉吉) それがヘリクツというものだ。組織、党に対する忠誠が金日成(キム・イルソン)元師(ウォンス)への忠誠であることであり、それが祖国への忠誠だということぐらいきみも知っているんだろ。少なくとも長年組織でめしを食っているはずだ。

Ⅲ. 조직 체험 전후의 재일조선인 형상

1. 언설 공간으로서의 조직

재일한국·조선인들에게 조직을 통한 정치 활동은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는 것 이상의 의미이다. 재일한국·조선인들에게 ‘조직’은 조국에 직결하는 것이고, 조직에서 이탈하는 것은 조국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다. 이것은 재일조선인들이 일본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에 곤란함과 절실함에서 비롯된 것이다.¹³⁰⁾ 재일한국·조선인 입장에서 조직은 삶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조직에서의 활동은 정체성 강화라는 심경을 갖게 하였다.

재일한국·조선인들은 자신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스스로가 정치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 스스로가 인권을 지키기 위한 모임을 만들고 자신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결집하며 정치적 조직에 참여하였다.¹³¹⁾

해방 전후부터 1970년대 무렵까지 재일한국·조선인 사회는 사회주의 좌파 계열의 조직이 절대적 위상을 차지하였다. 전후 재일한국·조선인의 양상에 관한 이승진의 논문을 보면, 해방의 날 도쿄 니혼바시(日本橋)에서 ‘재일본조선건국촉진동맹’을 시작으로, 관동지방에서 18일 ‘재류조선인대책위원회’와 ‘관동지방조선인회’, 22일 ‘재일본조선인대책위원회’와 ‘재일본조선인거류민연맹’, 23일 ‘재일본조선인귀국지도위원회’, 27일 ‘재류조선인대책위원회’ 등의 재일조직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 오사카에 모여 ‘조선인연맹관서총본부준비위원회’를 결성하면서, 전국 규모의 통일 조직이 모색되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재일본조선인연맹(조련)’이었다. 우과 계열의 단체들 역시 45년 11월 ‘재일본건국촉진청년동맹(건청)’이 출범하고, 이듬해 ‘재일본조선거류민단(민단)’이 만들어지는 등 일찍부터 조직한다.¹³²⁾

조련과 후속 조직인 민전에 이어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로 재결성된 좌익

130) 宋惠媛, 「途上 解題」, 金石範, 『金石範作品集Ⅱ』, 平凡社, 2005, 596쪽.

131) 在日朝鮮人の人權を守る会, 『在日朝鮮人の法的地位』, 1964, 182쪽.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在日朝鮮人の人權を守る会)에서 발행한 학술서와 운동서의 의미가 있는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在日朝鮮人の法的地位)』를 보면, 재일조선인의 생활과 사회보장, 조국으로 왕래의 자유, 외국인 등록법, 강제송환, 영주권 문제, 국적 문제 등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132) 이승진, 「재일조선인 조직의 태동과 전개」, 『일본학』 제46집, 2018, 53~54쪽.

조직이 재일 동포 사회에서 주도권을 잡게 된 이유는 북한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민족 교육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고, 귀국 운동을 벌이는 등, 재일 동포사회의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벌인 것을 들 수 있다. 5.16군사정권, 유신체제, 민청학련 사건, 김대중 납치 사건 등 반한국 분위기가 재일 동포사회에 형성됨으로써 70년대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확대해 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¹³³⁾ 재일조선인 조직의 이념과 사상이 재일 동포사회의 조선인 학교나 문학인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재일 조선인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조직과 조국을 동일시 할 정도로 절대적인 신념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된다.

김석범과 재일조선인 조직과의 관계를 히라즈카 타케시(平塚毅)가 작성한 작가의 연보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1945년 3월 20세 김석범은 독립운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거점인 중국 중경(重慶)으로 망명을 생각하고 있었다. 김석범은 제주도에서의 징병 검사를 구실로 도항증명서를 받아 일본에서 서울로 와서, 조선건국동맹에서 지하운동을 하던 이석구를 만난다. 선학원¹³⁴⁾에서 만난 독립운동가 이석구는 여운형 등과 함께 조선건국동맹¹³⁵⁾을 결성한 인물이다. 이석구의 소개로 승려로 변장하고 있던 장용석을 만나 조선 독립과 민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장용석은 「까마귀의 죽음」의 실제 모델이다. 김석범은 시기를 기다리자는 이석구의 설득에 중국으로 탈출하는 것을 포기한다.

김석범은 일본의 패전을 2개월 앞두고 6월 말 오사카로 건너가, 8월 일본의 항복 소식을 동경 미노와(三ノ輪) 병원에서 들었다. 이때 광복의 날의 심경을 「허몽담」에서 그리고 있다.

133) 이한창, 「재일 동포조직이 동포문학에 끼친 영향 - 좌익 동포조직과 동포 작가와의 갈등을 중심으로 -」, 『日本語文學』 제8집, 2000, 105쪽.

134) 김순석,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2001, 109쪽을 보면, '식민지 시기 선학원이 창설 배경은 1920년대 총독부의 통치정책이 문화정치로 전환되면서 각종 문화단체의 창립을 용인한 것과 관련이 있다. 1920년대 일본은 조선에서 정치단체를 제외한 문화단체의 설립을 허용하였다. 선학원은 항일적인 성향이 강한 승려들이 주축이 되어서 결성되었지만, 총독부 당국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총독부의 후원을 받은 교무원과 상반된 성격을 가지고 식민지 동화정책에 물들지 않고 항일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곳이 선학원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김석범은 자신의 연보에서 선학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독립투사와 해방 전 교류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135) 姜德相, 「1930年代の呂運亨」, 『季刊三千里』, 50호, 1987, 171쪽. 독립운동가 여운형은 중앙일보 사장으로서 합법적 독립운동을 재개하였다. 중앙일보는 민중의 신문로서 민중의 측에서 있었다. 정면으로 총독부를 비판할 수 없었지만, 총독부와 타협한 인물이나 특권층의 추행을 가차 없이 폭로하고 필주를 가하였다. 예를 들면 친일파의 저명인 박희도나 최린의 사생활도 단죄하고 민중의 갈채를 받았다. 한편으로 빈민과 수해 희생자의 구제 캠페인도 펼쳤다고 언급하고 있다. 김석범은 망국의 현실에 좌도 우도 없고, 피압박 민족의 원점으로 돌아갈 것, 민족 생존권을 행사할 것 등을 강조한 독립운동가와 만나면서 사상과 민족의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공간 조선에서는 건국준비위원회가 설립되고 각지에 좌파가 주도한 인민위원회가 설립된다. 일본에서는 해방과 동시에 특고(特高) 경찰이 중심이 되어 재일조선인을 통제하던 협화회¹³⁶⁾ 단체가 활동하였다. 김석범은 이들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고국의 해방에 자신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급격히 허무적이 되어 두문불출하게 된다. 10월에 신생 조국 건설에 참여하기 위해 다시 서울로 온 김석범은 이석구 선생과 장용석을 다시 만나고 노동조합 간부 청년 김동오·김영선 등과 공동생활을 한다. 이석구 선생의 권유로 역사학자 정연보가 설립한 서울국학전문학교 국문과에 입학했다.

1946년 여름 학비 마련을 위해 1개월 예정으로 오사카로 밀항한 뒤, 조선소학교 교원이 된 이후 서울로 돌아가지 않는다. 김석범은 서울에서 지하조직 활동을 하던 장용석이 일본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수속을 준비하였으나, 장용석은 1949년 5월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는 길을 택하겠다는 내용을 편지로 알리고 연락이 두절되었다.

1948년 김석범은 관서대학 전문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교토대학교 문학부 미학과에 입학한다. 예술의 영원성·보편성을 부정하는 마르크스주의 예술 이데올로기에 의문을 품고 미학을 선택했다고 밝히고 있다.¹³⁷⁾ 23세 김석범은 오사카에 있는 재일조선인 학생동맹 관서본부에서 일하는 도중, 일본 공산당에 입당하고 그 산하에 있는 재일조선인 조직에서 활동하며 한신 교육 투쟁 데모에도 참여한다.

김석범이 일본 공산당에 입당하게 된 배경을 오은영의 글을 보면, '1931년 코미테른의 방침에 따라 조선공산당 일본총국은 일본 공산당의 일부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일본공산당과 조선공산당이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와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조선인에 대한 민족적인 억압과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투쟁 방침의 대립도 있었다. 조련에 속한 재일조선인은 일본공산당의 지도하에서 일본의 혁명을 위해 전위적 실력 행동부대로 활동하며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일본인과 조선인과의 관계는 전

136) '협화회'로 불리기도 하나, 일본 전역에 설치된 협화회 및 그 상위 본부조직인 '중앙협화회'와 구별하기 위해 정식 명칭인 '만주제국협화회'로 불렸다. 김화, 『韓·中 작가의 滿洲體驗 문학 연구- 滿洲國 건국 이후의 작품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4쪽 보면, '일본은 명목상으로는 '民族協和', '五族協和'를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식민지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 滿洲國에서 일본 민족의 우월성을 부단히 강조한다. 일제는 일본 민족을 '天孫人種',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 허풍을 떨며 일본 민족을 滿洲國 구성부분의 '핵심인'으로, '5개 민족의 先達者', '국민 중 가장 유망한 종족'이라 정의하고 일본 민족의 지위를 滿洲國에서의 여러 민족의 지위보다 상위에 올려놓고 일본인이 滿洲國의 여러 민족을 지도하고 인도해야 한다고 선전하고, 일본을 제외한 기타의 모든 민족을 '야만적이고 열등적인' 존재로 타자화시키며 민족 정체성을 부정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137) 김석범의 졸업 논문에 관한 내용은 「작열하는 어둠」에서 언급하고 있고 본 논문 66쪽에 설명하고 있다.

후 1950년 전반까지 이어졌다.¹³⁸⁾

1951년 26세로 대학을 졸업한 후, 재일조선인연맹(조련)의 후속 단체인 민전 조직의 산하에 있는 오사카 조선청년 고등학교에서 일한다. 10월에 오사카 조선인 문화협회를 설립하고, 12월에 김종명 등과 『조선평론』을 창간한다. 「1949년 무렵의 일지에서」를 『조선평론』에 발표한다.

김석범은 조련이 일본공산당의 지도하에서 일본의 혁명에 종속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일본 공산당에 입당한다. 하지만 일본공산당이 조선인의 민족적 주체성을 억압하는 등의 이유로 조련은 일본공산당과 소원하게 되고, 일본공산당 내에서 재일조선인 당원의 역할은 조국의 통일이 아니라 일본의 혁명이라는 생각을 들게 했다. 김석범은 조선인의 자주적 운동을 일본공산당이 인정하지 않은 것에 위화감을 가지고 1952년 일본공산당 당적을 이탈해 재일조선인 비밀 조직이 있는 센다이로 간다. 센다이에 있는 조직은 겉모습은 신문사로 김석범은 광고 영업일을 했는데 그것이 조직의 자금을 모금하기 위한 일임을 알게 된다. 김석범은 극도의 신경쇠약으로 일을 그만두고 동경으로 돌아와서 평화신문 편집부와 재일조선인문학회에서 일한다.

1955년 30세 때 민전 조직이 해산되고 조총련이 결성된다. 오사카로 돌아온 김석범은 1957년 『문예수도』 12월호에 「까마귀의 죽음」을 발표한다. 1960년 35세 때 조총련 산하의 조선고교의 교원이 되어 조총련 조직과 관계도 이어갔다. 김석범은 일본어 시간에 부교재로 『김사랑 작품집』을 사용하고 고학년에는 한글 문학 수업을 담당한다. 1961년 조선신보 편집국으로 옮기고 동경으로 다시 이사한다.

1964년 재일조선문학예술가동맹(문예동)으로 옮기고 기관지 『문학예술』(한글 잡지) 편집을 담당한다. 재일조선인이 자유롭게 북한에 왕래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 위해 오사카에서 동경 간 720km 도보 행진에 참여한다.¹³⁹⁾ 김석범은 조총련 조직에 속해 있으면서 재일조선인 가운데 북한으로의 귀국 희망자들에게 인정되지 않았던 왕래의 자유에 관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인식을 하고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1967년에는 조직에 속해 있으면서 4·3을 소재로 한 「간수 박서방」, 「까마귀의 죽음」, 「똥과 자

138) 吳恩英, 「金石範文学とその政治的背景」, 『日本文化学報』第43輯, 2009, 267~268쪽.

139) 在日朝鮮人の人權を守る会, 「在日朝鮮人の祖國との往來の自由」, 『在日朝鮮人の法的地位』, 1964, 69쪽. '재일조선인의 조국 왕래의 자유에 관한 운동'은 재일조선인이 북한으로의 일시 귀국하고 다시 생활의 본거지인 일본으로의 입국을 희망하였으나, 도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아 자유롭게 귀국할 수 있는 권리와 왕래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투쟁하였다.

유」, 「관덕정」 4편을 실은 작품집 『까마귀의 죽음』을 조직의 비준을 받지 않고 출판을 강행한다.

김석범이 재일조선인 조직 내에서 활동가로 조직적 운동에 참여하였으나 대부분은 조직 내 산하 단체에서 한글로 집필 활동을 하며 출판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신이 구상하던 4·3에 관한 이야기를 일본어로 발표하게 되면서 조직과 마찰을 빚고 규제에 반발심이 커졌다. 1968년 여름 조총련 조직에서 이탈하는데, 그 바탕에는 정치와 문학, 조직과 문학에 대한 내적 갈등이 있었다.

나는 『민주평화』 신문에 영화와 그 외 문화 관련 기사를 쓰면서 4·3을 소재로 단편 「제주도」를 연재하였다. S시에 남아 있었다면 어쩌면 할 수 없었던 일을 시작했다. 그때는 삽화도 직접 그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140) (「작열하는 어둠」 466쪽)

1975년부터 김석범은 정치와 문학의 측면에서 『계간삼천리』 141)를 통해서 재일조선인 조직에서 이탈하고 나서 자유롭지 못했던 창작 활동을 하였다. 나카무라 이루손(中村一成)은 재일 문화종합지 『계간삼천리』의 주된 내용은 조총련의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과 한국 군정에 대한 거부, 언론을 통한 민주화 운동에 참여이며, 삼천리의 편집위원은 주로 조총련을 이탈한 언론인들로, 이들에 대한 조총련의 공격이 격화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민족 허무주의’ ‘반민족적 배신행위’ ‘한국중앙정보부 KCIA의 하수인’ 등의 공격에 대하여 반론한 것은 주로 김석범¹⁴²⁾이라고 평가했다.

김석범은 정치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 문학인의 혼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하고 정치에 복종하지 않는 문학을 지향했다. ‘지배하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는 자유’(金石範, 『《火山島》小説世界を語る』, 271쪽)를 희구했던 김석범은 작품 활동에 외부적 요인 즉, 조직으로부터 규제가 작용하자 이탈을 하였지만 조직 밖에서 문학으로써 정치적 역할을 이어가고자 했다.

140) 私は『民主平和』新聞に映画その他の文化関係の記事を書きながら、四・三事件をテーマにした短篇、「濟州島」を連載して、S市に残ってればおそらくできなかったことをやりはじめた。そのときは挿絵も自分で描いたのを憶えている。

141) 재일조선인 잡지 『삼천리』는 1975년 2월 창간 이후 1985년 5월 1일 「특집 재일조선인의 현재」를 종간으로 총 50회 발간하였다. 고국의 정세와 한일관계에 관심을 나타내고, 재일조선인의 차별 문제와 동아시아의 문제 등 다루며 재일조선인들이 스스로 정체성을 모색하는 공간이었다. 삼천리의 편집위원인 김석범은 창간호에 종간까지 「당파를 싫어하지만 당파적이라는 것(党派ざらいの党派的ということ)」, 「제주도 4·3봉기에 대해서(濟州島4·3蜂起について)」 등 20여 편의 글을 게재하며 활동하였다. 본 논문 부록 참고 바람.

142) 中村一成, 「思想としての朝鮮籍 第10回- 金石範(下)文学は政治を凌駕する」, 『世界』, 2016.7, 325쪽.

2. 조직 내 사건과 창작 활동

재일조선인 조직을 이탈하고 나서 조직에 관한 비판적 시각을 처음으로 드러낸 작품이 1974년 『海』에 발표한 「도상」이다. 이 소설에서는 1955년 민전이 해산된 이후 결성된 조총련 조직에 속한 재일조선인 활동가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재일조선인 조직에서 일어났던 ‘김병식 사건¹⁴³⁾’을 둘러싸고 조직과 조직을 이탈한 인물 간의 심리 묘사를 통해 조직의 실체와 이탈자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도상」의 주인공 마달부는 조직에서 이탈한 후, 조직과 관련된 글을 쓰며 살아가고 있는 1970년대 초기의 김석범 자신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작품 세계는 조직이라는 공간을 기점으로 안과 밖에 배치된 등장인물들이 작가의 의식 세계에서 순간순간 사건과 연상되어 출현한다.

이야기는 조직이라는 궤도를 이탈한 주인공이 같은 처지에 있는 옛 동지와의 약속 장소로 가는 도중에 의식의 흐름을 타고 연상되는 인물과 관련된 에피소드로 일관되고 있다. 조직의 민족학교에서 함께 활동했던 공춘삼이 ‘반조직 책동분자’로 내몰리고 ‘조직적 조치’로 북한으로의 ‘귀국’ 즉 ‘송환 명령’을 받게 되자, 이미 이탈자가 된 마달부와 이탈의 위기에 있는 공춘삼이 만남을 약속한다.

마달부가 공춘삼에게 전화를 받고 만나기까지의 이동 과정에 주인공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조직원과 조직에서 이탈한 자와의 얽힌 이야기를 의식적으로 연상해 내고 있다. 의식의 흐름을 타고 순간순간 떠오르는 세계를 이어가는 형식을 취하면서 소설을 전개시키고 있다.

마달부는 약속 장소로 가는 길에 차에 친 동물의 사체에서 유독 두 다리만 불쑥 나와 있는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된다. 현실의 언짢은 광경은 전철 안에서 무의식의 꿈의 공간에서 잘린 손가락 두 개가 바지를 입고 춤추는 기묘한 꿈으로 이어진다.

143) 박두진, 『조총련 최대 권력 암투 ‘김병식 사건’ 전말』, <http://www.dailynk.com/> 2019.4.10. 김병식은 한덕수의 심복으로서 反한덕수파를 숙청하는 일에 앞장섰다. 권력의 정점에 오르기를 갈망했던 김병식은 마침내 한덕수 의장을 몰아내려는 ‘반란’까지 도모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조총련 50년 역사에서 최대의 권력 암투로 불리는 ‘김병식 사건’의 출발이다. 이 사건은 조선총련 중앙위원회 9기 3차 회의에서 “분파주의에 대한 투쟁이 너무 지나치다”고 지적한 한덕수 의장의 결정에 반발한 김병식이 한덕수 의장의 자택에 도청기를 설치했다가 발각되면서 표면화됐지만, 당시 조총련 중앙은 대부분 김병식파가 장악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김일성이 한덕수 의장을 지지하면서 결론이 났다. 이후 김병식은 북한으로 소환되어 <남조선연구소> 소장이라는 한직에 머물렀지만, 후에 자신이 일본에 은닉하고 있던 1억 달러를 김정일에게 바치면서 복권되었다. 김병식은 사회민주당 당수로서 명목상 국가부주석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꿈속에서 본 손가락은 지난날 조직의 인쇄소 절단기에 제일조선인 청년이 손가락이 잘린 사고를 떠올리게 한다. 마달부는 조직의 홍 편집장이 절단 사고에 대해서 혁명적 경계심의 부족이라고 주장하고, 오로지 조직의 간부 Y 중앙위원장을 위한 진정한 혁명가로 김일성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던 것을 회상한다.

작가는 조직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로 홍 편집장을 옹호했던 하봉길의 입을 통해, 조직에 관한 글을 쓰는 행위는 조직 파괴, 조직 부정, 반역이라는 조직의 입장을 드러낸다. 하봉길의 비난에 분노한 마달부는 좌우 제일조선인 조직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적 입장임을 말하고 있다.

마달부는 공춘삼과의 약속 장소로 가는 전철에서 이번에는 공춘삼이 근무했던 조직의 간부 김유옥을 만난다. 이탈자에 대한 경계 눈빛으로 김유옥은 ‘조직’에 대해 험담하는 것도 조직에 관한 관심이 있다는 증거라는 말을 한다. 김석범은 조직 이탈자 마달부와 현 조직원의 대치 구도를 통해 조직으로부터 완전한 외부자임을 확인한다.

아침부터 얼크러져 있던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다. 그래... 그저 만나기 위해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공춘삼을 만나면 천천히 이야기를 듣자. 그리고 함께 이야기하자.¹⁴⁴⁾(「도상」 39쪽)

의식의 흐름을 따라 마달부의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다, 공춘삼을 만나면 이탈자라는 공감을 갖고 이야기할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간다. 집을 나설 때와는 자못 심경의 변화가 보이고 비로소 조직의 궤도에서 벗어나 홀가분한 기분으로 글을 쓰는 삶을 걸어가려는 의지를 갖게 된다.

작중에 ‘Y 중앙위원장의 심복인 Z가 제1 중앙부위원장을 제치고 올라가, 그 실력자 행세를 발휘했다.’(13쪽) 라는 것은 1960년대 후반에 일어난 ‘김병식 사건’을 말한다. 작품의 배경이 된 사건의 실상을 보도한 신문 기사 내용을 보면,

제일조총련 중앙 상임위원회가 김병식 조총련 제1 부의장에게 내린 지난 26일의 자택 대기 언급 조치는 의장 한덕수와의 주도권 싸움을 표면화시켰고 무자비한 공산당 권력투쟁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 고질화하여 온 조총련의 내분보다는 김이 남북적십자회담의 북쪽 자문위원이며 서

144) 朝からわだかまっていた心の凝りがほぐれて行くようだった。そうだともし……ただ会うために会うのではない、孔春三に会えばゆっくり話を聞こう。そして話し会おう。

울과 평양에서 보인 비교적 자유스럽고 유연한 언동 때문에 남북 대화와 관련해서 주목된다. 김의 거세를 겨냥한 한덕수의 조직적 반격이 북한 노동당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이번 사태는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김이 보인 언동에 대한 제동이라면 남북적십자 회담은 경화를 예상치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¹⁴⁵⁾

재일조선인 사회를 대변하던 조총련 조직의 최고 위치에 있는 한덕수(작중 Y)와 김병식(작중 Z)이 서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쟁탈전 상황에서 김병식에 대한 제재가 북한 당국자의 지시임이 드러나 김병식의 패배는 결정적이라는 내용이다. 송혜원의 글에 ‘조총련 내에서도 1972년부터 김병식을 비판하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고, 북한 당국이 그를 소환하는 것으로 사태가 수습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조총련 내에 화근을 남기고, 많은 사람이 이 시기에 조총련을 떠났다’¹⁴⁶⁾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당시 김병식 사건은 재일사회에서 조총련 조직에 대한 재일조선인들 인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일작가 이회성은 조총련 내의 언론기관에서 일하다가 이탈하고 김병식 사건을 모델로 한 『약속의 땅』을 발표한다. 이 소설은 주인공은 양심적인 많은 사람이 조직에서 추방당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종파 분자인 아내와의 이혼을 권하거나 소설가를 꿈꾸는 주인공에게 조직 활동에만 전념해 주길 요구하는 조직에 염증을 느끼고 멀어져 간다.¹⁴⁷⁾는 내용으로 조직과의 불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김민철은 1970년대 들어가면서 일본 사회에서 좌경화의 퇴조 현상과 더불어 북한의 실상이 밝혀지면서 분위기도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지지에서 비판적 지지로 바뀌었고, 특히 문학인들과 이들을 조직 안에서 흡수 통제하려는 조총련과의 갈등이 노출되고 많은 문인이 조직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직과의 알력이나 갈등을 작품에서 다루기 시작했다¹⁴⁸⁾고 했다. 조총련을 탈퇴한 김석범을 비롯한 재일한국·조선인 문학인들이 『계간삼천리』를 중심으로 조직 내의 비리와 갈등 문제를 다루고 중립을 표방함으로써 조직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재일조선인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김병식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사

145) 경향신문, 「한덕수·김병식 전면전 폭발한 조총련 내분 그 내막」, 1972. 10. 23.

146) 宋惠媛, 「途上 解題」, 金石範 『金石範作品集Ⅱ』, 平凡社, 2005, 596쪽

147) 이한창, 「재일 동포조직이 동포문학에 끼친 영향-좌익동포조직과 동포 작가와의 갈등을 중심으로-」, 『日本語文學』 제8집, 2000, 115쪽.

148) 김민철, 「일제하 사회주의자의 전향 문제」, 반민족문제연구소, 2005, 17쪽. <https://smallnews.blog.me/>

건의 진상이나 조직 자체에 관한 이야기는 빠져 있다. 조직을 떠났지만, 조직원들과 우연한 만남을 설정하고, 어떻게든 조직과 얽혀있는 모순된 심정을 표현하며, 조직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못하고 주저하는 주인공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

조직으로부터 이탈한 후 언설공간이 자유로워지면서 자신이 느꼈던 조직 내의 갈등과 불만을 표현하고 결국에는 이탈자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자기의 길을 택해야겠다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김병식 사건’을 배경으로 재일조선인 조직원들의 삶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작가의 자세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감정을 객관화시키고 작가의 사상이나 지향성을 형상 자체에 포함시키고 있다.

김석범은 작중 인물 마달부와 그 주변 인물에 대한 평가와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통해 자신의 내적 세계를 냉정하게 객관화시키고 바라보려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도상」은 작가의 주관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말해, 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설명으로 대신 하는 — 설명이 필요한 곳에 설명하지 않고, 귀찮고 힘에 부친다고 해서 형상화하지 않고 대신에 설명해 버리게 된다.

그러면 설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작품에는 당연히 설명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또 그만큼의 역할과 중요한 경우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형상에 설명이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작품 세계의 형상을 한층 도와주는 것으로 작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꾸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설명으로 대신에 하려는 작가의 안이한 태도 — 자세와도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¹⁴⁹⁾

작가의 자세나 사상을 반영한 묘사가 작품의 형상성이라고 할 때, 김석범은 생활 속에서 단련하고 체험을 통해 얻은 사고를 바탕으로 자신의 감정을 작품 안에서 객관적으로 묘사하며 형상화하고 있다.

작품의 기술 방법은 의식의 흐름을 타고 생활 속에서 체득한 것을 전개하고 있다.

149) 和田圭弘, 「金石範の文学論について一九六三から一九七二まで」, 『言語社會』, 第3号, 250쪽. 一言でいって、描写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ころへ説明で代用する—説明が必要なところでの説明ではなく、面倒だとか手に余るということで形象の代わりに説明をしてしまうでしょう。

それなら説明とは何か。作品には当然説明があるべきで、それはまたそれだけの役割と重要な場を占めているけれど、どこまでも形象に説明が服従しなければならず、作品世界の形象をいっそう助けることでその働き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ところが一般には逆になっている場合が多いです。説明で代理しようという作家の安易な態度—姿勢とも関連すると思います。

과거의 에피소드를 연상법에 따라 엮어내어 산만하고 분절되어 보이는 전개 과정을 보인다. 하지만, 작가의 의도는 조직을 떠난 작중 인물의 불안감, 결국에는 그 불안한 위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삶의 도정에서 글을 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게 되는 경위를 이야기하고 있다.

김석범은 시기적으로 김병식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인 1968년에 이미 조직을 나왔기 때문에 이 사건이 직접적인 탈당의 요인이라고 할 수 없다. ‘조직을 떠난 인간이니까 조국을 위해 전력을 다할 수 없다는 말인가’(27쪽) 라는 마달수의 말에서 생각할 때 조직으로부터 탈락분자, 변절분자로 자신을 인식하지만, 조직을 바로 세우려는 의지가 본격적인 작가로서의 길(途上)을 걷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직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 조국을 위하는 길이라는 조직의 생리를 비판하고, 조직의 원칙이 누구를 위한 원칙인가라는 마달부의 푸념처럼, 작가는 재일사회에서 합법적 대중단체로 조직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 심경을 「도상」에서 표현하고 있다.

3. 위장 전향 문제

1979년 『스바루』 8월호에 발표한 「왕생이문」은 광복 이전부터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재일조선인 조직에서 활동한 황태수라는 인물이 일본의 어느 거리에서 왕생(往生)했다는 이상한 소문(異聞)을 듣고, 주인공 ‘나(私)’ 공상오가 황태수의 해방 전후의 삶을 추적하는 내용이다.

황태수는 광복 6개월을 남기고 옥중에서 반강제적으로 전향을 하게 된다. 그는 옥중에서 전향했다는 과거 이력으로 인해 줄곧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이야기는 황태수가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과 과거에 민족을 팔고 친일을 했던 인물들이 해방 후에는 전향해서 조직(재일본조선인연맹) 내에서 성공을 거머쥐고 과거 자신들의 행적과 상관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대비하는 구조로 그리고 있다.

황태수는 송태옥이라는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하고 있다. 작중처럼 두 사람 송태옥(황태수)과 김석범(공상오)은 연령이나 삶의 방식이 차이가 있지만, 서로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관계이다. 20세 무렵의 김석범에게 소설 쓰기를 권한 것도 송태옥이었다. 하지

만 그는 김석범의 작품을 한 편도 읽은 적이 없이 세상을 떠났다.¹⁵⁰⁾

작가가 설정하고 있는 황태수라는 인물은 1938년의 당 재건과 반전 활동을 하다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된 인물이다. 오사카 교도소에서 3년 만기 복역을 하고 1941년 동경 예방구금소로 이송되면서 병을 얻은 황태수는 6년간 옥중 생활을 견디다, 실천 운동 포기 맹세를 담은 전향서를 쓰고 44년 봄에 출소한다.

주인공 ‘나’는 오사카에서 작은 신문사를 하고 있던 황태수가 한두 달 전에 사망했다는 소문을 듣는다. 형(공상구)과 ‘나’는 객사한 황태수의 흔적을 찾아 나서지만, 죽음에 관한 아무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한다. 그야말로 소문이었다. 6개월 후, 황태수의 두 번째 부고 소식, 진짜 사망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참석한 ‘나’는 죽기 전 황태수가 겪었던 일을 알게 된다.

황태수는 시류에 편승한 재일조선인 조직의 최고 지도부에 반항적 자세를 취했다. 황태수가 한글 잡지 『민중신문』에 조직의 위원장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한 것에, 조직은 규율 위반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황태수를 파면하고 추방처분을 내렸다. 작가는 조직 내에서 어떠한 비판도 허용되지 않는 수직 관계의 문제점을 황태수의 행동을 통해 이야기한다.

황태수는 조직의 최고 간부들이 재일조선인들의 결혼식장에서 주례에 서는 일에 열을 올리고 정치 연설의 장처럼 이용하고 사례금도 챙기던 행동을 비판했다. 작가는 해방 전 협화회 간부로 일하며 내선일체에 앞장섰던 인물이 해방 후 ‘혁명’이란 이름을 내세워 조직 간부 자리에 앉아 애국자 행세를 하며 쉽사리 전향해서 조직에서 성공을 손에 쥐는 상황과 황태수의 불안정한 삶을 대비시키는 설정으로 재일조선인의 삶의 방식에 회의적 심경을 드러낸다.

황태수는 『민중신문』을 그만두고 야마모토(옥중 전향을 한 이후, 교수가 된 옛 동지)의 소개로 오사카 노동학원에서 경제와 철학을 강의하고 고무장화 브로커를 하며 삶을 이어간다. 하지만 노이로제의 약화와 과음으로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인다.

이봐, 상오, 상오군! 그 특이한 나를 부르는 쉼 목소리가 과거로부터 되살아난다. 황태수는 더욱 과거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전쟁 말기에 출소한 예방구금소¹⁵¹⁾의 안쪽으로, 오히려 감옥을

150) 宋惠媛, 「往生異聞 解題」, 金石範, 『金石範 作品集 II』, 平凡社, 597쪽.

151) 예방구금소(予防拘禁所)는 상습범 등 범죄자 가능성이 있는 자를 치안상의 이유로 형기 만료 후도 자유를 구속하

향해 걸어가고 있다. 더욱 감옥 속, 과거로 향해 걷는다.¹⁵²⁾(「왕생이문」 98쪽)

황태수는 자신은 인간 실격이라고 판단하고 마음속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알코올 중독과 결핵, 자살기도로 점철된 삶을 살다 결국 행로 병사로 삶을 마감한 불우한 재일조선인의 모습이다.

황태수의 옥중 전향은 어떤 의미에서 위장 전향이었다. 동지들의 승인으로 출옥 후, 자신의 사상적 활동을 도모하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석방되어 ‘자유’가 된 사실이 오히려 권력의 강제에 굴복한 자신을 더욱 옥죄어왔다. 황태수는 과거에 대한 푸념 속에 알코올에 의존하며 사회의 부적응자가 되었다.

네가 그래도 공산주의자냐? 라고 했지. 그게 협박하는 말이야. 너나 할 것 없이 지금은 공산당이고, 물 만난 물고기처럼 조직 만세를 부르는 시대지. 조직이라는 말만으로 조선인 대중은 무조건 지지하니까, 음, 식민지 민족의 쓴맛을 봤으면서도 회한하고 드문 대중이지, (중략) 어디에 가더라도 활동가, 혁명가님이시지 조직 활동가가 곧 애국자... (중략) 일제 강점기에는 그렇지 않았어...¹⁵³⁾(「왕생이문」 111~112쪽)

작가는 황태수를 통해 식민지 시절 친일 행동을 했던 재일조선인이 해방 이후 조직의 이름을 내세워, 애국자 행세와 혁명가 노릇을 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화산도」에서 ‘멸공, 반공 애국, 이것이야말로 해방 후의 미군정하에서 소생한 친일파의, 친일 애국을 슬쩍 바꿔치기해서 살아남는 길이었다.’¹⁵⁴⁾라는 내용에서도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펼친 제주도 게릴라 섬멸 작전이 친일파가 정권 유지를 위한 행동이라는 비판적인 입장에서 드러난다.

황태수가 조직의 지도부를 비판하는 것을 조직에서는 비방으로 보고, 오히려 비판의

고 구금하는 제도이다. 정권에 위험한 인물이라고 판단되는 자를 형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구금하기 위해서 사용했다.

152) おうい、相伍、相伍君よ！その特徴のある私を呼ぶ嗚れ声が過去から蘇る……。黄太寿はなお過去へ向って歩きだす。戦争末期に出所した予防拘禁所の門を逆にくぐって歩き、さらに監房に向って歩き続ける。さらにその監房のなかを過去へ向って歩く……。

153) きみはそれでも共産主義者かといっただろ。あれが殺し文句というもんだ。猫も杓子もいまは共産党で、水を得た魚みたいに組織万歳の時代なんだ。組織というだけでわが朝鮮人大衆は無条件に支持するからなあ、うふむ、植民地民族の辛苦を誉めたとしても、素晴らしく珍しい大衆なんだ。(中略)どこへ行っても活動家、革命家さまだろ、組織活動家イコール愛国者……(中略)日帝時代はそうでなかった……。

154) 「滅共」、「反共愛国」、これが解放後の米軍政下で蘇生した親日派の、親日愛国をすり替えて生き延びる道だった。(『火山島』Ⅶ, 終章, 423쪽)

글을 신문에 쓴 황태수를 개인 영웅주의, 프티부르주아 개인주의 사상이라고 질책을 한다. 역사의 전환 과정에서 시류에 편승한 부류와 사상적 이데올로기의 노선을 달리 하는 재일조선인 사이의 분열된 모습이다.

일제 강점기에 협화회에서 “내선일체”와 “성전완수”를 외친 그들과 황태수는 물론 달랐다. 다를 뿐만 아니라, 일제 협력자들이 홀가분하게 변신하여 조직 활동을 하는 데 비해, 황태수처럼 오랜 옥중생활 끝에 전향하고 출소한 쪽이 오히려 스스로 괴로워하는 것은 어찌 된 일일까. 자신은 다르다, 혐오의 감정과 함께 그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바다와 같이 심신을 덮어 주는 술의 기운 속에서, 다르지만, 그러나 자신의 전향을 부정할 수 있을까, 라고 반문한다. 155) (「왕생이문」 131쪽)

자신이 식민지 시대에 옥중 전향을 했다는 과거의 삶은 해방 이후 자포자기한 인생을 사는 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황태수는 식민지 시절 친일했던 자가 해방과 함께 당을 조직하고 혁명가로 애국자 노릇을 하는 것을 비난한다. 그러나 전향이라는 자신의 약점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었다. 결국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며 자기 혐오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황태수는 그 전향 상신서의 내용을 본심에서 쓴 것은 아니었다. 병이 악화하고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던 황태수의 전향은 옥중 동지들의 승인이 있었고, 위장 전향의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위장”이었던 걸까. 출옥 후의 투쟁을 계속하기 위한 “위장”이었던 걸까. 병 때문이라면, 병을 무릅쓰고 완강하게 전향을 거부하고, 옥에서 죽음을 맞이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 자신은 이제 서른을 막 넘어 젊고, 어떻게든 더 살고 싶었다. 옥사하고 싶지 않았다. 결국, 그것이다. 살고 싶었던 거다. 그 약점을 황태수는 인정한다. 156) (「왕생이문」 151쪽)

155) 日帝時代に協和会で“内鮮一体”と“聖戰完遂”を叫んだ彼らと黄太寿はもちろん違っていた。違うだけでなく、日帝協力者のほうが身軽に転身して組職活動に従っているのに対して、黄太寿のように長い獄中生活の末に転向して出所した者のほうが却っていっそう内攻し苦しむのはどうしたことだろう。おれは違う、嫌悪の情とともに彼らとは違うのだと思ひながら、海のように心身を蔽ってくる酔い勢いのなかで、違うが、しかしおれは自分の転向を否定できるかと反問する。

156) 黄太寿はその転向上申書の内容を本心から書いたものではなかった。そして病気の悪化とともに精神にも変調をきたしかけていた黄太寿の転向は獄中の同志たちの承認があり、偽装転向の側面を持っていたのも事実だった。しかし、それなら、何のための“偽装”だったのか。出獄してからの闘争を継続するための“偽装”だったのか。病気のためなら、病魔に冒されながら頑として転向を拒み続け、そして獄死した者はどうなるのか。おれはまだ三十を少し出たばかりで若く、何とかして生きのびたかった。獄死したくなかった。結局それなのだ。生きたかったのだ。それが弱さだった。それを黄太寿は認める。

황태수는 저고리를 입고 있는 봉제 인형을 안고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 거리에서 객사하였다. 봉제 인형은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 야마모토의 아들 사진을 보내 자신의 아이라고 거짓말 했던 미안한 마음과 사진 속 아이를 생각하며 가지고 있던 인형이었다. 작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한복을 입고 있는 인형을 품고 있는 것으로 고향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황태수의 주검을 앞에 한 ‘나(공상오)’에게 한글로 된 정치 신문에 실린 조직의 최고 간부의 성대한 장례식 사진과 초라하지만 평안한 표정을 한 황태수의 얼굴이 겹쳐진다. ‘나’는 죽은 황태수의 생전의 말과 행동으로, 재일조선인의 재일의 삶과 적응 방식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할 뿐, ‘나’라는 존재는 관망하는 자세에서 허탈감만 느끼고 있다.

김석범은 「왕생이문」에서 해방 전후의 재일조선인들의 행위를 조직 관료들의 윤리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루고 있다. 과거에 자신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에 대한 반성도 죄의식도 없이 현실에 잘 적응하는 무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다. 작가는 과거의 감옥 안에서 고뇌하다 결국 전향하여 불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한 재일조선인의 삶을 통해 재일조선인은 어떻게 역사적 현실에 적응했어야 했는가를 묻고 있다.

4. 니힐리즘과 조직 이탈

김석범은 1952년 일본 공산당에서 탈당한 이후, 재일조선인 조직에서 활동하는 것이 곧 조국을 위하는 길이라 인식하고 조직의 일원으로 민족적 투쟁을 하며 자신에 대한 사상적 확인을 해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김석범의 1968년 재일조선인 조직 조총련의 이탈은 사회주의적 혁명을 실천하기 위한 모든 연결선과의 단절이고 정치 생명은 허공에 떠서 절망의 극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1993년 63세의 김석범은 「작열하는 어둠」에서 20여 년 전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 사상을 추구하던 과정에서 조직을 이탈한 후 극도의 니힐리즘에 빠지게 된 상황을 되돌아보며 이야기하고 있다.

이 작품은 김석범이 조직의 명을 받고 비밀리에 북한과 바로 연결된다는 센다이(작중 S시)에 있는 조직의 신문사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주인공 ‘나(김백담)’를 중심으로 친구 정세운과 양철승, 세 명의 재일조선인 조직원의 삶을 그린 자전적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작중에 고국에서 한국전쟁이 한창일 무렵, 주인공 ‘나’가 S시에 가기 전까지 야간 청년학교를 만들고, 고국의 문제에 관한 종합잡지의 편집과 발행일을 했다는 것은 김석범이 민전 조직 산하의 오사카 조선청년고등학교에서 근로청년을 모집하여 수업을 했던 당시의 행적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 1948년 4·3 민중 투쟁이 일어나던 같은 해에 일본에서는 재일조선인들에게 취했던 동화 교육 정책을 극복하기 위한 ‘4·24한신교육사건’이 일어나는데 「작열하는 어둠」의 배경이 되고 있다.

‘4·24한신교육사건’의 배경을 정희선의 논문에 의하면, 한반도에 38선을 경계로 하여 냉전 대립이 시작되어 연합국총사령부(GHQ)¹⁵⁷⁾는 재일조선인의 민족 교육 운동을 조선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치안상의 문제로 간주하기 시작하였고 조선인 민족교육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서 조선인 학교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GHQ에 협력하고 실행하는 관계에 있었다.¹⁵⁸⁾

당시 재일조선인들은 조련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 체제를 확립하고, 한글 교과서를 사용하여 조직을 통해 민족 교육 사업을 조직하는 데 성공한다.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 운동이 확대되자 일본 정부는 이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조선인 학교의 폐쇄와 재일조선인 사회에 대한 탄압에 4월 24일 오사카와 고베를 중심으로 전면적인 반대 투쟁이 일어났다.

GHQ의 의견에 따라 일본 문부성은 “재일조선인은 일본법령에 따라 일본 학교에 다녀야 한다”고 발표하고, 1948년 4월 13일 오사카에서는 조선학교 70개교 가운데 19개교에 대해서 폐쇄 명령을 내렸다. 4월 23일 오사카부 청사 앞 광장 공원에서 3만 명이 넘는 대규모 “조선인학교 폐쇄 반대” 집회가 열렸다.¹⁵⁹⁾ 이때 무장 경찰의 발포로

157) 연합국 최고사령부(SCAP: Supreme Commander of the Allied Powers, GHQ: General Headquarters, 일본어 명칭: 聯合國軍最高司令官總司令部)는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한 이후 1945년 10월 2일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1952.4.28) 때까지 6년 반 동안 일본에 있었던 연합국 사령부이다.

158) 정희선,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운동(1945~1955)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74쪽.

159) 정찬원, 「재일한국인의 백년을 생각한다.」, 『현대일본총서』, 도서출판 문, 2010, 35쪽.

16세의 김태일 청년이 죽었다. GHQ는 1948년 4월 24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재일조선인 활동가와 참가자들을 체포하였다.¹⁶⁰⁾ 작중에서는 ‘4·24한신교육사건’ 자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1948년 3월에는 일본 전국에서 600여개의 초·중학교, 5만3천명의 학생들과 교사 천여 명이나 있는 교육기관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GHQ의 지령에 따라 조선인학교 폐쇄 명령을 내린 일본정부가 강제 집행에 나섰다. 민족교육 탄압에 대해 각지에서 반대 투쟁이 열렸는데, 그중에서도 오사카와 고베의 투쟁은 대규모로 격렬했다.¹⁶¹⁾(「작열하는 어둠」 435쪽)

주인공 ‘나’도 연일 전쟁터와 같은 데모에 참여하고, 정세운이 있던 고베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던 것으로 사건의 개요를 이야기하고 있다. 김석범은 실제 데모에 참여했던 현장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이윽고 해명(海鳴)소리처럼 군중의 고함이 들렸다. 소년의 죽음을 눈앞에서 본 군중의 원성. 소년이 죽었다! 소년이 살해됐다.....! 발포, 방수.

그날만 180명이 체포, 수백 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한 반대 투쟁은 계속되었는데, 25일에는 고베 지구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정세운이 현장에 있던 고베에서는 25일부터 29일에 걸쳐 재일조선인 조직 관계자나 노동조합, 일본 공산당 당원들 약 1,600여 명의 대검거가 이뤄졌다.¹⁶²⁾(「작열하는 어둠」 436쪽)

작중에는 주인공 ‘나’가 민족교육 학교 폐쇄에 반대하는 데모 일행에 있었던 것과 달리, 정세운은 GHQ의 통역사로 서로 대립하는 측에서 일한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정세운이 한때 GHQ의 통역으로 일했다는 에피소드는 「까마귀의 죽음」의 주인공 정기준을 미군정의 통역으로 설정¹⁶³⁾한 것과도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

160) 金仁德, 「1948年 한신(阪神)教育鬭爭과 在日朝鮮人 歴史教育 - 在日本朝鮮人聯盟의 民族教育運動 戰術과 關聯하여-」, 『한일민족문제연구』, 2008, 167쪽. 재일조선인 8명, 일본인 공산당원 1명이 중노동 11년 이상의 형을 받았다. B급 12명은 일반군사 재판에 회부되었고, C급 52명은 지방재판소의 재판에 회부되었다.

161) 一九四八年三月には、日本全国で六百の小・中学校、五万三千名の生徒、教師千名をかかえる教育機関が出来上っていた。これに対して、GHQの指令で朝鮮人学校閉鎖命令を出した日本政府が強制執行に乗り出した。この民族教育弾圧に対して各地で反対闘争が行われたが、なかでも大阪と神戸のたたかいは大規模に激しいものだった。

162) まもなく海鳴りのような群衆のどよめきが聞こえた。少年の死を眼のまえにした群衆の怒号。少年が死んだぞ! 少年が殺されたぞ.....! 発砲、放水。

当日だけで百八十名の逮捕、数百名の重軽傷者が出た反対闘争はなお続いたが、二十五日には神戸地区に非常事態宣言が出された。丁世雲が現場にいた神戸では、二十五日から二十九日にかけて在日朝鮮人組織関係者や労組、日共黨員らの約千六百名の大検挙が行なわれた。

정세운이 민족교육학교 폐쇄에 반대하는 재일조선인 측과 반대에 서게 된 경위와 구체적으로 조직에 입당하게 된 것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만, 한신교육사건 이후 정세운이 민족교육을 짓누르는 측에 서 있다는 것을 깊이 후회하고 고민했다는 것을 ‘나’(김백담)가 들었다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정세운은 GHQ의 통역사로 활동했던 일을 삶에서 후회와 고민으로 삼고 이후에 조직 활동가로 속죄의 길을 가지만, 허무감에 빠져 헤어나지 못한다. 작가는 지난날의 행적에 대한 죄의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불행한 정세운의 삶과 주인공 ‘나’의 허무의식을 동일시하고 있다.

작중에 ‘나’는 재일조선인 조직이 일본 공산당의 하부 조직으로 전후의 당의 재건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지만, 일본공산당의 조선독립,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무관심에 불만을 느끼고 탈당한다. 비밀리에 S시의 새로운 조직, 그야말로 일본 공산당의 지도 아래가 아닌, 조국의 당에 직결하고 있는 지하조직에 참여하는 것으로 혁명 전선에 연계한다는 자부와 영웅심마저 갖게 된다. 이러한 작중 인물의 생각은 당시 김석범에게 ‘당’과 ‘조직’은 절대적이며 하나의 ‘이데’로 생각하고, 프롤레타리아의 해방과 자기실현, 인류의 자유와 해방, 학대당한 자들을 위한 혁명의 구현자가 당이었다는 사고에서 의한 것이다.

‘나’는 표면상으로는 지방 신문사의 광고 일을 하지만 조직을 위한 자금을 모금하는 일을 한다. 극히 내성적인 ‘나’는 3, 4개월 활동을 하지만 극도의 신경증으로 결국 조직을 그만두고 동경으로 돌아온다. 「도상」에서도 조직 이탈자 공춘삼이 마달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찾아오지 못한 일을 미안해하는 대목에서 조직을 이탈하게 된 시점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미 몇 년 전 마달부는 생각보다 큰 위 절개 수술을 하고 3개월간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말하고 있는 듯했다. 마달부는 퇴원을 계기로 조직을 떠나고, 그리고 나서, 일본어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¹⁶⁴⁾(「도상」 30쪽)

실제 김석범이 센다이에서 조직 활동을 끝으로 1967년 위병 수술을 위해 요요기

163) 宋惠媛, 「炸裂する闇 解題」, 『金石範 作品集 II』, 平凡社, 602쪽.

164) もう数年もまえに馬達夫は胃の案外大きい切開手術をして三ヵ月間入院したのだったが、そのことを指しているらしかった。馬達夫は退院を契機に組織から離れ、それからやがて日本語で小説を書きだしたのである。

(代々木) 병원에서 10월부터 3개월간 입원하고 나서 조총련을 이탈하게 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때 조직을 떠나게 된 심경과 경위를 20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작열하는 어둠」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1948년은 23세 김석범이 관서대학 전문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교토대 미학부에 입학한 시기이다. 작중에 대학에 입학한 해인 4월에 ‘나’와 정세운이 대학 캠퍼스에서 만나는 장면이 그려진다. 영문학을 전공한 정세운은 문학청년의 객기인지, 니힐리즘에 빠져 퇴폐적인 나날을 보냈다. ‘나’는 교수의 도움으로 논문을 쓰고 형식적이거나 졸업하게 되었다고 한다.

작가 연보에 의하면, 김석범은 예술의 “영원성”과 “보편성”을 부정하는 마르크스주의 예술 이데올로기 이론에 의문을 가지고 미학을 선택하고, 이지마 츠토무(井島勉) 주임교수의 도움으로 ‘예술과 이데올로기’라는 테마의 논문으로 졸업했다고 되어있다. 김석범은 대학 졸업 논문에서 마르크스주의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말하고 있다.

대학 논문에서 마르크스주의가 커다란 의미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미학이었지만, 이것은 철학이지요. 관념론이라고 할까, 칸트의 『판단력 비판』 같은 것을 공부했으니까요. 미의 형식의 보편성이라든지요. 그런데 전후 유물론이 유행했지요. 저도 공산당 당원이었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던 인간이었으니까요. 예술론에도 마르크시즘이 많았지요. 미술에서도 사회주의 리얼리즘 위주고요. 그때는 그것이 절대적이었으니까요. 공산당은 그런 부분에서는 교조적이니까요. 상부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이념이 버젓이 통했으니까요.¹⁶⁵⁾

사회주의적 사상을 지향하던 김석범은 재일조선인 조총련 조직이 민족해방 운동의 중핵의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하였지만, 이상과 현실의 벽을 느끼고 조직 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지게 된다. 젊은 날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이상을 가지고 참여했던 조직 생활을 결국 ‘나’의 허무감과 친구 정세운의 죽음으로 마감하게 된 비운의 삶으로 표현하고 있다.

165) 金石範, 『現代文学のゆくえ, 物語・想像力・自己超越』, 『《火山島》小説世界を語る!』, 右文書院, 2010, 301쪽. 大学の卒論では、マルクス主義が大きな意味を持っていたんですか。

いやいや、私は美学でしたが、これは哲学でしたね。観念論というか、カントの『判断力批判』なんかを勉強してましたからね。美の形式の普遍性とかですね。ところが戦後唯物論がはまりました。私自身も共産党員であり、社会主義を志向している人間でしたから、芸術論にもマルキシズムがさかんだったんですね。美術でも社会主義リアリズムが中心でしたし。あの時分はそれが絶対的なものでしたから。共産党はそういうところは教条的ですから上部構造は変わらないという理念がまかり通っていました。

‘나’는 어두운 밤 고요를 깨는 오토바이의 폭발음과 고양이 울음으로 40여 년 전 샌다이 비밀조직으로 간 정세운이 다이너마이트 폭발로 생을 마감한 과거를 회상한다. 하지만 ‘도호쿠의 K 화산 중턱에 있는 황량한 철광산에서 한 청년이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시켜 새의 그림자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 순간이 눈앞에 펼쳐진다.’(425쪽)는 친구의 죽음에 대한 회상은 실제 ‘나’가 목격한 것은 아니다.

조직에 대한 회의와 절망감으로 S시를 떠난 후, ‘나’와 교대로 S 시에 있던 친구 정세운의 자살 소식을 접한다. 조직 생활에 대한 조언자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생각에 정세운과 만남을 거절했던 지난날의 마음의 부채감이 정세운의 부고를 실제 자신이 현장을 본 것처럼 기억하는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는다.

정세운이 S시에 가기 전, 부초 같은 생활을 하고 실연으로 두 번의 자살미수를 한 적은 있었지만, 생을 마감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를 ‘나’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정세운과 양철승이 만나자는 부탁을 저버리지 않았다면, S시에 조직에 머물러 있으면서 함께 했다면, 친구의 죽음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의 부채감이 죽음의 순간을 상상하게 하고 ‘나’의 뇌리에 각인되어 정신적 상처로 남아 있다.

‘나’는 과거에 심리적으로 강박 관념의 병 증세를 앓은 인물이다. 처음은 신문사의 광고부원으로 활동하다가, 1년 후에 편집국으로 이동한다는 말을 듣고 의욕적으로 조직 활동에 임한다. 하지만 창간 5주년을 기념하여 협찬할 구매처를 찾는 업무와 새로운 독자망을 개척하는 광고 영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과거의 증세가 재발하고, 극히 내향적 성격인 ‘나’는 견디기 힘들어한다.

광고일 따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것과 관계없는 일이라 생각하면서도, 주어진 “혁명적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는 자신의 나약함은, “도망쳐”란 내면의 소리의 합리화이며, 원칙적인 혁명 정신, 강철의 혁명적 의지, 혁명적 낙천주의가 부족한 것이다.¹⁶⁶⁾(「작열하는 어둠」 449쪽)

허무감에 빠져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자신이 죽은 정세운을 추도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채감은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라’(448쪽)¹⁶⁷⁾라는 성서를 인용하여 인간 행동의 극한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

166) 広告取りだけが、“神の国”をひろめるのに繋がるものではないのだと思いつつも、これは与えられた“革命的課業”を果し得ぬ自分の弱さに対する“逃げ”、合理化であり、原則的な革命精神、鋼鉄の革命的意志、革命的楽天主義の欠如なのである。

의 나라는 곧 혁명이다. 청년 혁명가의 모습은 혁명을 위해 스스로가 사자(死者)가 되고 작열한 어둠 속에서 불꽃을 일으키며 자신을 매장해 사라져 가는 악몽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허무감에 매장되는 자신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에 결국 S 시 조직을 마지막으로 조직을 이탈하게 된다.

S시의 조직은 발족한 지 1년 정도 지난 ‘북’과 연계된 비밀조직이다. 표면적으로 조직으로 나서지 않고, 지도 조직이었던 일본 공산당과도 관계가 없었다. 재일조선 경제인이 조직하여 미국이나 이승만과 싸우고 있는 ‘북’으로 자금 조달하고, 미국의 군사 기지와 ‘조선’으로 출격하는 기지가 있는 일본의 상황을 파악하는 일을 했다(439쪽)고 조직의 성격을 기술하고 있다.

‘나’가 S시에서 조직 활동을 결심한 것은 혁명적 사업에 연관된 것이고, 무엇보다도 글을 쓸 수 있는 시간도 생길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나’는 3, 4년 전에 고향 제주도에서 일어난 게릴라 봉기와 도민의 학살에 큰 충격을 받아, 4·3을 소재로 기관지 창간호에 소설 형식의 글을 쓰고 있었다.

조직의 기관지에 ‘나’가 쓴 일기 형식의 「죽음의 섬」을 읽은 적이 있는 양철승은 제주도 4·3에 대해 자신들을 대신해 써 줄 것을 부탁한다. 양철승은 실제 김석범이 비밀리에 갔던 센다이 조직에서 함께 활동했던 친구 고헌능(高學能)¹⁶⁸으로 전쟁 전 황국 소년이던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가지고 혁명에 충실하려는 의지를 가진 정직한 청년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양철승은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나’의 고민을 듣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활동했던 ‘나’에 대한 위로와 자신의 과거에 대한 회한을 이야기한다.

“네가 누구보다도 고향 제주도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인간이라는 건 알고 있어. 일제 강점기에는 “작은 민족주의자”로 반일 민족독립 사상이 투철했었지. 나는 “친일”, “황국” 소년이었으니까. 해방 후, 너를 만나고 나서 전쟁 전 “친일”을 한 인간을 호되게 비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는 충격이었어. 정말, 나와 같은 나이인데, 너 같은 인간이 일본에 있는 것도 놀랐어.....”¹⁶⁹(「작열하는 어둠」 452쪽)

167) 金石範, 「在日の虚構」, 『新編「在日」の思想』, 講談社, 2001, 87쪽. 二十代になった頃の私の好きなことばに、聖書のなかの“死者をして死者を葬らしめ、汝は行きて神の国をひろめよ”(新約、ルカ伝九章)というのがあった。

(中略)これは人間の行動の極限の緊張と美を現わしたことばのようにも思えた。

168) 金石範, 『金石範《火山島》小説世界を語る』, 右文書院, 2010, 163쪽.

169) きみがだれよりもふるさと濟州島を愛し、民族を愛し、祖国を愛している人間なのを知っているよ。日帝時代は“小さな民族

해방 후 친구 양철승과 ‘나’는 오사카에 있는 일본 공산당 산하 조직에서 활동했다. 당시 일본 공산당은 중앙 지도부의 분열과 분과 투쟁의 격화, 극좌 모험주의적 노선, 동지 간의 끊임없는 의심과 불신이 조직의 말단에까지 미치고 있었고, 재일조선인 조직원들은 반미, 반이승만의 조국 방위 투쟁과 조직이 통일적 태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혼란한 상태였다.(442쪽) 그래도 재일조선 조직원이 당을 나온다는 것은 반혁명적 도망과 배신행위로써 정치 생명을 끊는 것으로 생각했다.

나는 사회주의를 향한 강한 지향과 함께 허무적인 사상이 짙어서 좀처럼 발을 빼기가 어려웠다. 조선인 학생 당원들이 나의 입당을 축하하는 파티도, 내가 이런 대답 되는 사상을 가진 채 입당한 사정을 생각해서 해준 것이다.¹⁷⁰⁾(「작열하는 어둠」 439쪽)

주인공은 허무의식이 가득한 자신이 진정한 사회주의자인가 하는 심리적 번민 속에 사상적 확인을 위해 비밀조직 활동에서 참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맞고 안 맞고 를 거론하는 것은 부르주아적 자유주의 사상으로 생각한다. 자신이 ‘혁명’을 위해서 간접적인 역할이라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조직 이탈을 주저한다.

새로운 조직에 막 발을 들여놓고, 그것도 두세 달 만에 그곳을 다시 떠나는 것은, 완전히 정치 생명을 잃은, 혁명 전선으로부터의 탈락분자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조국의 당과 조직은 직결하는 것이다. 무서운 일이다.¹⁷¹⁾(「작열하는 어둠」 450쪽)

조국의 당과 직결되는 S시의 새로운 조직에서 다시 벗어나는 것은 완전히 정치생명을 잃고 혁명 전선에서 탈락분자가 되는 것으로 재일조선인인 ‘나’의 존재 의의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主義者”で、反日民族独立思想の持柱だ。おれは“親日”、“皇国”少年だったからなあ。解放後、きみに会ってから、戦前の“親日”をした人間に対する激しい批判を聞いたときは、ショックだったよ。実際、おれと同じ年頃で、きみみたいな人間が日本にいるのに驚いたんだ……。

170) 私は社会主義への強い志向とともに、虚無的な思想が濃厚だったから、なかなか踏み切りがつかなかったのである。朝鮮人学生の党员グループが私の入党を祝してパーティーをやってくれたのも、私のこの相克する思想の中からの入党という事情にもよるだろう。

171) 新しい組織についたばかりで、それも二、三ヶ月でそこからふたたび離れることは、もう完全に政治生命をなくした、革命戦線からの脱落分子となるのだ。しかも祖国の党に直結する組織からの。恐ろしいことだった。

조직에 “반대” 할 용기를 얻게 된 것도, 아직 3개월짜리로 조직의 일에 깊이 관여되지 않은 것, 양철승이 친구라는 것도 있을 것이다. 인간적인 신뢰 관계가 성립돼 있었던 것이다. 지하조직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가 멤버에서 탈락해 그것을 다른 곳에 누설할 때는 어떻게 될까.¹⁷²⁾(「작열하는 어둠」 455쪽)

양철승은 조직을 떠나서 혁명은 없는 것이고, 당은 혁명의 구현자,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자로 당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조직에서의 이탈은 혁명 전선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진 인물이지만, 친구의 사상적 흔들림을 수용해주고, 사상보다 친구와의 인간적 신뢰를 우선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작열하는 어둠」에서는 재일조선인 청년 세 사람이 이데올로기 사상을 실천하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나’는 지방의 조직에서 활동하며 4·3에 관한 글쓰기를 위해, 정세운은 과거 민족운동에 대립각에 있었던 시간에 대한 반성으로, 양철승은 황국소년이었던 과거에 대한 회한으로, 이렇게 세 사람은 민족주의 의식을 가지고 조직적 실천 운동에 참여하고자 조직원으로서 각자의 방식으로 격렬하게 조직 활동을 하였다.

작가는 재일조선인 청년 세 사람의 인간적 결속과 민족주의 의식을 가지고 서로에게 위안되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혁명에 뛰어들었던 재일조선인의 꿈과 이상은 허무감만이 남는 것으로 귀결하고 있다. 정세운은 니힐리즘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고, 혁명적 실천에 앞장섰던 양철승은 조직의 실천적 활동가로 혁명운동에 앞장서 북송선을 타지만 이후 행방불명으로, 어둠 속에서 작열하게 한순간의 불꽃처럼 피웠다가 사려져 버린 형상으로 이데올로기의 허망을 표현하고 있다.

5. 문학으로의 전향

김석범에게 사회주의 혁명 사상을 가지고 글을 쓰는 것은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는 길이었다. 조직에서 실천적 운동가로서 활동했지만, 조총련이 북한의 지원을 받게 되

172) "反"組織的な勇氣を持ち得たのも、まだ三ヶ月で組織の仕事に深入りしていなかったこと、梁哲承が親友ということもあっただろう。人間的な信頼関係が成立していたのである。地下組織の秘密を知っている者が、そのメンバーが脱落してそれを他へ洩らしたときは、どうなるか。

면서 조직과 조선학교의 이념이 변화하고 문학 활동에 규제가 따르는 것을 깨닫게 된다. 김석범은 조직 활동가의 길이 조국을 위하는 길이 아님을 인식하게 된다.

김석범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상의 변화와 관계없이 조직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문학적 정치 활동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조직 안에서 펼치던 정치 활동을 본격적인 문학 활동으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게 된다. 오은영은 김석범이 조직에서 쓰는 일을 담당하였지만, 조직에 속한 채 글을 쓰는 것에 제한을 느끼고 결국 조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조직에 속한 정치 활동부터 본격적인 문학 활동으로 ‘전향’하였다¹⁷³⁾고 언급하였다.

정대성에 의하면, 조총련은 조직에서 활동하던 문학인들의 모임을 분파 운동으로 간주하여 이를 금하였고, 개인의 다양성 (특히 일본어 사용) 주장을 허무주의 내지는 패배주의 등으로 낙인찍어 단죄하였다. 그것은 제 3세계의 민족어 회복 운동과 북한의 유일 지도체계 강화에 발맞춘 것인데, 그 방침은 작가들과 대중들을 조직에서 이탈 시켜 도리어 조직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요인이었다. ¹⁷⁴⁾

글을 쓰는 일을 하면서 조직 활동을 하고자 했던 김석범도 조직 활동을 하면서 조직 내부에 관한 일에 객관적인 태도를 밝히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조직에 속한 채, 글을 쓰기에는 너무 제한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조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조직에서 활동한 경험이 소설의 소재가 되고, 현실 정치를 반영한 작품에서 혁명가로서의 좌절을 작품으로 표현하기 시작한다. 조직에 대한 비판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조직에서 이탈 과정을 겪으면서 가능하게 되었다.

김석범의 정치적 신념은 소설 속 주인공 ‘나(私)’가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자세에서 드러나고 있다. 사회 참여 문학의 성격을 가진 작품에 대한 이해와 작가 의식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근간이 되는 언설(言說) 공간인 ‘조직’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가능하다. 언설 공간의 주체가 되는 재일사회 ‘조직’이 작품 안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작가의 작품 내부 세계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조직에서 나온 이후, 본격적으로 당과 조직에 비판적 시각을 보이기 시작한 작품이

173) 吳恩英, 「金石範文学とその政治的背景」, 『日本文化学報』 第43輯, 2009. 277쪽. モノを書く仕事に携わっていたからこそ、組織に属することができたのではないか。しかし、組織に属したまま、モノを書くことはあまりにも制限があったため、結局組織を離れるしかなかった。つまり、組織に属しての政治活動から本格的な文学活動に「転向」したと言える。

174) 정대성, 「김석범 문학을 읽는 여러 가지 시각 - 그 역사적인 단계와 시간적 배경」, 『일본학보』 제66집, 2006. 382쪽.

「도상」(1974) 「왕생이문」(1979) 「취몽의 계절」(1982) 「작열하는 어둠」(1993) 등이다. 이들 작품에서 작가는 통일된 조국을 지향하며 민족주의적 시각을 가진 주인공을 통해 재일사회 조직에 대한 회의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조직 이탈과 함께 작가의 시선을 조국 한반도에 고정하고, 한국에 대한 냉철한 시각을 작품의 주제로 다루고 있다.

『계간삼천리』 4호에 발표한 「김지하의 양심선언을 읽고」에서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¹⁷⁵⁾을 소재로 사회 참여의 성격을 지닌 작품을 발표하였다. 이는 한국정보부가 재일조직에서 이탈한 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존재가 피부에 닿고, 국적을 ‘조선적’에서 ‘한국적’으로 일종의 전향을 유도한 공작이 김석범을 포함한 조총련 활동가였던 사람이나 지식인들에게 행해졌다¹⁷⁶⁾는 1970년대 상황이 작가의 작품 창작의 소재가 된 것으로 보인다.

1978년 8월 『스바루』에 발표한 「지존의 아들」은 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대학을 중퇴하고 배경도 돈도 없는 ‘장산도’라는 인물이 잡지에 실린 대통령 양자 한세봉과 자신이 닮은 것을 알게 된다. 장산도는 한세봉 행세를 하며 지방 권력자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한다. ‘지존의 아들’을 등에 업은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선거 개입 등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부정부패 문제를 풍자하고 있다.

작가가 구체성을 가지고 한국에 관심을 보이게 된 데는 조총련 조직의 이탈자로서 북한과의 관계를 끊음으로써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재일조선인 조직이 자신이 꿈꾸던 사회주의의 본모습은 사라지고 최고지도부만의 원칙과 조직의 민낯이 드러나자 냉담한 자세를 취한다.

자신이 겪은 조직 내외의 상황과 한국 정부의 재일조선인 처리 문제 등이 작가에게 충분한 관심의 소재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의 체제나 이념에 긍정이든 부정이든 언급하기보다는, 재일사회 조직과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과 친일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진다.

조총련 조직에서 활동했던 김석범은 1957년 「까마귀의 죽음」을 발간할 때, 조직의

175) 안병욱, 「민청학련 항쟁의 전개와 역사적 의의」, 『민청학련-유신독재를 넘어 민주주의를 외치다』, 민청학련계승사업회, 2018, 619쪽. 민청학련은 유신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대대적인 반독재 학생봉기를 계획하고 주동했던 일군의 대학생과 민주인사들을 일컫는다. 1974년 4월 반유신 항쟁을 준비하던 주동자들은 시위 때 배포할 선언문을 작성하면서 전국적인 규모의 강력한 민주화 투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라는 명칭을 내세웠다.

176) 宋惠媛, 「至尊の息子 解題」, 『金石範 作品集 II』, 平凡社, 598쪽.

비준 없이 출판을 강행하고 위 수술로 3개월 입원한 다음 해 조직을 떠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조직을 이탈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사회주의 이념과 실천에 대한 회의, 즉 소극적 의미에서 ‘전향(轉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조직 내에서 정치적 활동가의 길을 포기하는 것은 한글로 창작 활동을 포기한다는 의미이다. 작가는 일본어로 조직 외부에서 자신의 사상이나 비판 의식을 공론화하는 태도로 개심(改心)을 하게 된다.

이한창은 재일조선인 조직이 김석범을 포함한 문학인들에게 『민주조선』을 발간하여 동포 작가들에게 발표의 장을 제공하고, 한글 창작을 요구하여 민족문학의 정통성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명분으로 작가들을 통제함으로써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저하했으며 자유로운 잡지 발행을 탄압하여 동포 문학 발전이 침체한 원인이 되었다¹⁷⁷⁾고 했다.

하상일의 글에 의하면, 조총련과 재일한국·조선 문학인들의 불화는 1956년 김시종이 주재하던 잡지 『진달래』에서 조직의 획일주의와 교조주의를 비판한 것에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재일조선인의 언어적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채 오로지 북의 지도 노선에 입각한 특정 이념과 조직 강령의 일방적인 복종 강요에 가장 큰 이유가 있었다. 김시종은 이러한 조총련 조직의 요구에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정책발표회」(진달래 15호), 「인디언 사냥」(진달래 16호), 「오사카 총련」(진달래 18호) 등의 시를 발표하여 조총련의 지도 방침에 분명한 반기를 들었다.¹⁷⁸⁾ 이에 조총련에서는 다음과 같은 창작지침을 내렸다.

문학예술가 동맹에는 기관지가 있으므로 작품은 그곳에 발표할 것. 기관지 이외의 잡지를 창간하는 것은 분과활동이다.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조선어로 작품을 쓸 것. 작품은 공화국의 이념을 견지하여 쓸 것. 일본 상황에 휩쓸려, 부르주아적 사상에 오염되어 쓰는 작품은 민족 허무주의이다.¹⁷⁹⁾

조총련의 원칙이 이후 조직에 속해 작품 활동을 하던 작가들의 이탈을 가져오게 한

177) 이한창, 「재일 동포조직이 동포문학에 끼친 영향 - 좌익 동포조직과 동포 작가와의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일본어문학회』, 2000, 121쪽.

178) 하상일, 「김시종과 『진달래』」, 『한민족문화연구 57』, 2017, 70쪽.

179) 한승옥, 「재일동포 한국어 문학작품 자료수집, 정리 및 그 민족 문학적 성격에 대한 연구 - 기초학문 육성지원 사업 과제 결과 보고서」, 한국연구재단, 2004, 26쪽.

요인이 되었다. 김석범을 비롯한 재일조선인 작가들은 조직이 요구하는 교조적 문학에 대항하여 자유로운 창작 세계의 확보를 추구하게 되었고, 조직의 외부로 나오게 되면서 언설 공간의 범위가 조직의 안과 밖으로 확대되었다.

IV. 재일의식과 4·3 소설

1. 재일의 시각에서 제주도

김석범의 제주 여정을 작가의 연보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14살 때 몇 개월 동안 제주에서 생활하며 느꼈던 고향에 대한 인식이 삶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18살 가을 제주 숙모의 집과 관음사에 기숙한 김석범은 자신이 태어난 일본이 고향이 아니라 제주가 고향이라는 의식이 생기면서 조국의 독립을 꿈꾸며 조선의 역사서를 구해서 읽고 한글 공부를 한다. 19세 때 제주에서는 무선 전신국에서 조선 독립을 호소하는 샌프란시스코 방송을 듣던 단파무선 청취사건이 일어난다.

제2차 세계대전 말에 항일운동을 하는 청년들은 제주 무선국에서 매일 밤 “미국의 소리” 방송을 비밀리에 듣고,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불리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이승만 박사가 동포들에게 고한 방송을 듣고 이것에 감명을 받은 김운택 김귀석 등은 일본의 패전과 조국 해방의 기회가 결정적 단계에 들어섰음을 확신하고, 국외 망명동포의 광복 운동에 참여해 헌신할 것을 결심했다. 그들 두 사람은 청진을 경유해서 외국으로 탈출하려 했지만, 1944년 11월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제주도에서 단파방송을 청취한 사람이나 독서회 회원 9명이 체포되어 청진으로 보내졌다. 그들은 8·15 해방 직전까지 청진에 유치되었다. 이 사건을 제주도에서는 <청진단파사건> 이라고 부른다.¹⁸⁰⁾

제주에 있을 때 조선의 독립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던 김상희와 김운제가 체포된 사실을 알고 김석범은 충격을 받게 된다.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탈출하고자 한 김석범은 21세 때 성묘를 이유로 도항 증명서를 받고 제주에서 징병검사(第二乙種 합격)를 받는다. 이후 서울 선학원에서 건국동맹간부로 지하운동을 하고 있던 이석구를 만난다. 이석구의 제자로 청년승으로 변장하고 있던 장용석과 만나 밤새도록 조선의

180) 金泰能, 梁聖宗 譯, 「短波無電聴取事件」, 『濟州島略史』, 新幹社, 128쪽. 第二次世界大戦末期に、抗日運動をする青年たちは、濟州無電局で毎晩「アメリカの声」放送を密かに聴いて、日本が太平洋戦争で不利になりつつあることを知るようになった。そればかりでなく、在米中の李承晩博士が同胞たちに告げる放送を聞くにおよんで、これに感銘した金雲澤、金貴錫らは、日本の敗戦と祖国解放の機会が決定的段階に入ったことを確信し、海外亡命同胞の光復運動に参加して献身することを決心した。彼ら二人は清津經由で外国に脱出しようとしたが、一九四四年十一月、日本の警察に発覚して逮捕されてしまった。これにより、濟州島で短波放送を聴取した者や読書会グループ会員九名が捕まえられて清津に送られた。彼らは八・一五解放の直前まで清津に留置された。この事件を濟州島では〈清津短波事件〉と呼ぶ。

독립을 이야기하였다.

김석범에게 제주는 자신이 ‘일본국민’ ‘황국신민’이 아니고, ‘조선인’이며 제주 사람이라는 민족적 자각을 하게 된 공간이다. 김석범은 제주도가 단순히 고향이라는 의식보다 ‘조선’ 그 자체로 인식하고 이데적 성격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김석범은 자신 내부의 ‘일본인’은 외부적 강요에 의한 것임을 깨닫고, ‘반일사상’을 지닌 민족 의식을 갖게 된다. 재일 2세로 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라지 못한 통한의 마음은 망국, 낭인의 후손이라는 생각으로 잃어버린 조국의 독립¹⁸¹⁾을 꿈꾸었다.

조선이 독립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피식민지인 자신을 해방한다는 것이 젊은 시절 유일한 희망이었지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8월 15일이 찾아왔지요. 그것은 더는 바랄 것 없는 대단한 기쁨이었죠. 그러나 거기에서 급격하게 니힐리즘에 빠져들었어요. 왜냐하면 조선 독립은 달성되었으니까. 별로 내가 독립을 말하고 나서지 않아도 다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종의 낙관적 책임회피의 기분이 들었어요.¹⁸²⁾

김석범은 일본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정작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자신의 무기력으로 니힐리즘에 빠지게 되었다. 자괴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제주도 4·3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허무감은 위물(僞物)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제주는 김석범에게 사상을 형성하게 하는 공간으로 의식 속에 존재하던 고향이었다. 사건에 관한 충격으로 ‘고향 상실자’인 자신에게 ‘잃어버린 것’ ‘없는 것’을 탈환하려는 의지를 갖게 하고 소설로 사건을 재구성하게 된다.

이연숙은, 김석범이 ‘고향’을 상상력의 세계에서 재창조하고, ‘허구’의 통로에 의해서만 ‘고향’에 이를 수 있다는 자기모순이 김석범을 번민에 빠지게 했는지도 모르지만, 김석범은 이러한 번민에 안주하지 않고, 그리고 ‘허구’를 ‘어쩔 수 없는 차선택’이라 보

181) 金石範, 「濟州島と私」, 『新編「在日」の思想』, 講談社, 2001. 219~220쪽.

182) 金石範, 「金石範と金時鐘、ふたりの朝鮮独立体験」 『金石範《火山島》小説世界を語る』 右文書院, 2010, 239쪽. 朝鮮の独立のためにできることがあれば、なんでもやるし、それによって被植民地者である自分を解放するという、それが私が若いころの唯一の望みだったわけです.

ところが意外にも早く八月十五日がやってきた。それはもう、喜びはふつうじゃなかったですよ。しかしそこから急激にニヒリズムに陥ったんです。なぜかと言いますと、「朝鮮の独立は達成されるんだから、べつに俺が独立と言わなくても皆がそれをやるんじゃないだろうか」というある種の楽観的、責任回避的な気持ちが出てきたんです。

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허구’에 의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세계가 있음을 명료히 인식¹⁸³⁾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재일조선인 김석범은 소설 속에 가공의 공간 ‘제주도’를 구상하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4·3을 소재로 글을 쓰게 된다.

‘사회주의 조국’ 건설이라는 이념 이전에 ‘제주도’라는 ‘고향’의 생생한 형상을 지니고 있고, 그 형상을 단서로 인간과 사회의 이상을 그 나름대로 실현해 나가고자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일본의 패전-해방이라고 하는 사실보다도, 오히려 그 직후에 나타난 한반도의 역사적 동향이라고 생각한다.¹⁸⁴⁾

4·3을 소재로 김석범이 일생에 걸쳐 작품을 쓰게 된 이유를 다케다 세이지(竹田靑嗣)는 김석범 자신이 민족주의자 본질이 봉쇄된 ‘재일’이라고 하는 불투명한 세계에 갇히고, 역사의 악의에 대한 맹렬한 부정의 의지를 표현하고자 함이라고 했다.

김석범은 제주도를 ‘조선’의 모순을 집약한 곳으로 인식하고 제주에서 벌어진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에 의한 학살과 탄압에 분노한다. 재일조선인으로서 고국의 해방이 가져온 삶의 환희와 희망이 빼앗기게 된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제주도 4·3을 문학적 형상화하며 자기 확인을 하고자 하였다.

김석범은 많은 작품에서 4·3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건을 체험하지는 않았다. 1949년 이른 봄, 제주도에서 학살을 피해 대마도로 밀항해 온 친척을 마중 나갔다. 그곳에서 숙모와 고문에 의해 유방이 없는 27, 8세 정도의 여인을 만나고 참상에 관한 증언을 듣게 되었다고 한다.¹⁸⁵⁾ 이때의 충격이 작가의 평생을 지배하게 된다.

내가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은, 제주도 4·3 사건을 주제로 하면서부터인데, 그 비참한 사건을 마주하고 그것에 압도되어 짓밟히고 으스스하지 않을 어떤 방법이 필요했다. 직접 체험하지 않은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함과 공포의 현실에 맞서서 사건의 사실적 재현이 아니라, 완전한 허구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 바꾼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이른바 허구의 도가니에서 현실을 해체하고 재구성해서 하나의 새로운 공간, 질서를 만들지 않는 한, 그 사건의 진실성이 가진 압도적인 생생한 모습을 떨쳐버릴 수 없다. 즉, 사실을 뛰어넘은, 현실에 대응하는 허구 속에서 사건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는 구원받았다.¹⁸⁶⁾

183) 이연숙, 「제주, 오키나와의 투쟁의 기억 - 까마귀와 소라게 이야기」, 『耽羅文化』 31호, 2007, 49쪽

184) 竹田靑嗣, 『〈在日〉という根拠 李恢成・金石範・金鶴泳』, 國文社, 1983, 94쪽.

185) 金石範, 『金石範《火山島》小説世界を語る』, 右文書院, 2010, 96쪽.

186) 金石範, 「濟州島と私」 『新編「在日」の思想』, 講談社, 2001, 207~208쪽. 私の小説の書きはじめは、濟州島四・三事

김석범이 고향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은 허구의 세계를 빌어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저항 의식을 표현하는 길이었다. 그는 증언과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자신과 사건을 현실에서 거리를 두며 상상력을 더하며 소설에서 표현해 나갔다. 4·3에 관한 글쓰기는 자신의 삶을 구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구경꾼입니다. 외부인이지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체험하지 않았지만, 쓰지 않을 수 없어서 「까마귀의 죽음」 등을 썼으니까요..... 어떤 의미에서 자신이 쓴다고 하는 행위를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중략) 쓰는 사람은 그래도 구원받는 것이지요.¹⁸⁷⁾

작가는 현실을 직접 목격했다면 현실에 얽매이게 되고 객관적인 글쓰기가 불가능했을 것이며, 허구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현실과의 거리를 두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그러한 장면에 직면한 인간은 소설을 쓸 수 없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픽션은 현실을 비현실화 하는 것입니다. 비현실화 하는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상상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중략) 현실을 소설화할 필요가 없지요. 픽션은 어려워요. 체험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내가 소설을 쓸 수 있었던 거지요.¹⁸⁸⁾

다케다는 김석범이 체험하지 않은 제주도 사건을 쓰는 것은 제일의 공허와 결여에 대한 자기 구제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내적 동기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았다. 김석범이 제주도에 강인하게 살아내고 있는 인간 삶의 방식의 ‘의미’를 조명하는 데 있어서

件をテーマにしたものだといえるのだが、その悲惨な事件に立ち向かうには、それに圧倒され、踏みつぶされないだけの何らかの方法が必要だった。直接の体験者でない私は、ことばの尺度を突き抜けてしまった悲惨と恐怖の現実
に立ち向かうには、事件のリアルな再現というものではなく、完全な虚構でかわすしかなかった。かわすということ
ばは適切でないが、いわば虚構のつぼで現実を解体し、再組織して、一つの新しい空間、秩序をつくらぬ限り、そ
の事件の事実性の持つ圧倒的な生の影を振り切ることができない。つまり、事実性を超えた、しかも現実に対応で
きる虚構なかで、事件の状況が語られるほどに、私は救われる。

187) 金石範, 『金石範《火山島》小説世界を語る』, 右文書院, 2010, 48쪽. 私は見物人ですよ。部外者なんです。それはしかたないことだと思います。現場で体験しなくても書かざるをえないから「鴉の死」などを書いたわけで.....ある意味で自分の書く行為というものを否定しないといけないのですが.....(中略)書く人間はそれでも救われるわけです。

188) 金石範, 앞의 책, 56쪽. 実際にああいう場面に直面した人間は小説は書けないです。そこを越えられない。フィクションは現実を非現実化するわけです。非現実化する力がなかったらだめなんです。それは想像力でやるのですが。(中略)その現実を小説化する必要がない。フィクションは難しいです。体験しなかったということがかえって私にとっては、小説を書くことができ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

‘재일’을 비추어 보고, 거기서 모호한 재일의 현실을 다시 한번 윤곽을 잡은 것으로 자신의 생의 의미를 찾고자 한 것¹⁸⁹⁾으로 보았다.

1988년 11월 64세 김석범은 42년 만에 제주를 방문하고 22일간 체류한다. 이때의 경험을 「현기증 속의 고국(眩暈の故國)」(『世界』 9~12월호)을 발표한다. 1996년 「화산도」 취재를 겸한 ‘한민족문학인대회’에 참가할 목적으로 한국 방문하고 20일간 제주에 체류한다. 1998년 4·3사건 50주년 국제심포지엄 참가와 2001년 4·3 유적지를 방문하고 나서 「고난의 끝 한국행(苦難の終りの韓国行)」(『文學界』 11월호)을 발표한다.

2007년 4·3희생자 유골 발굴 현장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본 4·3 학살의 유골들(私は見た、四·三虐殺の遺骸たちを)」(『스바루』 2008.2)을 발표하게 된다. 하야시 고지는 김석범이 상상에 의한 4·3의 공간과 대면은 작가의 4·3소설 속 주인공과의 해후(邂逅)이며 김석범에게 해방(解放)의 의미¹⁹⁰⁾라고 했다.

김석범이 4·3을 문학으로 형상화한 데에는 개인적인 자기 구제나 저항 의식 이상으로 자신을 포함한 재일조선인의 의식 속에 전쟁과 권력에 의한 민족과 조국의 상처를 환기하고 자신이 ‘왜 재일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었다.

2. 4·3 소설의 원형과 작가의식 형성

1950년대 재일조선인 조직에서 활동하던 김석범은 4·3에 관한 증언과 자료 조사를 일기 형식의 메모로 기록하였다. 이것을 제재로 재일조선인의 관찰자적 입장에서 4·3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 「1949년 무렵의 일지에서- 죽음의 산의 일절에서」이다. 이 작품은 1951년 김석범이 김종명(金鍾鳴) 등과 창간한 『조선평론』(12월호)에 박통¹⁹¹⁾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였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직후부터 재일조선인들은 붓물 터지듯 민족문화운동을 전개했다. 식민지 시대에는 엄격하게 제한되었던 이들 문화 운동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은 당시 최대 재일조선인 대중 단체였던 재일본조선인연맹(조련)에 속한 지식인들이었다.

189) 竹田青嗣, 앞의 글, 117쪽.

190) 林浩治, 「金石範文学論-在日の実存を濟州島に結ぶ-イデーとしての濟州島」, 神奈川大学評論 83編, 2016, 186쪽.

191) 宋惠媛, 앞의 글, 560쪽. 朴樋(パクトン)と筆名は, 朝鮮語の飯びつ(パプトン)にかけ, 「大喰らいの約立たず」という意味を込めてつけたという. ‘박통’이라는 필명은, 밥통을 끼고 앉아 밥만 축낸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한다.

이 시기에 『조련문화』 『고려문예』 『조선문예』 등 한글과 일본어 동인지나 잡지가 많이 간행됐다. 그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1946년 4월에 창간된 일본어 종합잡지 『민주조선』이다.

『민주조선』은 1950년 7월 GHQ와 일본 정부에 의해 조련이 강제 해산되고 약 10개월 후 종간을 맞이했다. 그 후 이것을 이은 일본어 잡지로 1951년 오사카에서 창간한 것이 『조선평론』이다. (중략) 창간호와 제2호 편집 겸 발행을 맡은 것은 김석범이다.¹⁹²⁾

작품의 제목이 「죽음의 산」 일절에서 발췌했다는 것에서 볼 때, 아마도 「1949년 무렵의 일지에서」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죽음의 산」이라는 첫 작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너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해. 오사카 협회조직의 기관지에 실린 일기 형식의 소설을 읽었어. 『죽음의 섬』을 장기천이 가져다줘서. 글을 쓰려면 자유로운 게 좋을 거야. 제주도 4·3에 관한 것을 써 줘 우리를 대신해서, ¹⁹³⁾(「작열하는 어둠」 455쪽)

「작열하는 어둠」에서 친구 양철승이 주인공 ‘나’에게 조직의 외부에서 자유로운 상태가 되어 4·3에 관한 글을 써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다. 「죽음의 섬」·「죽음의 산」 제목에 차이는 있지만, 김석범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조직 내의 잡지에 발표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발표된 작품으로는 「1949년 무렵의 일지에서」가 작가의 대표적 단편 「까마귀 죽음」과 오랜 시간에 걸쳐 창작해 온 장편 「화산도」탄생의 원점이라 할 수 있다. 이한창은 이 작품은 「까마귀 죽음」을 발표하기 이전에 4·3을 작품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구상을 위한 메모 형식이면서 창작 노트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까마귀 죽음」이나 「화산도」와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 속에 나타나는 주인공들의 유형이 엇

192) 宋惠媛, 앞의 글, 560쪽. 一九四五年八月一五日の朝鮮解放直後から、在日朝鮮人たちは堰を切ったように民族文化運動を展開した。それは、植民地時代には厳しく制限されていたものだった。これらの文化運動の主な担い手となったのは、当時最大の在日朝鮮人大衆団体だった在日本朝鮮人連盟(朝連)に属する知識人たちであった。

この時期、彼/彼女らは、『朝聯文化』『高麗文芸』『朝鮮文芸』等、朝鮮文あるいは日本文の同人誌や雑誌を数多く刊行した。その中で、現在、最もよく知られているのは、一九四六年四月に創刊された、日本文の総合雑誌の『民主朝鮮』であろう。

『民主朝鮮』の発刊は、金達寿をはじめとする朝連系知識人たちによって四年間続けられたが、一九五〇年七月、GHQと日本政府による朝連の強制解散の約10ヵ月後に終刊を迎えた。その後、同誌を引き続く日本文雑誌として一九五一年に大阪で創刊されたのが、この『朝鮮評論』である。(中略)創刊号と第2号の編集兼発行人を務めたのは、金石範であった。

193) きみは書けると思うんだ。大阪の協会組織の機関誌に載った日記風の小説を読んだよ。『死の島』を。蔣基天が持ってきてくれたんだ。モノを書くのには、自由であったほうがいだろうと思うよ。濟州島のことを四・三事件のことを書いてくれ。われわれに代って。

보이며 당시 한반도의 정세와 4·3에 대한 그의 현실 인식과 사건의 기록에 대한 사명감 등의 관점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¹⁹⁴⁾고 하였다. 이 작품에 대한 분석은 작가의 4·3 소설을 비롯한 김석범 문학 전체상을 이해하는데 출발점이 된다.

작품 속 주인공인 ‘나’는 사건이 일어나고 1년 정도 지난 학살이 가장 심했던 시점에 제주도의 현장을 찾은 재일조선인이다. 이후의 4·3 소설 속 주인공 설정과 비교하면 작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 제목의 ‘1949년’은 시기적으로 제주도에서 무장대 세력은 약해지고, 북촌 주민 학살 사건 등 집단학살이 자행되었던 시점이다. 토벌대가 산을 빗질하듯 무장대 색출 작전을 펼쳐서 인명 피해가 가장 심했던 선무 활동기에 접어든 시기로 추정된다.

재일조선인인 ‘나’의 눈에 비친 첫 고국의 모습은 외국 깃발과 군함이 정박해 있고 옛 모습은 퇴색된 쓸쓸한 부산항의 풍경이다. 배가 항구를 떠나 제주 해협에 도착했을 때 아비규환의 제주의 현실과 마주한다. 참혹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도 하나의 감상이고, 가만히 참고 바라보는 것도 감상일 것이다. 무관심이 하나의 자기방어’(552쪽)라고 주인공 ‘나’는 생각한다. 죽음의 섬으로 변해버린 고향 제주를 바라보는 재일조선인의 시선이다.

작중에 작년 여수 순천 사건(1948년 10월)의 여파도 지금은 무뎌지고 있다는 시간적 배경과 함께, 부산항에서 입항하여 5일간 머문 고국의 첫 인상은 외국 깃발과 외국 군함으로 위압적인 분위기의 공간적 배경이 설정되어 있다. 배를 타고 마주한 제주도의 모습은 작가가 어릴 적 잠시 머물던 때의 자연 풍광을 회상하며 그리고 있다.

옛날 명성 자자했던 알코올 공장이랑 오름 위에 있는 빨간 기와의 기상대가 왼쪽에 보인다. 갈매기가 높이 날고 있다. 안테나가 높고 전선이 펼쳐져 있다. 전선이 가늘게 흔들리는 저편 구름에 유유히게 한라산이 솟아 있다.¹⁹⁵⁾(「1949년 무렵의 일지에서」 553쪽)

‘나’는 통행 금지가 풀리고 6시가 되어 삼엄한 군경이 기다리고 있는 제주에 상륙한다. 검열을 마치고 나서 처음 눈에 들어온 풍광이 알코올 공장과 오름, 저 멀리 한라산이다. 여기에 노인과 아이들뿐인 거리, 겁에 질린 얼굴과 느린 발걸음, 고요함을 깨

194) 이한창, 「김석범의 「1949년의 일지에서」에 관한 고찰」, 『日本語文學』 제54집, 2012. 289~290쪽 .

195) 昔のアルコール工場の名残りや、丘の上に立っている赤煉瓦造りの气象台が左の方に見える。鷗が大きく飛んでいる。アンテナが高く電線が張っていた。電線の細々と走る遙るか彼方の雲あい、悠々と漢拏山が聳えている。

우는 트럭 소리와 총성으로 4·3 현장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이렌 소리와 비행장으로 향한 트럭의 움직임은 곧 학살이 일어날 것을 암시한다. 이런 광경이 익숙한 듯 수형자들의 가족과 구경꾼들은 체념한 듯 처참한 광경을 확인하려고 출입 금지 바로 앞까지 가서 울타리 안에서 우왕좌왕하는 군경을 구경거리로 삼고 있다.

작가는 ‘권력을 가진 구경거리’(556쪽)라는 표현으로 언제라도 울타리를 밟고 나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공권력의 횡포를 폭로하고 있다. 군중 속에서 수형자의 어머니가 울부짖으며 뛰어나오자 노파에게 군경은 기관총을 쏜다. 군경은 죽은 어머니의 시체를 보며 울부짖는 젊은 여자의 가슴에 날카로운 총검을 들이대고 이어 총성이 울린다. 재일조선인 ‘나’의 눈을 통해 마치 다큐멘터리의 영상을 설명하듯 한 걸음 뒤에서 사건의 현장을 묘사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사형 집행이 끝나고 지켜보던 사람들은 다시 냉정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다. “총성스러운 대한민국 신민 제군! 법은 신성해야만 한다. 법은 신성불가침하다. 거룩하신 이승만 대통령께서 방송하셨다. 제주도민은 모두 빨갱이이다. 전멸소탕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이다. 제군! 제군은 양민이 되어야 한다.”(558쪽)는 사령관의 연설에 도민들이 교육된 것이 아니다. 참혹한 현실이, 경험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나’는 생각한다. ‘작은 섬 주민들의 피폐한 힘으로 더 이상의 싸움은 기적이다. 조국의 자유와 통일을 이렇게까지 방해하고 박멸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554쪽)라는 ‘나’의 푸념으로 작가는 역사적 사건의 현장을 고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작품에서 재일조선인인 주인공은 관찰자의 입장에서 충격과 절망의 심정을 가진 채 방관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4·3을 관망하고 있다. 사건에 관한 증언을 바탕으로 상상의 속 수난의 공간 안에 자신과 흡사한 인물을 배치하고 있는 것은 이후에 발표된 김석범의 4·3 소설 속 수난의 현장에서 온몸으로 체험하고 겪어내야 하는 인물과 차이가 있다.

이것은 ‘나’라는 아주 소극적인 인간의 눈을 통해서 본 보잘것없는 한 현실입니다. -제주도 사건의 한 장면- 「죽음의 산」의 한 구절에서 발췌해서 앞뒤 맥락이 뒤죽박죽입니다만, 그래서 우선에 「1949년 무렵의 일지에서」로 했습니다. 이것은 일기도 기행문도 아닙니다. 말하자면 작문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¹⁹⁶⁾(「1949년 무렵의 일지에서」 551쪽)

‘소극적인 인간’이라는 표현으로 죽음의 공간으로 변해버린 제주의 실제 모습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고백에서 시작한다. ‘일기’가 아니라는 것은 작품 내용이 본인이 겪은 일이 아니라는 것, 허구에 의해 만들어진 내용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허구성을 가지고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자 한다는 의미이다. ‘기행문’이 아니라는 것은 소설 속 4·3 공간이 자신이 체험한 이야기가 아니라, 상상에 의해 구성된 하나의 세계 안에 숨어있는 진실을 문학으로써 고발한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배를 타고 제주 해협에 도착한 주인공의 눈에 비친 고향 제주의 모습은 아비규환의 현장 그 자체였다. 운 좋게 자신이 그 불타고 있는 마을의 주민이 아니라는 안도의 심경은 철저한 방관자의 입장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 그 방관은 곧 체념으로 이어진다.

나는 피스톤의 단조로운 굉음에 감정의 끈을 놓지 않은 채 멍하니 있었다. 앞에는 하나의 비극이 펼쳐져 있다. 나는 어둠의 바닷속으로 곧장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절망을 느꼈다. 감상은 인간의 깊숙한 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샘이 있어서 의지의 틈을 엿보고 솟아오를지 모른다. 모든 것에 관심을 잃은 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무관심이 적어도 현실을 방어하는 하나의 방법일지도 모른다. 그에게 그것이 ‘보호색’일지도 모른다. 그것으로 족하다.¹⁹⁷⁾(「1949년 무렵의 일지에서」 552쪽)

비참한 현실 앞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현실 앞에 애써 무관심해지는 체념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처형장의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비극을 바라보는 호기심도 없고, 처형장에서 스며나는 탄성이나 탐욕에 빛나는 잔인한 눈빛도 아무런 반응 없이 바라만 보는 자포자기 상태 인간의 모습이다.

“울어? 이놈! 농업학교 모르냐?” 사형 수용소를 떠올리면 아이들도 울음을 그치게 하는 전율과 혐오는 무기력과 무표정으로 섬 전체에 병균처럼 전파되어 있다.(554쪽)

196) これは「私」という全く消極的な人間の眼を通じて見られたささやかな一現実であります—濟州島事件の一コマ—。「死の山」の一節から抜きとったために前後の脈絡のチグバグなものになりましたが、それで仮りに「一九四九年頃の日誌より」としました。これは日記でもなければ紀行文でもありません。いわば作文という位のものです。

197) 私はピストンの単調な轟音に、感情のあやをくまなく放散させていた。前には一個の「悲劇」がある。私はまっ暗闇の海の中を、まっすぐに落ち込んでいくような絶望を感じた。感傷は、人間の奥底に座を占めている泉であって、意志の隙間をかいまみて湧き出てくるのかしれない。凡ゆるものに関心を失った魂とは何なのだろう。無関心がせめて現実を防禦する、一つの方法かも知れない。彼にはそれが「保護色」かも知れない。それでよかろう。

고 표현하고 있다. 공포와 체념이 공존하는 현장에 파계의 대상으로 부각하며 등장한 것이 까마귀이다.

까마귀의 등장은 당시 제주 생태계에 까마귀가 많이 살고 있었다는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도 보이지만,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과 대비되는 활개 치며 날아드는 까마귀의 모습은 사건의 참상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소재로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파계의 대가를 한 몸에 받듯이 이 불운한 검은 새가 소리를 내고는 날아 올라갔다. 나의 시선은 지상에서 떠나 있었다. 사람들의 일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 인간으로부터 영원히 증오받는 숙명을 짊어진 가엾은 새의 날갯짓이 묘하게도 넉넉히 암시하고 있는 듯하다.

(중략) 인간의 죽음과 저주를, 슬픔과 절망을 축원하기 위해서 황천에서 보낸 검은 죽음의 사신이 무수한 까마귀로 변하여 춤추고 있는 것 같다.¹⁹⁸⁾(「1949년 무렵의 일지에서」 556~557쪽)

작가는 까마귀를 죽음의 사자로 등장시키며 제주도의 암울함을 까마귀로 상징하여 표현¹⁹⁹⁾하고자 하였다. 김석범의 다른 소설 안에서도 까마귀가 고정적으로 등장하며 4·3을 이미지화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까마귀와 함께 4·3의 표현 방식의 하나로 채택한 것이 김석범 특유의 웃음이다. 작가의 작품에서 그려지는 웃음은 해학적 이미지가 아니라, 냉소(冷笑), 실소(失笑)의 웃음으로 타인으로부터 웃음을 사는 행위로 그려진다.

우리 스스로 조국의 자유와 통일을 이렇게까지 방해하고 박멸하려는 것은 이젠 슬픈 웃음에 가깝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작은 섬에서 주민들의 피폐한 힘으로 이 이상 싸움은 하나의 기적이라는 말이 오고 가고 있었다. 이런 말을 숨죽인 목소리로 서로 주고받는 것을 들으니 의지가 되었다.²⁰⁰⁾(「1949년 무렵의 일지에서」 554쪽)

마음속에 잔혹한 웃음을 숨기고 있는 인간은 겉으로 웃음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198) 破戒の代償を一身に引受けたように、この不運な黒い鳥が、音をたてて飛んでいった。私の視線は地上を離れていた。他人のことは知らない。この、人間から永遠に憎悪される宿命を負うた憐れな鳥の羽ばたきが、妙に暗示めいたものをほのめかしたのだ。

(中略)人間の死と呪を、悲しみと絶望を祝う為めに、黄泉から遣わされた黒い死の使者があって、無数の鴉に化身して乱舞しているようだった。

199) 김학동, 『민족문학으로서의 재일조선인 문학 - 김사랑·김달수·김석범 문학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48쪽.

200) われわれ自身のもが祖国の自由と統一をかくまで妨害し撲滅しようとするのは、もはや悲しい笑に近い。地上沙汰ではない。この小島でこ住民達の疲弊した力で、これ以上の闘いは一つの奇跡だろうと云い交していた。こんな話が低い声ではあっても交換されるのを聞くと頼しかった。

참혹한 광경을 바라보는 관찰자 쪽에서 비웃음과 놀림이 섞인 웃음을 보인다. 이것이 김석범이 작품 속에서 보여주는 슬픈 웃음이다. 작가는 자신의 소설에 웃음의 요소를 넣고 문학에서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인생에서의 웃음과 문학에서의 웃음은 다르다. 웃는 쪽의 인간 심리의 메커니즘은 공통점이 있다고 해도 후자는 허구가 전제된다는 것만으로도 다르다. 문학은 인생의 행위의 하나이지만, 실제 인생과 문학이 다르듯, 웃음도 또한 다르다. 그리고 문학의 경우, 작자 자신은 웃지 않고 웃기는 것을 쓴다는 역설이 성립하기 때문에, 웃음이 가지는 의미는 일률적이지 않다. 게다가 그 웃음은 한 바퀴 뒤틀어버리는 것만으로 관념적, 말하자면, 하나의 인식일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 인생보다 웃음이 지닌 모험의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²⁰¹⁾

김석범 소설의 웃음 코드는 사람을 웃게 하는 희극적 웃음이 아니라, 소설 속의 대중에게 비웃음거리를 제공하는 역설적인 웃음의 형태로 그려진다. 「간수 박서방」의 박백선이 ‘영웅은 여색을 좋아한다던데 나도 영웅과 인연이 있나……? 이 세상은 고구마 줄거리처럼 어지러워…… 내가 영웅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간수 박서방」 8쪽)²⁰²⁾라는 엉뚱한 발상을 하며 감방 열쇠 꾸러미 소리를 내며 돌아다닌다. 주변에서 박백선에 대한 반감으로 그의 곰보 얼굴을 ‘나즈미깡(여름 감귤)’에 비유하며 조롱하고 비웃음을 사는 형상으로 그리고 있다.

김석범은 저항적인 비웃음이나, 공격적인 웃음을 설정하며 4·3의 이미지를 그리는 한편, 수난의 현실 이미지는 약자의 모습을 상징하는 여인의 죽음의 형태에서 나타난다.

청춘을 머금은 아름다운 유방과 유방 사이에 총검의 날카로움이 마지막 빛을 발하고 ‘쿵’하고

201) 金石範, 「濟州島と私」, 『新編在日の思想』, 講談社, 2001, 204쪽. 人生における笑いと、文学におけるそれは違うだろう。笑う側の人間の心理のメカニズムは共通するところがあるにしても、後者は虚構が前提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だけでも違う。文学は人生の営みの一つではあっても、じっさいの人生と文学のそれとは違うように、笑いもまた違うだろう。そして文学の場合、作者自身が自身は笑わないで笑いを書くという逆説が成立するので、笑いの持つ意味は一律的ではない。しかもその笑いは、一回転ひねっているだけに観念的、つまり一つの認識でさえありうる。その意味では、じっさいの人生より笑いの冒険の可能性が大きいといえるだろう。

202) 「간수 박서방(看守朴書房)」은 1957년 『문예수도』에 「까마귀 죽음」보다 4개월 먼저 게재되어, 발표 순서로서는 첫 작품이다. 황해도에서 종살이했던 주인공 박백선은 영웅은 여자를 좋아한다는 왜곡된 생각을 갖고 제주에 가면 여자가 많다는 소문에 입도한다. 운 좋게 감방의 간수가 되어 자신의 신분 상승을 과시하고 아무런 의식 없이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 감옥에 있는 송명순에 대한 연민의 정을 품고 있었는데, 주임에게 겁탈당하는 명순이를 도와주지 못하는 자신의 나약함을 각성한다.

떨렸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었다. 동시에 총성이 났다. 희미하게 움직이는 듯했지만, 어느새 여자는 조용히 쓰러졌다. 총검을 빼더니, 진한 붉은 피를 닦지도 않고, 허리에서 권총을 꺼내어 피투성이 그녀의 관자놀이에 두발을 쏘았다.²⁰³⁾(「1949년 무렵의 일지에서」 557~558쪽)

수난의 대상을 여인으로 설정하고 여인의 죽음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장면은 이후 작품에서도 연속적으로 보인다. 송혜원은 1952년 『平和新聞』에 6회에 걸쳐 게재한 「濟州島」라는 작품에 극한 상황에서도 젊고 발랄한 제주 여성을 묘사하고 서북청년단이 제주도의 처녀 정벌을 큰소리치는 삽화 등이 새롭게 더하여 제주도 여성의 수난을 보다 강조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²⁰⁴⁾고 하였다. 「濟州島」를 모티브로 하는 「간수 박서방」에서는 박백선이 감옥에 있는 송명순에게 연민의 정을 품고 있었는데, 주임에게 검탈당하는 명순이를 도와주지 못하는 자신의 나약함을 각성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

눈이 내리는 무거운 하늘 아래 노파의 울음소리가 바람처럼 건너왔다. 양순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 위를 걸어갔다

—기준은 그것을 빠짐없이 보았다. 용석을 생각했다. 왜 운명은 하필 그들에게 이런 식으로 죽음을 안겨주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²⁰⁵⁾(「까마귀의 죽음」 76~77쪽)

사랑하는 여인 양순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정기준의 분노는 결국 현실을 무기력하게 바라보며 체념으로 일관되고 있다. 작가의 제주 여인을 수난의 대상으로 하는 의도는 「까마귀의 죽음」 「유방 없는 여자」²⁰⁶⁾등에서 비슷하게 그려지고 있다.

김석범은 사실의 기록과 묘사로 표현할 수 없었던 4·3의 공간을 상상에 의한 허구

203) 青春をこめた、美しい乳房と乳房のあいだに、銃剣の尖端が最後の光を遺して、ぐさりっとえぐり刺さった。私は祈っている自分に気がついた。同時に銃声がした。かすかに動いたようだったが、やがて、女は静かに横たわった。剣を引き抜くと、真紅の血をぬぐおうともせず、腰からピストルを外して、眠る乙女の顛顛に、二発射ち込んだ。

204) 宋惠媛, 앞의 글, 561쪽. 極限状態にありながらも、はつらつとして美しい島の若い女性の描写や、西北青年団が濟州島の「処女征伐」を囁いたという挿画等がここで新たに加えられた。これらの加筆は、濟州島女性の受難をより強調する効果を作品に与えるものとなっている。

205) 重たい雪空の下を老婆の泣声が風のように渡った。亮順は唇を噛んでうなだれ、静かに雪の上を歩いていった。—基準はそれをつぶさにみた。龍石を思った。なぜ運命は、わざわざ彼らに、この死にざまをあてがわねばならなかったのか。—

206) 「유방 없는 여자(乳房のない女)」는 1981년 5월 『文学的立場』에 발표했다. 제주에서 밀항 온 두 여인을 작가 직접 대마도로 마중 나갔을 때, 눈앞에 있는 여성이 고문으로 유방을 도려냈다는 일을 듣고 당시를 회상하고 쓴 글이다. 4.3을 가장 가까이서 체험하고 작품화한 것에 의미가 있다.

의 세계로 구축하고 그 사건에 담긴 인간의 참모습을 그려내고자 하였다. 실제 사건에서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허구에 의해서 오히려 잘 볼 수 있게 하고, 문학적 상상력으로 사건에 대한 인식을 더욱 넓히는 효과를 만들고 있다.

3. 4·3 소설과 자기 구제

역사적 현실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다는 의미는 표현하고자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그대로 옮겨 놓기보다, 표현하고자 하는 것의 본질이 잘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김석범이 4·3 소설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 것은 4·3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발단의 원인이나 사건의 경위 또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일반적 가치나 의미만은 아니다. 작가는 역사적 사항을 재탄생시키고 구체화한 형상을 통해 인간 보편의 가치와 본질을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1988년 국내에서 4·3의 진상 규명의 움직임이 막 시작될 무렵, 일본에서 출판된 존 메릴의 『濟州島 四·三蜂起』는 4·3에 대한 실체를 당시 관계자의 단편적 증언과 미국 내부문서가 수록되어 사건에 관하여 객관적인 기술을 하고 있다.

한국 측 자료는 전사(戰史)와 남조선 노동당 연구의 쌍방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자료는 사건의 기초적인 기록으로서 도움이 되지만, 역시 많은 문제점을 피하지 못한다. 4·3에 관해서는 겨우 1장, 2장에 한정되어 있고, 책은 일반에게 주요 관심사가 되지 못했다. 전사의 경우는 제주도에서 한국군 사령관들이 개인적인 전적이나 그들이 채용한 전술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대부분은 작전의 상세한 수행과정에 대해서 기술은 없다. 한편 남로당 연구는 가끔 과도하게 일반적인 분석이 눈에 띈다. 아마 책의 판매에 제약을 고려해 깊이 파고들지 않으려는 기분이 작용했을 것이다. 또, 한국 측 자료는 4·3 봉기의 진압에 사용된 잔혹한 방법에 대해서는 일종의 침묵이나 당혹감을 숨기고 있지 않다.

뜻밖에도 공산당 측의 설명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그것은 주로 이 시기의 북조선의 지도부 내에서 파벌투쟁으로 김일성의 최대 라이벌 박헌영의 정책과 4·3 봉기의 불가결한 관계에 의한다고 생각된다. 4·3 봉기에 대해서 유일하고 상세한 서술은 제주도 출신으로 보이는 김태현·김민주의 『김태현·김민주 제주도 인민 4·3 무장투쟁사:자료집』 (오사카, 1963)이다. 이 책은 주로 일본으로 도망쳐 온 제주 도민이나 4·3봉기 참가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책은 확실히 잘 연구되어 있지만, 사건의 경과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피비린내 나는 서술이 많고, 제주

도 인민의 혁명적 열정이 과장 되어 있고, 선동적인 용어가 눈에 띈다. 그런데도, 다른 자료와 대조해 본 경우, 그러한 부분을 제외하면 사건의 실상 기록으로서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²⁰⁷⁾

김석범은 이 책의 서문에 부분적으로 사실오인이 있지만, 4·3 관련 역사 연구자가 4·3의 역사 이미지의 구성을 문학작품 세계에서 형상화한 것에 거의 의존해야 하는 실정을 고려할 때 존 메릴의 공적은 크다는 견해를 밝혔다.²⁰⁸⁾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48년 5월 15일 조선일보에 실은 4·3 봉기를 전하는 보도 자료를 존 메릴의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책의 일부 내용 중, 제주도 사건 조사를 위해 파견된 형사단 일행이 목포 지국 기자단과 회견하고 폭동 발생의 원인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직접적인 원인은 단독 선거 반대를 주장하는 남로당 계열의 지지에 의한 것, 간접적인 원인은 경찰관 인사에서 도 출신 이외의 사람이 많이 부임하여 도민들의 감정을 박탈한 것. 2개월 전부터 폭도들이 조직적인 훈련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²⁰⁹⁾

1948년 6월 4일 조선일보와 5일 경향신문의 내용에, ‘제주시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은 거의 무장대의 세력 아래에 있고, 이들을 토벌하려는 경비대와 경찰의 전투는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현지 시찰 기자단 일행은 주변의 위험을 느끼면서

207) ジョン・メリル, 文京洙 譯, 『濟州島 四・三蜂起』, 新幹社, 120~121쪽. 韓国側の資料は戦史と南朝鮮労働党の研究の双方からなっている。それらの資料は事件の基礎的な記録として役立つけれども、やはり多くの問題点を免れていない。四・三蜂起についてはたいてい、せいぜい1章か2章という限られた扱いしかされないし、一般にこれらの書物の主要な関心事とはなっていない。戦史のほうは、濟州島での韓国軍司令官たちの個人的な戦績や彼らが採用した戦術ばかりに焦点をあてている。たいていの場合、作戦の詳細な遂行過程についての記述はない。一方、南労党研究は、しばしば過度に一般的な分析が目につく。おそらく、本の販売を制約されかねない領域にあまり深入りしたくないという気持ちが自然にはたらくのであろう。また、韓国側資料は四・三蜂起の鎮圧にしばしば用いられた残酷な方法についてのある種の沈黙や当惑を隠していない。

意外なことといえるが、共産側の説明はほとんど見当たらない。それは主に、この時期の北朝鮮の指導部内での派閥闘争における金日成の最大のライバルであった朴憲永の政策と四・三蜂起が不可分に関係していたことによるものと思われる。四・三蜂起についての唯一のくわしい叙述は、濟州島出身とみられる二人の在日朝鮮人、金泰鉉と金民柱によって自費出版された著書である。(金泰鉉・金民柱編『濟州島人民の四・三武装闘争史:資料集』大阪、一九六三年)。同書は主に、日本に逃れた島民や四・三蜂起の参加者のインタビューに基づいている。同書はたしかによく研究されているが、事件の経過について必要以上に血なまぐさい記述が多く、濟州島人民の革命的情熱が誇張されており、扇動的な用語が目立つ。にもかかわらずそれは、他の資料と照合してみた場合、そうした余分なところを除けば、事件のありのままの記述としては信頼しうるのであろう。

208) 金石範, 「『濟州島四・三蜂起』出版に寄せて」, ジョン・メリル 앞의 책, 5쪽

209) ジョン・メリル, 앞의 책, 「四・三蜂起を伝える当時の新聞報道」, 143쪽. 直接の原因は単独選挙反対を叫ぶ南労党系列の支持によるもの、間接的な原因は警察官人事において島出身以外の者が多く赴任し、本土人の感情を剝き出しにしたことと、二ヵ月も前から暴徒たちが組織的訓練をし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それを察知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こと。

국방경비대의 장교 안내로 교전 지구를 지나고 피해를 받은 마을을 시찰했다. 경찰들은 주로 해안선을 방위하고 내외 연락을 두절시키는 방침에 따라 경비대가 주력해서 산악지대를 진격했다'²¹⁰⁾고 당시 신문 기사에서 사건의 진행을 알리고 있다.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두 개의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결정적인 것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 도민들 사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출발한 봉기가 서서히 조직적인 빨치산 투쟁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치안을 담당할 부대가 여론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군사행동을 취하면서 정부군에 의한 지역 정화 전술이 게릴라와 민간인의 구별을 애매하게 하는 경향을 초래하고 봉기의 과정에서 인구 3만 명이 사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2003년 3월 정부가 4·3을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양민 학살이라고 정의하기까지 제주4·3사건에 대한 도민의 민심은 ‘반공이 국시’였던 권위주의 시대에는 숨어 있었다. 그러다가 문학 작품으로, 재일 교포의 자전적 저술을 통해 집단적 관심거리가 되었다가 민주화의 대세를 업고 공론화되기 시작했다.²¹¹⁾ 김석범의 실질적으로 데뷔작이자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까마귀의 죽음」이 4·3 문학의 출발점이다.

「까마귀의 죽음」이 1957년 『文芸首都』 12월호, 1967년 新興書房, 1971년 1973년 1985년 講談社, 1974년 『現代文学39戦後』 講談社, 1999년 3월 小学館文庫에 계속해서 발표되었고, 4·3에 관한 문학적 해석에 관심을 끌게 되었다.

「1949년 무렵의 일지에서」는 4·3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제주에서 온 밀항자의 증언과 청소년 시절 제주도에서 생활한 기억을 바탕으로 한 재일조선인의 관찰자, 방관자적인 입장이었다. 이 작품을 원점으로 6년의 세월 차이를 두고 발표한 「까마귀의 죽음」에서는 사건에 대응하는 입장의 차를 보인다.

「까마귀의 죽음」은 4·3이 일어난 지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주인공 정기준의 제주에서 5일 동안의 행적 속에 수난과 투쟁의 현실을 함축 시켜 전개하고 있다. 정기준은 조국의 해방과 함께 희망을 품고 일본에서 돌아온 인물이다. 그는 통역 일을 하며 도민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다는 행복감을 가진다. 하지만 미군의 정책과 도민과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 사실에 직면한다.

김석범은 고국의 현실과 정치적 상황에서 떨어져 있고, 자신의 어떠한 행동도 실질

210) ジョンマイル, 앞의 책, 146쪽.

211) 현길언, 『정치권력과 역사왜곡-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비판』, 태학사, 2016, 16쪽.

적으로 고국의 상황에 관여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이 작중 인물 정기준이 처한 상황과 연결 지으며 심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이 물러난 그 자리에 깃발을 대신 꽂고 있는 미군정과 이를 배후로 한 경찰 권력이나 ‘서북청년회’ 같은 테러 단체에 의한 제주도 학살의 현장을 마주한 정기준은 무장대의 비밀 당원으로 스파이의 이중적 삶을 살게 된다.

정기준은 미군의 충실한 앞잡이라는 적개심에 찬 시선을 받으며 살아간다. 애인 양순에게도 가면 속 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채, 외부세계와의 단절로 고민에 빠지고 마치 병어리처럼 살아가는 존재이다.

작품의 시간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신작로가 얼어붙은’ ‘동백꽃’ 등의 표현을 보면 토벌대의 초토화 작전 전개로 많은 인명이 피해를 보고, 무장대가 보복 기습 작전을 시도하던 1949년 1월에서 3월 즈음으로 보인다. 정기준이 회의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제주에 온다는 정보를 입수했다’(85쪽)는 내용을 보면 1949년 3월 10일 신성모 장관이 제주도를 시찰했던 실제 시간과 같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제주도 방문을 예정한 시기는 1949년 4월에서 5월 선무 공작 활동기로 잔여 무장대가 궤멸 상태에 이르는 시기로 다소 혼선이 있다. 장용석 같은 무장대가 활약한 유혈 사태가 심했던 시기에는 미군정은 이미 제주도에 존재하지 않았다.²¹²⁾ 따라서 미군정에서 통역 일을 한다는 정기준의 존재는 실제 시기와 소설 속 시간의 흐름에 다소 차이를 볼 수 있다.

작중에 시간의 혼재는 작가의 실수라고 하기보다, ‘미증유의 제주도 빨치산 섬멸 작전이 투항하지 않으면 제주도의 30만 도민을 몰살하겠다는 선전포고 아래 전개되었던 사건’(85쪽)의 책임 소재가 경찰의 배후에 있는 미군정이라는 것을 허구의 세계에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김석범이 사건의 실상을 허구로써 재현하려는 의도는 하층민 망나니 하루방²¹³⁾의

212) 허상수, 『4·3과 미국』, 다락방, 2015, 316쪽. 1949년 4.29 미육군 제5연대 1중대 장교 1명과 사병 45명으로 구성된 시위소대(Demonstration Platoon)가 제주도에서 귀환하였다. 1949년 6월 29일 미군사 고문단을 제외한 남한의 모든 미군부대는 철수했다.

213) ‘망나니 하루방’은 참수당한 사람의 목을 바구니에 들고 다니며 죽은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 주고 돈을 받는다. 자신이 경찰로부터 죽은 자의 배우 관계와 가족 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국내 번역 출판된 작품이나 논문에 이 인물을 ‘부스럼 영감, 허물 영감, 종기 영감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람의 몸에 난 종기(제주도에서 ‘허물’이라고 표현함)에 생긴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어 치료해 주던 할아범의 과거의 행적에 중점을 둔 표현이 대부분이다. 또 ‘덴보 영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일본어 원문에 ‘でんぼう爺’를 그대로 번역한 표현이다. 본 논문에서는 ‘でんぼう爺’가 ‘무뢰한, 난폭한 할아범’의 의미가 있고, 제주 민중에게 비난의 대상이었던 하루방을 지칭하는 말로 ‘망나니 하루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실제 ‘망나

등장에서도 보인다. 정기준의 주위를 맴도는 하루방은 바구니에 죽은 사람 목을 들고 다닌다. 하루방은 남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다는 덧없는 확신에 찬 인물이다.

사람의 목을 바구니에 넣고 돌아다니는 것은 애당초 밀고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사한 신원 불명의 빨치산이나, 포로가 되어 고문에 입을 열지 않은 빨치산의 배후 관계와 가족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목의 정체를 알아낼 필요가 있다. 그 결과 가족이나 친척에게까지 화가 미친다. 그들을 뿌리째 검거할 뿐 아니라, 그 마을에 불을 질러 모두 태워버린다.²¹⁴⁾(「까마귀의 죽음」 48쪽)

오카니와 노보루는 제주도를 희생양으로 삼기로 작정한 정치 권력이 이런 남자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권력의 본성을 구도화²¹⁵⁾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하루방은 자신의 행동이 권력의 앞잡이 노릇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어떠한 죄의식을 인지하지 못한다. 오히려 시신을 혈육에게 인도하고 자신에게 주목된 시선만을 의식하고 즐기는 선과 악의 경계가 허물어진 비열한 하층민의 모습이다.

하층민 하루방과 대비를 이루는 지식인 정기준은 ‘배반자가 아닌 배반자’(75쪽)로 이중적인 삶을 사는 존재이다. 자신 내부의 고독을 소녀의 시체 위에 날아든 까마귀를 향해 총을 쏘는 것으로 내면의 고통을 외부로 표출한다. 경찰 과장에게 겨누고 싶었던 총은 다시 죽은 소녀의 가슴에 총을 쏘는 행위로 철저히 자신의 신분 노출을 막는다. 정기준은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결코 울어도 안 된다’(88쪽)는 이중적 스퀘어 역할에 대한 충실감 속에서 자신의 고독을 밀어내야만 하는 존재이다.

작가는 「1949년 무렵의 일지에서」의 결말 장면에서 ‘어떻게든 되겠지. 그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살지 않으면 안 된다.’(559쪽)처럼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그 생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절규의 독백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1949년 무렵의 일지에서」

니’는 언행이 좋지 않은 사람 또는 하는 짓이나 성질이 못된 사람을 비유하는 말로 의미가 확대되어 제주에서도 사용된다.

214) ふれ廻りはそもそもが密告を前提とするものであった。そうでなければいくらふれ廻ったところで何の役にもたないのだ。戦死した身元のわからないパルチザンや捕虜になったが拷問にも口を割らなかったパルチザンとの背後関係、そして家族関係を洗うためにはその首の正体をつきとめる必要がある。その結果、禍いは家族や親戚にまで及んでいき、それは根こそぎ検挙をするだけでなく、その部落に火をつけ焼払いもするのであった。

215) 岡庭昇, 「비유를 뛰어넘는 것」, 『鴉の死』, 소나무, 1988, 308쪽.

의 시점이 제 3자의 입장에서 마치 내레이터가 읊조리듯 한 어투였다면, 「까마귀의 죽음」은 현실적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자기 위안과 다짐에서 우러나는 표현을 하고 있다.

내일도 또 이런 처형은 계속된다. 정신적 절름발이가 된 무거운 발을 질질 끌고 나는 높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자꾸만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기준은 건디기 어려웠다. 이런 일도 있는 거다, 할 수 없지,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인간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가 체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지니고 있다.²¹⁶⁾(「까마귀의 죽음」 77쪽)

정기준은 정신의 불구자로, 절름발이로 표현하며 자신의 무능함을 이야기하지만, 혁명을 위해서는 눈앞의 상황을 어쩔 수 없이 체념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심경은 애인 양순의 죽음 앞에서 조직과 조국에 대한 증오의 감정으로 변한다.

당을 위해 조국을 위해! 이것이 이 순간의 그를 더욱 불행하고, 자신을 내던지지 못했다. 지독한 양심의 평안을 위하여, 그는 자신이 인간을 죽이고 양순의 양심을 죽였다. 그렇다면 그(당과 양심)사이에 놓여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명목(당이라는 명목)으로 인하여 양순의 마음을 죽인 당도 조국도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의 가치도 속죄할 수 없다. 기준은 장용석을 미워하고, 당을 증오했다. 그리고 조국을 증오했다.²¹⁷⁾(「까마귀의 죽음」 75쪽)

스파이라는 자신의 존재는 항상 가면 속에서 본래의 모습을 가린 채, 오로지 장용석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이중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용석은 말하자면 투명한 유리병의 좁은 입구 같은 존재였다. 그것을 통해서만 기준은 겨우 답답한 유리병 속에서 대기의 세계와 접촉할 수 있었다’(61쪽), 정기준은 산속 무장대원으로 마음껏 혁명을 실천하는 장용석이 부러운 생각마저 든다.

정기준이 스파이라는 느낌을 받은 이상근은 자꾸 정기준 주위에서 가면 속에 가려진 것 같은 정기준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216) 明日からもまたこれはつづく。重たい精神の跛を引きずって自分は高所へ高所へ登らなければならない。基俊は耐えがたかった。こういうこともあるのだ、仕方がないのだ、と彼はつぶやいた。人間の行為を可能にするがためにはわれわれは諦めねばならぬものをもっている。

217) 党のために祖国のために! これがこの一瞬の彼をなお不幸にし、おのれを空しゅうできなかったのだ。恐るべき良心の安泰のために、彼は自分の人間を殺し、亮順の良心を殺した。すればその間に介在するものはいったい何であるか。その名において亮順の心を殺した党も祖国も彼女の涙一滴に価するものさえつぐないえないのだ。基俊は張龍石を憎み、党を憎んだ。そして祖国を憎んだ。

“나는 어느 쪽도 아니에요.”하고 이상근은 말을 되풀이하며 다시 말을 이었다. “내 행동은 그들의 어느 쪽에서도 소외된 곳에 있고, 그런 의미에서 자유인 것이지요. 스파이도 이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피라미드의 꼭대기가 될 수 있겠지요. 말하자면, 문이 없는 탐처럼 바람은 내 몸속을 전후좌우로 불어 지나가지만, 나는 거기에 그대로 당당하게 서 있는 겁니다. 내 자유는 거기에 있지요.”²¹⁸⁾(「까마귀의 죽음」 83쪽)

정기준이 절망을 체험하고 현실에 적응해 살아가려는 인물이라면, 부유한 집안의 아들 이상근은 경찰과 무장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인물이다. 이상근은 정권의 편에 서서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자신의 아버지를 경멸하면서도 무장대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이상근이라는 인물의 설정은 모호하지만, 비합리적인 상황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단계로 모순된 자신을 자각하는 자유로운 삶의 철학을 소유한 인물이다.

행동의 세계로부터 자신을 내쫓고 관념을 되새기며 사는 이상근에게는 그 나름의 표정을 가진 얼굴이 있지만, 그는 그것을 가면적인 것으로 부정하고 싶은 거다. 아니, 그 속에서 자기가 출구를 찾아내려는 것인지도 모른다.²¹⁹⁾(「까마귀의 죽음」 81쪽)

자신의 본 모습을 가면 속에 숨기고 살아가는 정기준도 스스로 출구를 찾으려는 의지를 행동으로 나타내 보인다. 자신 내부의 비밀로 인해 겪게 되는 양심적 고통을 외부의 세계로 표출하는 수단으로 까마귀를 매개체로 하고 있다.

기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안주머니의 권총에 닿아 있었다. 그 손동작에 성난 까마귀는 어깨를 흔들었다. 순간 까마귀가 하품이라도 하는 듯 날개를 천천히 펼치려는데, 요란한 총성이 울렸다. 화약 연기 냄새가 코를 찌르고 까마귀는 떨어졌다.

(중략) 인간처럼 생생한 피가 검은 몸에서 뿜어져 나왔다.²²⁰⁾(「까마귀의 죽음」 87쪽)

218) 「私はどちらでもないの」と李尚根はくりかえしました話をつづけた。「私の行動は彼らのどれからも疎外されたところにあつたし、その意味で自由なんだ。スパイにしてもこういう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そうすれば、私はピラミッドの頂点になりえましょう。つまり扉のない塔のように風は私の体内を前後左右に吹き抜けるが、私はそこにそのまま屹立している。私の自由はそこにある。

219) 行動の世界から自分を閉めだして観念をはんで生きている李尚根にはそれなり表情をもった顔があるわけだが、彼はそれを仮面的なもので否定したいのだ。あるいはその中に自分の出路を見出そうとしたのかわからない。

220) 基俊の手は無意識に内ポケットの拳銃にふれていた。その手の動作に鴉は肩を怒らせた。一瞬鴉があくびでもするように羽をゆっくり伸ばしたとたん、轟然と銃声があつた。硝煙の臭いが鼻をつき鴉が落ちた。(中略)人間のような鮮血が黒い軀からふきでた。

까마귀를 향한 기준의 충격은 자기 처지의 답답함에 대한 우회적 분출, 엄청난 폭압적 상황에 대한 상징적 저항의 의미²²¹⁾가 담겨있다. 어린 소녀의 시체를 노리는 까마귀에게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는 정기준의 행위는 공권력을 향해 총을 쏜 것 해석할 수 있다.

「까마귀의 죽음」은 사건에 연루된 허무적인 청년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사실, 이 소설은 거의 증언도 없는 상황에서 김석범의 관념 속에서만 계속 이어지고 현재까지 계속 써오고 있다. 즉 일어난 사건을 르포르타주 해서 소설을 쓴 것이다. 그는 제주도에서 온 몇몇 증언자의 말을 듣고, 거기에서 출발해서 이 게릴라 전쟁의 전체상을 문학으로 형성한 것이다.²²²⁾

김석범은 극좌적인 투쟁을 벌인 게릴라 측의 잘못이라는 지적에 대해 조국의 분단을 막고 살육과 폭행으로부터 자신의 생존을 지키고 해방할 방법이 게릴라 봉기 이외에 어떤 투쟁 방법이 있었겠는가?²²³⁾라고 스스로 묻고 「까마귀의 죽음」에서 형상화를 통해 봉기의 타당성을 제시한다.

작품에서 그려지고 있는 무장대의 공격과 공권력의 무력에 의한 대치 구도, 그리고 상황에 휘둘리게 된 양민이 수난 등 사건의 성격에 관해서 제주도의 역사 속에서의 해석을 살펴본다.

김태능은 『濟州島 略史』에서 조선 시대에 제주도에서 일어난 반란(反亂)과 민요(民擾, 民亂)에 관해 논한 바가 있다. 사건의 성격을 반란(反亂)으로 규정한 것은, 반란의 잔당이 제주도에 잠입해서 동지들을 모아 도모한 경우, 도민을 포섭해서 반란을 기도한 경우, 반란 사건에 직접 연좌해서 제주도로 유배된 사람들이 반역을 도모하거나, 또는 제주도의 자주독립을 목적으로 도모한 경우 등의 형태이다. 민요(民擾)는 서울에서 내려온 관리의 폭정이나 가혹한 부역이나 각종 착취에 반항하여 민중이 봉기한 사건으로 그 성격을 구별하였다. ²²⁴⁾

221) 김동운, 「빛나는 전범(典範), 관점의 무게」, 『까마귀의 죽음』작품해설, 도서출판 각, 2015, 365쪽

222) 金石範, 『《火山島》小説世界を語る!』 右文書院, 2010, 18쪽. 「鴉の死」はこの事件に関わったニヒリスティックな青年を主人公にしている。じつを言うと、これらの小説はほとんどなんの証言もないという状況下において、石範氏の觀念のなかでのみ語り継がれ、現在まで書き続けられてきたのである。すなわち起こっている事件をルポルタージュして小説を書いたわけではまったくなかった。彼は濟州島からやってきたごく少数の發言者の証言を聞き、そこから出發してこのゲリラ戦争の全体像を文学として形成していったのである。

223) 김석범, 이호철·김석희 역, 『화산도』, 실천문학사 작품 후기, 1988, 318쪽.

224) 金泰能, 『濟州島略史- 濟州道での反亂と民擾』, 新幹社, 1988, 98쪽. 李朝時代に、濟州島で起きた反亂と民擾の性格を考察すれば、本土で反亂を起こした事件の性格を反亂を起こした殘党が濟州島に潛入して時期を見はからっ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김석범의 작품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는 4·3은 반란과 민요의 공통적 성격을 고루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작중에 남로당이 제주 지역으로 숨어들어 무장대를 조직하고 경찰서를 습격하는 등의 게릴라 전투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또 무장대와 연루되어 반역자가 되고, 그 가족 역시 처형의 대상이 되고 만다. 도민 대부분이 반란과 민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에 내몰린 상황을 그리고 있다.

이전 4·3 소설에서 관찰자 관점에서 충격적 사건을 바라만 보는 단계였다면, 「까마귀의 죽음」에서는 좌우 이데올로기가 대립하는 현실에서 저항 의식을 가진 지식인과 경찰 권력이 대치하는 상황을 설정하고 사건의 진상을 그리고 있다. 실제 4·3 당시에 일어났던 일을 배경으로 삽입하며 김석범 4·3 소설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김석범은 소설에서 자신의 허무감을 표면상에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정기준 같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민족의 문제에 뛰어든 절대적 고독감을 지닌 존재를 인물로 설정하며 자신의 심리 상황을 표현한다. 김석범은 주인공의 심정에 의탁하여 재일조선인 자신의 삶을 비추어보고 자기 구원의 길을 찾고자 하였다.

「화산도」의 마지막 부분에도 ‘살육자들이 승자로서 서울로 개선한 후, 폐허가 된 광야를 건너는 바람 속에 허무는 있는가? 섬을 뒤덮은 시체가 허무를 부정한다. 죽음의 폐허에 허무는 없다.’²²⁵⁾라는 표현처럼, 자신 내부의 감상에 불과한 허무 의식을 타파하고, 비록 자신이 체험하지 않은 고향에서의 사건이지만, 문학으로써 공론화하고자 하는 필생의 작업으로써 사명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소설에 나타난 저항 의식

1970년 12월 『인간으로서』에 발표한 김석범의 4·3 소설 「만덕유령기담」에서는 작가의 실제 모습은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사회주의적 좌익 문학의 성격에서 볼 수 있는 민중과 자신을 일체화하는 경향이 보인다. 이 소설은 1949년 초봄이라는 시간적

て再び同志を謀り、島民をだきこんで反乱を企図した場合、反乱事件に直接連座して、濟州島に流配された人々が反逆を陰謀したり、または濟州島の自主独立を目的とする企てなどの三つの型と、京來官の暴政や過酷な賦役や各種の搾取に反抗して民衆が蜂起した事件(民擾)とに区別される。

225) 殺戮者たちが勝利者として都(ソウル)へ凱旋したあとの、廢墟の曠野を渡る風のなかに虚無はあるか。島を蔽う死体が虚無を否定する。死の廢墟に虚無はないのだ。(『火山島』VII, 終章, 511쪽)

배경과 제주도 한라산과 해안 연안 사이 중산간 마을을 공간적 배경으로 「까마귀의 죽음」과 설정이 동일하다.

앞선 작가의 4·3 소설이 경찰과 무장대의 대치 상황과 수난의 현장에서 생과 사를 넘나드는 양민의 이야기가 중심이었다면, 「만덕유령기담」에서는 양민이 경찰에 대한 반격으로 살인과 방화라는 소재를 끌어들이며 소설이 지닌 허구성의 폭을 증가시키고 있다. 작가가 초점을 양민의 입장에 맞추고 민중적 저항 의식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측면에서 김석범 4·3 소설의 또 하나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이야기의 전개는 주인공 만덕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방식으로 만덕이가 현실에 대처하는 방식에 몰입하게 된다. 무장대 검거를 이유로 실시했던 ‘관음사 소각 작전’²²⁶⁾이라는 실제 사건을 배경하고 있다.

나카무라는 「만덕유령기담」이 역사적 배경과 연관성도 치밀하고, 48년 가을 이후 계엄령 하의 주민학살, 49년 3월 작전, 관음사 화재 사건 등 삼입한 것은 이 작품의 깊이를 잘 보여주고, 또 다른 민중의 모습을 통해 4·3에 대한 형상화와 뿐만 아니라, 문학성의 깊이도 느낄 수 있게 구성되었다²²⁷⁾고 하였다.

재일조선인 문학의 특질을 ‘민중을 그린다’는 점으로 파악한 이소가이는 민중상과 그 삶의 양상을 선명하게 형상화하는 것이 재일조선인 문학의 전통이고, 초기의 장혁주나 김사랑을 비롯해 김달수의 「박달의 재판」 허남기의 「화승총의 노래」 김석범의 「만덕유령기담」 등이 대표적²²⁸⁾이라고 평하였다.

소설 안에는 주인공 만덕이 절의 신도에게 들은 하리 마을로 가는 길에 있는 바위에 얽힌 옛날이야기 - 누이의 뒷모습에서 여인의 감정을 느끼고 자신의 몸속에 이상한 변화에 놀라, 번민한 끝에 바위에서 자살한 이야기 - 등을 삼입하고, 한라산을 비롯한 제주도의 자연 풍광을 전하며 순박한 감성을 지닌 제주민이 참상의 현장을 극복

226) 김성재외 8인, 『4·3, 진실을 향한 그 의로운 행진』,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2014, 220쪽. 4·3특별법 제정과 4·3에 대한 대통령 사과, 위령제 참석에 대한 증언을 기록한 책에 제주4·3평화재단의 자료를 받아 관음사 소각사건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또, 제주4·3사건일지,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557쪽. 관음사, 2연대 군인들에 의해 소각됨 (이 밖에도 도내 15개소의 사찰이 토벌대의 방화로 전소됐으며, 3개소는 일부 소각됐고, 9개소의 사찰은 소개령 때 파옥됨. 또한 스님 16명이 토벌대에 의해 희생됨. 한편 경찰 부친이 주지인 함덕리의 한 사찰은 무장대에 의해 피해를 봄)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227) 나카무라 후쿠지(中村福治), 「김석범 문학이 재일조선인 문학에서 차지하는 위치」, 『용봉논총』 29권, 2000, 89쪽.

228) 磯貝治郎. 앞의 글, 113쪽. 在日朝鮮人文学の特質として、「民衆を描く」ということがあった。民衆像とその生のありようを鮮烈に形象化することが、在日朝鮮人文学の伝統と言っている。初期の張赫柱や金史良はじめ、金達寿の『朴達の裁判』、許南麒の『火繩銃のうた』、金石範の『万徳幽霊奇談』など代表的なものである。

해 나가는 또 다른 4·3의 세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

작가는 사건의 참상과 더불어 풀과 꽃, 벌레를 사랑하는 주인공 만덕의 천진한 모습을 대비적으로 보여주며 독자에게 한 발 더 다가가 제주민의 삶의 이야기를 전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천애 고아가 된 ‘만덕(万德)’은 절에서 머슴 겸 공양주로 생활하며 ‘개똥이’라고 불리던 것을 신성한 절에서 부르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스님의 배려로 족보나 본관이 필요하지 않은 범명이라는 명목으로 붙인 이름이다.

만덕은 「까마귀의 죽음」의 정기준과 마찬가지로 출생이나 성장 과정에서 일본과의 관계가 깊은 인물이다. 정기준이 일본에서 공부하고 해방된 조국 제주도로 희망을 품고 돌아와 미군정의 통역과 무장대 비밀 당원 역할을 하는 이중적 삶을 산다면, 만덕은 제주도 출신 재일교포 여인의 사생아로 태어나 병어리나 다름없는 어머니의 손에 의해 관음사 절에 맡겨지고, 일제 강점기에는 시장 보러 갔다가 징용으로 끌려가 노동을 한 경험이 있는 인물이다.

김석범은 4·3 소설 안에 일본과의 관계나 재일조선인으로 살았던 인물을 등장시키며 재일조선인의 입장을 의식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인물 설정에 있어서 4·3에 관한 이야기의 폭이 다양해지고 단순히 제주도에 한정된 사건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와 연장선상에서 역사적 현실 문제를 다루려는 작가의 의도로 보인다.

만덕의 삶에 영향을 끼친 여인 중 한 사람이 일명 ‘서울보살’이다. 출신이 불분명한 육지 여인 서울보살이 관음사의 관리인으로 오면서 만덕의 삶에 변화가 온다. 서울보살은 히스테리 증세를 주기적으로 보이며 만덕을 학대한다.

만덕에게 서울보살은 희미한 기억 속 어머니의 모습으로 인식된다. 정부의 소각 작전에 의한 퇴거명령이 내려지자 자신의 전부였던 관음사를 울면서 내려오던 만덕은 서울 보살이 보이지 않자, 산을 뛰어 내려가며 그녀의 모습을 쫓는다. 이때 만덕은 무의식 속에서 ‘개똥아!’라고 불러주던 자기 어머니가 사라져 가는 것으로 착각한다. 어릴 적 헤어져 어머니의 형상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새 서울 보살이 자신 어머니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버린 것이다. 그 형상의 매개체 역할을 한 것이 냄새이다.

서울 보살이 가지고 있는 동백기름 냄새가 배어있는 머리빗에서 어머니의 냄새로 재생되고 어머니인지 여자의 것인지 알 수 없는 냄새는 신기하게도 만덕에게 힘을 준

다. 그러나 서울 보살은 어엿한 행자가 되어 있는 만덕을 확대하고 성적 노리갯감으로 다룬다.

또, 만덕의 마음에서 현세의 관세음보살님이라 생각하던 하리 마을 오 노인의 젊고 고운 며느리는 만덕에게 따뜻한 행복감을 주는 존재이다. 오 노인의 아들이 한라산 무장대로 올라가자 집안은 빨갱이로 지목되고, 서북 출신의 경찰이 며느리에게 유혹의 추파를 던진다. 마을 전체가 화를 면할 수 있도록 시어른과 주위에서는 며느리의 희생을 강요한다. 효는 최고의 덕이지만, 욕된 삶을 거부한 그녀는 목을 매어 자살한다.

오 노인의 며느리가 빨갱이 누명을 쓰고 자살한 소식을 듣고 만덕은 장례에 들렀다가 공무집행 방해라는 죄로 경찰서로 끌려간다. 형 집행을 기다리던 만덕은 오 노인이 포로로 끌려온 자기 아들에게 총으로 쏘라는 경찰의 강요에 자살하는 광경을 목격한다.

자신의 신분 증명을 하고 연명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식이든 남편이든 부모이든 거기에 총을 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비 가족’이라는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모든 주저를 배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방에 상대를 사살해야 한다. 상대가 부모나 자식이 아니라 친척 정도라면 하늘에 감사해야 정도로 자진해서 나가 쏠 것이다. 설불리 인간의 양심적 외침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총을 버리거나 천정으로 쓸데없는 총을 쏘는 것으로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사람들은 양쪽 모두 같이 죽는다는 결과를 잘 알고 있다.²²⁹⁾(「만덕유령기담」 205쪽)

경찰이 오노인의 아들을 만덕에게 대신 죽이라는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만덕은 24살 무렵 일본 북해도로 징용 갔을 때 가혹한 노동을 못 견디어 도망치다 붙잡힌 동포를 몽둥이로 때려죽이도록 강요당했던 지난날의 기억이 되살아난다.

비상시국에 황국신민으로서 본분을 발휘하고 애국적으로 일하기 위해 곧 일본으로 출발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일본으로? 한라산 관음사를 떠나 일본으로? 조선의 서울에도 간 적이 없는 내

229) 自分自身の身の証しをし、いや、延命するためには、ときには息子であろうが、夫であろうが、親であろうが、それらに銃を向けねばならなくなる。「共匪家族」として疑いから逃れるためには、人間的ないっさいの躊躇を排除せねばならない。一発で相手を射殺すべきだ。相手が親や子ではなく、親戚の程度ならば、その天の按分を感謝すべきであって、自ら進んで射つところだろう。なまじっか、人間の良心という叫びに迷わされて銃を放棄したり、天井に虚ろな穴をあけたところで、結果は変わらない。人々は両方ともいっしょに殺されるという結果をよく知っているのである。

가 일본으로 간다? 내가 관음사를 떠난다고? 만덕은 어둠 저편에 있는 저 일본이라는 곳에 전혀 상상의 날개도 펼칠 생각도 나지 않았다. 으음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까? 만덕은 꿈이 아닌 것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뺨을 꼬집고, 콧바퀴를 잡아당기고 몇 번이나 생각하다 풀이 죽어버렸다. 이것이 틀림이 없이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²³⁰⁾ (「만덕유령기담」 209쪽)

만덕은 일제 강점기 때 자신을 ‘만덕 이치로’라고 부르고 일본인으로 취급하던 이유를 몰랐다. ‘일본 제국 식민이니 너는 일본인이라는 말에 오장육부까지 전혀 ‘일본인’에 익숙해져 있지 않다’(158쪽)라고 강한 거부감의 감정을 드러내는 우직한 인물이다.

관음사에 이어 양민들이 사는 하리 마을이 경찰에 의해 방화 되는 것을 목격한 만덕은 노여움과 복수심으로 가득 찬다. 관음사의 존재는 「화산도」에서도 ‘한라산 신(神)을 모신 관음사가 도민의 두터운 신앙의 대상이 되어온 제주도 유일한 본산이다. 제주도의 대표적인 건축이며 중요한 벽화 등이 있는 대가람의 대웅전이 모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재가 돼 버렸다.’²³¹⁾라고 언급하고 있듯이 제주 민중에게 소중한 절이다. 만덕은 자신의 전부였던 관음사를 경찰들이 불태운 것처럼 복수심으로 경찰의 거처가 되어버린 S 오름의 절에 방화한다. 몸에서 잡은 벼룩을 아궁이 속으로 던져 죽이듯이 절을 점령하고 있는 경찰들을 태워 죽이지만, 그것이 살인이라는 죄의식이 만덕에게는 없다.

만덕이 변하게 된 가장 큰 외적 요인은 경찰이 한라산 일대에 잠복해 있는 무장대의 거점으로 관음사를 지목하고 소각을 한 것이다.

관음사는 이 섬에서는 가장 크고 유서 깊은 본산 격인 절로 제법 훌륭한 대웅전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만덕의 마음은 그런 속세적인 부분에 있지 않다. 절이 화염으로 재가 된 것은 사원만이 아니었다. 만덕의 마음도 재가 되어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다. 만덕을 물고기라고 한다면 절은 깊고 넓은 연못이다. 그는 자신과 연결돼 있던 단 하나의 것에서 완전히 단절되었다. 그는 절의 공양주가 곧 자신이던 것이 ‘우직’하고 틈이 벌어진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²³²⁾ (「만덕유령기담」 170쪽)

230) 非常時局の皇国臣民としての本分を發揮し、愛国的に働くためにまもなく日本へ出發するのだということなのだ。これから、日本へいく? 漢拏山の觀音寺をはなれて日本へいく? 朝鮮のソウルへいったことないわっしが日本へ行く? わっしが觀音寺をはなれる? 万徳は暗闇の向うにあるその日本というところにまったく想像の羽をはばたかす気もおこらない。うむ、世の中にこんなこともあるものかな?。万徳は夢でないことを確かめるために自分の頬を抓り、耳たぼを引っばったりして、なんどもこういう思いに打ちひしがれたのだった。これがまちがいに現実かと思ったのだ。

231) 漢拏山の神も祀られている觀音寺が島民の厚い信仰の対象となって来た濟州島で唯一の本山でもあったからだ。濟州道における代表的な建築であり、重要な壁画などがある大伽藍の大雄殿もろとも、寺にガソリンをかけて火を放ち、灰にし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だ。(『火山島』Ⅶ, 終章, 489쪽)

만덕은 자신의 몸에 기생하던 벼룩을 잡다가 다시 원래의 장소인 자신의 몸으로 돌려보낼 정도로 우둔하고 천성이 생명 존중의 마음을 소유한 인물이었다. 다케다는 간수 박서방(박백선), 망나니 영감, 관덕정의 용백, 만덕이라고 하는 민중상의 추이는 작가가 그들을 서서히 윤리화 해가고 용백이나 만덕 등은 거의 성선설적 민중에 어울리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고 평하였다.²³³⁾ 하지만 ‘간수 박백선’이나 ‘망나니 영감’이 제주 4·3의 상황적 아이러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바보형 민중상이라면, 만덕은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우매함으로부터 각성해 가는 작가 내부의 의식 세계에서 창조된 인물²³⁴⁾ 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는 4·3이라는 외부적 상황에 의해 순수했던 민중에서 저항 의식을 가진 만덕이라는 인물을 조형함으로써 4·3의 수난에서 더는 체념하지 않고 스스로 벗어나려는 의지를 가진 민중상을 새롭게 보인다.

만덕은 우둔해 보이지만, 강단이 있는 민중의 모습이다. 반역죄라는 가당찮은 죄명으로 처형될 위기에서, 만덕은 직업이 무엇인가라는 심문에 자신의 직업은 보초라고 말한다. 절의 공양주 신분이지만, 만덕에게 직업이란 타인에 의한 ‘강제성’을 가진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다.

빨치산과 마을 주민 간의 연계를 끊기 위해 ‘보초막’이라고 하는 감시소가 곳곳에 있었다. 만덕이 경찰의 심사계로 돌아다닐 때 이미 강제 소개로 한라산 관음사로부터 하산해서 S 오름 절로 옮기고 있을 때였고, 그를 관제 민병으로 S 오름의 보초막의 보초로 몰아냈다. 그것은 경찰에서도 인정한 부분이다. 그런 식으로 강제당하는 것을 그는 ‘직업’이라고 생각한 것이다.²³⁵⁾(「만덕유령기담」 163쪽)

232) 観音寺はこの島でもっとも大きく由緒のある本山格の寺で、なかなかりっぱな大雄殿を誇りにしていた。しかし万徳の心はそういう世間的なところにあるのではない。寺の炎上で灰になったのは伽藍だけではなかった。万徳の心も灰になってたわいなく崩れてしまったのだ。万徳を魚とすれば、寺は深い広い池であろう。彼は自分のヘソの緒が繋がっていた、ただ一つのものから完全に断ち切られた。彼が一体であった「寺男」と自分とのあいだにパクッとヒビ割れが起るのを見たのはこのときが始まりである。

233) 竹田青嗣, 『〈在日〉という根拠- 恢成 金石範 金鶴泳』, 国文社, 1983, 102쪽.

234) 졸저, 「재일작가 김석범 문학의 다성성 연구-타원 구조와 그 유효성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40권, 2014, 338쪽.

235) パルチザンと部落民との連繫を断つための「歩哨幕」という監視所が到るところにあった。万徳が警察の審査係へ廻されたときは、すでに強制疎開で漢拏山観音寺から下山してS丘寺に移っていたときであり、彼を官制民兵としてS丘の歩哨幕の歩哨に狩り出されていたのだった。それは警察でも認めるところである。そういう具合に強制されたものを彼は「職業」だと考えたのだ。

만덕은 수년 전 강제적으로 일본에 징용 갔을 때의 광산 인부가 최초의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다음은 민병으로 강제적으로 내몰린 보초 역할이 또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만덕은 삶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외압에 강제당하는 상황을 자각하게 된다.

오노인의 아들을 향해 총을 쏘라는 명령에 불복종한 만덕은 처형당하게 되던 날, 몸에 기생하던 벼룩 때문에 간지러워 몸을 비튼 순간, 날아든 총알을 피하고 구사일생으로 시쳇데미에서 살아나오게 된다. 자신이 살아난 것이 알려지면 다시 처형될 것을 두려워한 만덕은 유령처럼 밤에만 생활해야 하는 존재가 된다. 죽은 줄 알았던 만덕을 어둠 속에서 마주친 사람들은 유령이라 생각하고, 무장대와 경찰의 총돌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에서 만덕 유령을 영웅화한 이야기로 제주 민중들 사이에서 미화되며 회자한다.

작품 세계에는 만덕의 기억 속에서 일제 강점기 때 징용에 끌려간 수난의 상황과 해방된 미군정 아래의 조국의 현실을 일직선 위에 놓고 있다. 일제 강점기의 친일파에 의한 횡포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그 겉모습만 다를 뿐, 미군정을 배후로 한 경찰 공권력에 의해 내몰린 양민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역사적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만덕의 행동을 통해 4·3의 실천적 저항 의식을 담아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4·3 소설의 의미

1948년에 발생했던 ‘제주4·3사건’은 한국 현대사의 분기점을 이루는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역사의 기록에서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다. 제주 4·3이 일어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으나, 유독 진상 규명이 늦어지고 불투명했던 것은 해방 전후 시기의 역사에 관한 재검토 과정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분열되었기 때문이다. 사건을 폭동으로 간주하고 진압하려는 국가 권력과 이에 대응하는 이데올로기적 반대의 남로당 측 사람들의 시각의 차가 있다. 여기에 그 사이에서 휩쓸리게 된 제주민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다. 국가적 차원에서 사건에 대한 언급을 오랜 시간 동안 금기시해왔기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역사적 사항 속에

정립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다.

4·3사건 40주년 기념 특집을 다룬 『계간민도』의 내용을 보면, 사건이 미군정 하에 있었던 시대의 소산으로 내외 보도진 출입이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터부시하였고 또 사료의 공급이 막혀있는 북한에서도 4·3을 정당하게 평가하였다고 할 수 없고, 남북의 모든 사정이 사람들의 역사 인식을 편향되게 해왔다²³⁶⁾고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 4·3의 역사적 기록에 문학 작품으로서 그 공백을 메워주고 있는 것이 김석범의 작품이다. 김석범의 4·3 소설은 문학이면서 동시에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고발성을 가지고 있다.

역사와 문학이 판이한 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역사의 실체는 시간의 연속성에 의해 드러나지만, 문학의 실체는 작품 그 자체에서 드러나게 된다.²³⁷⁾ 따라서 역사적 사건을 정립하고 조명하는 데 있어서 문학 작품에서 줄곧 이야기한 역사적 사항에 관한 연구는 중요하다.

김석범의 4·3 소설은 도민보다는 무장대의 활동과 공권력의 대립각을 중심으로 무장대 측의 시점에서 사건을 보는 경향이 있다. 작중 내용에 실제 사례나 모델을 제시하지 않고 사건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4·3의 전체상을 불특정 제주도 민중에 맞추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내 대표적인 4·3 소설인 현기영의 「순이삼촌」(여기서 삼촌은 지역 공동체 의식이 강한 제주에서 혈연관계를 벗어나 가까운 이웃 어른을 남녀 구분 없이 부르는 제주어 표현)과 사건 체험 여부에서 차이를 보인다.

현기영은 어린 시절 고향에서 체험한 4·3의 기억(노형동의 화재 사건)으로 인한 마음속 응어리와 그로 인한 말더듬증을 치유하기 위해 4·3의 피해와 참상을 소설로 그려냈다. 소설에서 실제 모델을 두고 도민 측의 시점에서 과거의 상처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현기영의 소설은 군인 두 명이 무장대의 습격으로 살해된 것을 구실삼아 북촌 주민 400명을 옴팡(구덩이)진 밭에 몰아넣고 난사하여 주민들이 희생당한 ‘북촌주민학살사건’²³⁸⁾을 소재로 하고 있다. ‘삼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이웃 간에 고발과 감시

236) 「濟州島「四·三事件」とは」, 특집Ⅱ濟州島「四·三事件」40周年, 編集部, 『季刊民濤』, 1988年 3号, 86쪽. 事件そのものが、米軍の軍政下にあった時代の所産であるため、内外報道陣の立ち入りが禁止されたばかりか、韓国ではその後もこの問題を扱うことがタブー視されてきたことによる制約が大きい。また、深みのある史料の供給が閉ざされている北朝鮮でも、四・三闘争はこれまで正當に評価されてきたとはいいがなく、こうした南北朝鮮の諸事情が、人々の歴史認識を偏ったものにしてきたのはきわめて遺憾なことである。

237) 김병택, 앞의 책, 19쪽.

를 해야 하고 ‘대살(代殺)’이 이루어졌던 상황을 체험한 등장인물의 회상과 증언을 바탕으로 한다.

반면, 김석범의 소설은 사건으로부터 도망쳐온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 이야기를 구성하고 4·3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역사적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석범은 문학으로써 역사를 재조명하려는 노력으로 초기 4·3 소설을 바탕으로 이후 「화산도」를 비롯한 작가의 작품에서 실제 사건 기록물²³⁹⁾을 참고하며 역사적 사실에 보다 근접하려고 시도하였다. 「화산도」의 이방근의 말처럼 ‘지배하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는’(V, 139쪽) 인간의 자유가 성립되는 보편성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하고자 노력했다.

이 저물어가는 길을 그들은 어디로 돌아가는 것인지, 또 내일을 기다릴 것인지, 그들은 어디에서 어쨌든 기다릴 것이다. 어떻게든 되겠지. 어쩔 수 없지 않은가. 그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반

-
- 238) 박찬식, 『4·3과 제주역사』, 각, 2008, 235~236쪽. 1948년 12월 29일 9연대가 철수하고 함병선 중령이 지휘하는 제2연대로 교체되었다. 2연대는 초기에는 무장대를 산에서 내려오도록 설득하는 귀순 작전을 하였다. 그러나 얼마 없어서 강경한 토벌 작전으로 치달게 되었다. 이때 2연대는 주로 무장대와 연결되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뒤에 해안마을 주민들에 대한 보복으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상당수의 주민은 즉결로 처형해 버렸다. (주한 미군 사령부 G-2 일일보고서, 1949.4.1) 무수한 민간인들이 죽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49년 1월 12일 의귀리 민간인 학살사건과 1949년 1월 17일 북촌리 민간인 학살사건이다.
- 239) 『火山島』 창작 과정에서 주요 참고문헌은 아래와 같다 (출처 : 『火山島』 III 556쪽, VII 518쪽. *표시는 한글본)
- *金奉鉉·金民柱 共篇, 『濟州島人民たちの4·3武装闘争史』, 大阪 文友社, 1963.
 - 金泰鉉, 『濟州島血の歴史-〈4·3〉武装闘争の記録』, 国書刊行会, 1978.
 - 高峻石, 『朝鮮:1945~1950 -革命史への証言』, 三一書房, 1972.
 - 高峻石, 監修·文国柱編著, 『朝鮮社會運動史事典』, 社会評論社, 1981.
 - *吳蘇白,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다(われわれはこうして生きてきた)』, 서울 광화문출판, 1962.
 - *大檢察廳, 『左翼事件実録』, 서울 등사판 印刷, 1964.
 - *金點坤, 『韓国闘争と労働党戰略』, 서울 博英社, 1974.
 - *李敬南, 『西北青年団』 新東亞, 서울 東亞出版社, 1982. 9월호.
 - *張昌國, 『陸士卒業生たち』, 서울『中央日報』, 1983.1.14~21
 - *『東亞日報』, 1948년 1월~6월.
 - *金景俊, 「希望の天を仰ぎ見る女」, 東京『文学芸術』, 第2号, 1961.
 - 内海愛子·村井吉敬 『赤道下の朝鮮人反乱』, 勁草書房, 1980.
 - 張籌根, 『韓国の民間信仰- 論考編, 資料編』, 東京 金花舎, 1973.
 - 許南麒 駅, 『春香伝』 岩波文庫, 岩波書店, 1956.
 - *『朝鮮日報』, 1948년 7월~12월.
 - *玄基榮, 『순이삼촌(順伊おばさん)』, 서울 創作과 批評社, 1979.
 - *아라리 研究院, 金明植編, 『濟州民衆抗爭』, I~III, 서울 소나무, 1988~89.
 - *4·3연구소편 증언자료집, 『이제 와서 말함수다(いまだから話します)』 I~II, 서울 한울, 1989.
 - * 김일, 『섬사람들(島の人々)』, 서울 힘, 1988.
 - *吳成贊 編, 証言集 『한라의 통곡소리 (ハルラの嘆きの声)』, 서울 소나무, 1988.
 - *『4·3研究會 會報 No.2』, 濟州4·3研究所, 1989. 12.
 - *4·3抗爭 42周忌 特集, 『四·三長征』 1990.4月./1993. 9.
 - *제민일보 四·三取材班, 『四·三은 말한다(四·三は語る)』, I~IV, 서울 伝芸苑, 1994~97.
 - 日本語版 『濟州島四·三事件』 第1卷~第3卷, 1994~97. [新幹社 第1卷 文京洙 金重明 共譯, 第2卷 金重明 朴卿丘 共譯, 第3卷 金重明 譯]

드시 살지 않으면 안 된다.²⁴⁰⁾(「1949년 무렵의 일지에서」 559쪽)

작가는 생과 사의 경계에서 극한의 긴장감을 표현하며 비현실적 상황을 이겨내야 한다는 다짐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다. 4·3에서 남겨진 생자(生者)가 4·3에서 희생된 사자(死者)를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다.

만덕정 언저리에서 망나니 영감의 흥얼거리던 목소리가 떨려 왔다.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그는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땅이야말로 내가 의무를 완수하고 생명을 묻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라고 생각했다. 망나니 영감의 슬픈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이를 악물었다. 나는 울어서는 안 된다고.....²⁴¹⁾(「까마귀의 죽음」 88쪽)

‘끝’과 ‘시작’이라는 표현은 삶의 ‘허무’에서 생의 ‘구원’을 회구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비현실적인 4·3의 상황을 자신의 허무한 심경에 비추어보고 어떻게든 극복하려는 의지로 남겨진 생자(生者)의 역할을 스스로 부여하고 있다.

만약에 대한민국 귀신 호적에 원래부터 이름도, 호적도 없는 만덕의 이름과 연관된 유령의 이야기는, 사람들 이야기보따리 속에서 소중하게 간직되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보따리의 끈이 풀릴 때마다 유령은 거기에서 뛰어나와 이 지상을 방황하게 되었다. 어느새 이야기가 떠돌아 세상 사람은 그것을 ‘유령기담’이라 하고, 또 이름을 덧붙여 ‘만덕유령기담’이라고 했다.²⁴²⁾(「만덕유령기담」 242쪽)

살아있는 만덕이 사자(死者)가 되어 유령과 같은 존재로 참혹한 현실에 맞서듯, 4·3의 영혼들을 기억 속에 환기해 회자하길 바라는 작가의 심경을 소설에서 그리고 있다. 작가의 작품은 단혀있는 현실을 두드려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진실을 깨우고, 잘못을 뉘우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²⁴³⁾ 4·3을 소설에서 구현하고 있다.

240) この暮れの道を彼等はどこに帰るのか。また明日を、待つのか、彼等はどこで、どうして待つ積りだろう。何とかなるだろう、ならざるを得ないだろう。彼等は死にはしない。必ず、生きねばならないのだ。

241) 觀徳亭のあたりからでんぼう爺いのふれ廻りの声がふるえてきた。すべは終わり、すべては始まったのだ。— 彼は生きねばならぬと思った。そしてこの土地こそ私が義務を果し、その命を埋めにもっともふさわしい土地だと思った。でんぼう爺いの悲しい声をききながら彼は歯をくいしばった。— おれは泣いてはならぬ、と

242) 若くして、大韓民国製鬼籍に、もともと名無しの、もともと戸籍なしの万徳がその名を連ねた幽霊の話は、人々の話の袋の中にだいに収められた。そしてその話の袋の紐がほどかれるたびに、幽霊はそこから飛び出してこの地上を彷徨するようになった。やがて話が拡がってゆくにつれて、世の人はそれを「幽霊奇譚」とし、さらに名付けてまさに「万徳幽霊奇譚」としたのである。

243) 김석희, 김석범 『까마귀의 죽음』, 역자 후기, 도서출판 각, 2015, 377~378쪽.

V. 재일 체험과 작가 의식

1. 실존의 서사화

김석범은 작품 안에 재일조선인 사회와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사건 안에 작가 자신의 분신을 배치하고 있다. 재일조선인 사회와 조직을 배경으로 한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석범 자신이고 체험을 바탕으로 신변의 이야기를 하는 점에서 일본 문학의 사소설적인 방법론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곽형덕이 언급했듯이 김석범이 사소설과의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체험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픽션의 세계까지를 전부 다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유리된 형식으로 개인의 좁은 반경에서 체험한 것을 재구성하는 사소설과의 차이²⁴⁴⁾를 말한다. 작가는 4·3 소설에서 역사적 사건을 제재로 내면의 허무감을 떨치려는 의도로 창작에 임하였지만, 방법상의 문제에서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에 휘말린 제주도 민중의 이야기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일반적인 사소설과는 거리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일조선인 사회를 배경으로 실제 생활에서 체험한 이야기를 재일조선인 주인공 ‘나’의 꿈속 이야기나 환영, 취기, 의식의 흐름에 따라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점을 앞에서 언급하였다. 작가가 경험한 이야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재일의 삶의 구조가 만들어낸 사회의 문제이다. 즉 등장인물의 심경 안에 김석범이 사적인 세계를 반영하고 있지만, 작가의 작품 세계 속의 재일조선인 ‘나’는 작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재일의 정치적 환경에서 겪어야 했던 사회적 존재인 ‘나’의 문제이다.

작품에서 보이는 재일조선인 주인공의 모습과 작가와의 거리는 때로는 아주 밀접하여 작가 그 자체이면서 한편으로는 재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재일조선인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김석범이 실제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작품화한 것이 「허몽담」이다. 작가는 창작 당시 일본으로의 동화와 고국과의 단절감에서 오는 마음의 격류를 재일

244) 곽형덕, 「‘재일’의 근거로서의 『화산도』」, 『탐라문화』 53호, 2016, 175쪽.

조선인 ‘나’(R)의 허망한 어젯밤의 꿈과 20년 전 해방의 날의 기억 그리고 일상의 이야기를 오가며 표현했다.

주인공 ‘나’가 해방을 맞이한 곳이 일본 땅이고 주변에는 모두 일본인,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도 일본어인 것을 각성한다. 주인공은 악몽 속에서 수많은 소라게가 자신의 배 속 창자를 먹어 치워, 조선 팔도로 오장육부를 채우려고 나그넷길을 떠났다가 홍길동과 만난다. 정대성은 작중에 홍길동이 주인공에게 ‘너는 조선의 창자가 없다.’라고 한 부분에서 조선의 창자는 곧 ‘조선의 혼’이라고 보고, 일본어로 쓴다는 것은 언어에 깃들여져 있어야 할 언령(言靈, 고토다마)이 이미 일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작가의 자기반성의 의미²⁴⁵)라고 했다. 재일조선인은 일상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일본어나 일본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본 사회로부터 동화와 단절과 배제의 문제를 체험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를 형상화하고 있다.

작중에 ‘나’는 ‘소라게’라는 말이 ‘조선말’로 기억나지 않아 조사해서 알아보겠다고 생각한다. 고국과의 단절과 동화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내려는 작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밤」의 재일조선인 주인공 ‘나’(임씨)는 북송선을 타는 재일조선인들의 모습과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국땅 일본에서 삶을 마감한 어머니를 회상하며, 고향·고국의 의미를 생각하는 인물이다. 작중 내용을 보면 김석범은 귀국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막연하게 제주도 그 자체가 고향이며 고국으로 인식하고 언젠가는 돌아갈 곳이라는 생각만 비칠 뿐,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김석범이 지금도 무국적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고국에 대한 불확실성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고향 제주와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일본, 그리고 북한의 이념 아래 혁명 사업을 했던 재일조선인 조직에서의 이력 등을 생각할 때 고국은 결정하기에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

김석범은 ‘나는 조국이 없는 인간이다. ‘남’도 ‘북’도 조국이 아니다. 통일된 조국, 그것이 나의 조국이다’²⁴⁶)라고 하며 분단의 상징적 존재로 강렬하게 통일을 지향하는 전위(前衛)적 자세를 가지고 있다. 김석범은 조국 분단의 상황에서 남과 북을 뛰어넘

245) 정대성, 「작가 김석범의 인생역정, 작품세계, 사상과 행동- 서론적인 소모로서-」, 『한일민족문제연구』 9권, 2005, 7쪽.

246) 金石範, 「在日にとっての 國籍について」, 『新編「在日」の思想』, 講談社, 2001, 114쪽.

는 분단 이전의 통일된 ‘조선’의 모습을 바라보는 자립성을 가진 존재로 재일의 창조성을 강조한다.

「도상」의 재일조선인 주인공 ‘나’(마달부)는 1968년 김석범이 조직을 이탈하고 겪게 되는 불안한 심리에서 6년 만에 소설 속에 만든 인물이다. 사회주의 사상이 정치선전의 수단이 되고 교조주의로 얼룩진 조직 내에서 자유로운 글쓰기가 불가능해진 김석범이 조직에서 막 이탈하고 좌익 조직(조총련)으로부터의 위협과 우익 조직(민단)의 회유 공작을 겪게 된 일련의 일들을 주인공의 삶을 통해 그리고 있다.

주인공은 좌우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앞으로 조직 밖에서 문학을 통해 조직을 비판하는 문학 활동을 이어가고자 하는 삶의 전환 의지를 보인다. 작가는 작중 인물을 내세워 자신의 사상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이념적으로 사회주의적 좌익사상을 가지고 남과 북 체제의 경계에서 균형감을 가지고 작품을 쓰면서 정치적 활동을 이어가려는 태도를 보인다.

「왕생이문」에서 김석범은 교원 생활을 했던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투영된 재일조선인 ‘나’(공상오)를 설정하고 있다. 작중에는 가혹할 만큼 자조적인 자세로 삶을 살았던 황태수의 삶을 주인공 ‘나’가 일거수일투족을 좇으며 관찰자의 관점에서 재일조선인들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

해방 전 좌익 성향의 황태수는 당을 만들고 반전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일본의 치안유지법 위반자가 되어 감옥에서 갖은 고문을 받고 병을 얻는다. 황태수는 해방을 맞이하기 얼마 전, 일본 정부의 강요와 옥중 동지들의 권유 때문에 마지못해 전향상신서(轉向上申書)를 작성한다. 해방 후 그의 전향이라는 과거의 행적은 스스로가 민족주의자의 양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황태수는 조총련 조직의 지도층이 전향한 이력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해방 후에 혁명 활동가를 자처하고 재일사회에 동화되어 있는 모습에 거부 반응을 보이고 비판적 행동을 취하지만, 결국 일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정신분열 증세로 객사한 불행한 재일조선인의 모습이다.

김석범은 주인공 ‘나’의 시각에서 황태수의 죽음을 둘러싸고 그의 삶을 추적하며 자신을 포함한 재일조선인 조직원들이 해방 전후로 삶의 모습이 변질하지 않았는지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작열하는 어둠」의 재일조선인 주인공 ‘나’(김백담)는 조직 안에서의 글쓰기도 혁명적 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나’는 광고 영업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S 시에 있는 조직의 모금 활동에 동원된다. 김석범의 실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는 곧 작가 자신이며, S 시는 조직의 신문사가 있던 센다이이다.

김석범은 조직 활동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하고 나서 깊은 허무감에 빠지게 된 주인공 ‘나’의 이야기와 조직에서 혁명적 실천 운동에 실패한 후 자살한 친구 정세운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조직에서 열성적 행동과였던 친구 양철승이 북으로 간 이후 행방 불명된 이야기를 통해 실천적 혁명 의지를 다지고 살았던 재일조선인 조직원들의 젊은 시절을 돌아보고 지난날에 대한 회한과 허무감을 표현하고 있다.

김석범은 조직을 나오고 20여 년이 지난 1993년 작품 안에서 비로소 조직에 대한 불신과 왜 조직을 이탈하게 되었는지를 자신과 동지들의 옛 모습과 경험한 이야기를 고백하듯 되새기고 있다.

작가는 작품 속 인물로 자신이나 분신을 설정해서 역사의 정치적 사건을 배경으로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간 인물의 행동을 다루고 있지만, 사건 자체의 전개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기술은 피하고 있다. 작중에서는 개인이 현실에 적응하는 문제와 개인의 미래에 관한 것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김석범은 문학으로써 편향된 정치와 굴곡의 역사로 인한 재일조선인들의 갈등 요인을 그리고 있다. 작가는 재일조선인의 허무감과 조국과의 단절감에서 오는 심경을 의식의 표층으로 끌어내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남한과 북한의 체제,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환경에서 오는 갈등 구조에 놓인 인간의 보편성의 문제를 그리고 있다.

2. 재일 체험과 문학적 형상화

김석범은 1969년 10년 만에 일본어로 쓴 「허몽담」을 발표한 시기부터 정치적 발언을 본격적으로 작품화한다. 1968년 조총련 조직에서의 탈퇴로 작가의 작품세계에 4·3 문학과 더불어 정치적 상황의 형상화라는 하나의 독창성을 가지게 된다.

작중에서 그리고 있는 정치적 상황과 사건에 관한 형상을 살펴보면, 구체적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주인공 또는 등장인물의 입을 통해 상황과 사건에 관해 말하도록 하는 태도를 보인다.

「허몽담」에서 재일조선인 주인공이 외국인등록증을 ‘잊고 외출한 날은 온종일 마음이 불안하다. 언제 어디서든, 항시 휴대하여 경찰이 요구하면 반드시 제시할 것’(139쪽)이라는 재일조선인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끌어들이며 일본 사회로부터의 단절감을 드러낸다. 김석범은 외국인등록증을 항시 소지하고 있는 이유가 재일조선인이 관련된 사건을 마주하게 되면 경찰이 왔을 때 당당하게 재일조선인으로서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²⁴⁷⁾라는 생각을 가지고 재일조선인으로 일본의 정치적 환경에서 겪어야 하는 실존의 문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김석범의 단절감은 일본의 귀화정책이 국적법에 따른 귀화의 요건과는 다르다는 입장에서 나타난다. 조선계 일본 시민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귀화 후는 일본식 성명으로 개명해야 하는 등, 엄격한 체크 항목을 호적에 기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선인의 흔적을 요컨대 민족성을 말살하고 완전히 일본인으로서의 동화를 강요²⁴⁸⁾로 보고 있다.

김석범은 일본의 귀화정책을 일본과 일체화하지 않는 자에 대한 배제로 보고, 이에 복종하지 않는 자를 응징하던 일제 강점기의 황국신민화 정책의 연장으로 인식한다. 치마저고리 습격 사건에 관해서도 일본 사회에서 배제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치마저고리 사냥’은 여학생들이 이용하는 역이나 전차 안, 또는 길 등에서 일어나고, 치마를 찢을 뿐만 아니라, 등이나 배를 때려 입원하게 하거나, 뒤에서 목을 조르고, ‘조선인은 돌아가라 전철을 타지마...’등의 폭언. 이들 폭행범은 중년 남성부터 20대 여성에 이른다. 폭행은 전국에서 7월 말까지 약 160건이다.

그런데 저고리 입은 여인들이 습격당할 때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지만, 주위에서 무관심했다는 것도 나를 자극했다.²⁴⁹⁾

247) 金石範, 「在日とはなにか」, 『新編「在日」の思想』, 講談社, 2001, 91쪽.

248) 金石範, 앞의 책, 73쪽. 日本政府の帰化政策、具体的には国籍法による帰化の要件とは、たとえば朝鮮系日本市民を保障するといったものではない。帰化後は日本式氏名に改名せねばならぬなどその他に厳しいチェック事項は、戸籍記載はともかく、外形上は朝鮮人の痕跡を、つまりその民族性を抹殺して全く日本人への同化を強いるものになっているのである。

249) 金石範, 「天皇制とチマ・チョゴリ」, 『新編「在日」の思想』, 講談社, 2001, 91쪽. "チマ・チョゴリ狩り"は女子生徒たちが利用するこういった駅や電中、または路上などで起こっていて、スカートの切り裂きだけではなく、背中や腹を殴られて入院したり、後ろから羽交い締めにされたり、朝鮮人は帰れ、電車に乗るな.....等々の暴言。これらの襲撃者は、中年男性から二十代の女性に及び、暴行は全国で七月末までに約百六十件である。ところがチョゴリ姿の彼女たちが襲撃にあって、助けを呼んでいるのに、周囲が無関心だったということも私を刺戟

김석범은 재일조선인을 적대시하는 감정이 일본 사회 일부에서 치마저고리로 상징화되어 마녀사냥식의 형태를 보인 것이라고 비판적 태도를 취한다.

「밤」에서 재일조선인들에게 ‘귀국’은 귀환의 장소로서 고향 ‘제주’와 ‘북한’을 두고 선택의 기로 서게 한다. 북으로의 귀환이 실현된 이래 재일조선인에게 북한의 혁명적 사회주의가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줄 거라는 기대와 식민지 시절 지배국이었던 일본으로부터 나갈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했다. 여기에 조총련이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분위기를 조장한 것이 재일조선인들이 북으로의 귀환을 결심하게 했다. 작중에 ‘제주’로의 귀향은 4·3을 체험한 난녀와 비체험자인 남편과의 언쟁에서 그리고 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당장은 북에 갈 수가 없어. 고향은 역시 고향이야. 당신이 말하는 고향과 진짜 고향과는 다르지.(중략)

그건 알아요. 하지만 고향에 대해 당신과 나는 생각이 달라요..... 당신은 정말 모를 거예요. 나중에 아이들은 보내겠어요. 나는 안 가요. 두 번 다시 가면 사람의 자식이 아니에요.250) (「밤」 448쪽)

어머니가 살고 계신 곳이 고향이며, 고향 땅으로 가는 것이 ‘귀국’이라는 남편의 입장과 난녀가 대립각을 보인다. 진정한 귀국이 무엇인지에 관한 부부의 설전으로 작가의 고민을 드러내고 있다. 작중 ‘나’의 심경은 북으로의 귀환 분위기에 동조하지 않고 관망하는 자세로 마음속 고향 ‘제주’가 고국이라는 생각에서 멈추고 있다.

‘돌아간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겁다.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잡니다.’도 아니고 ‘돌아간다.’고 하는 주체적인 발언의 배경에는 아마 그 의식에 “조국”이 있었을 것이다. 미지의 땅을 앞에 두고 ‘나는 돌아가겠습니다.’라는 말의 울림에는 사람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이 있다. 나는 여기에 재일 2세의 사상과 자기 검증의 창조적인 전개를 본다. 일본의 ‘뱀’에 따라 ‘돌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는 조선인이다.’라는 광야에서 외치는 인간 선언의 목소리이다.251)

した。

250) 「おまえも知っているようにな、わしはすぐには北朝鮮へはいかれへんで。故郷はやっばし故郷や、おまえのいうてる故郷とほんまの故郷とは別々のもんやで。」(中略)

「それは知ってます。だけどふるさとに対するあなたとあたしの考えはちがうのよ。……あなたにはやっぱり分らないのよ。将来子供はいかせましょう、私はいかない。もう二度といくのは人間の子ではありませんから。」

251) 金石範, 「在日とはなにか」, 『新編「在日」の思想』, 講談社, 2001, 80~81쪽. 「帰る」ということばの意味は重い。「帰らされる」のではなく、また「行きます」でもなく、「帰る」という主体的な発言の背景には、おそらく意識の上での“祖国”があったことだろう。未知の土地をまえにしての「私は帰ります」ということばの響きには人の胸を刺すものが

북송선이 향하고 있는 북한은 살아본 적이 없는 미지의 세계이다. 김석범은 작중 이야기를 통해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보다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재일조선인의 처지에 귀환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돌아갈 나라가 존재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고 당당한 일본에서 나갈 수 있음에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보편적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도상」에서는 1960년대 말 ‘김병식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 사건의 정황에 대한 설명은 없다. 한덕수(작중 인물 Y)와 심복인 김병식(작중 인물 Z)을 중심으로 한 권력 그룹이 관료주의적으로 조직 운영을 하고 있다고만 기술하고 있다. 자신들에게 충성만을 강요하고 이것이 곧 조국과 김일성에 대한 충성임을 강요한다는 내용을 주인공 마달부의 입을 통해 표현할 뿐이다.

‘조선문제연구소’ 소장이 되고자 했던 김병식은 대중적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는 선후배를 숙청하고,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에 따른 약화된 조총련의 책임을 ‘김일성 절대화를 거부한 반대파 때문’으로 몰아세웠다. 북한으로 귀환한 재일조선인 사업자들의 회사를 자신의 휘하에 놓고 자금력을 키우려고, ‘올빼미부대’라고 불렀던 김병식 친위대를 동원해 폭력과 테러를 일삼았던 ‘김병식 사건’에 관해서는 간략하게 그리고 있다.

작중에 마달부는 누군가로부터 감시당하는 것에 신경을 쓰며, 자꾸 주변을 의식한다. ‘올빼미부대는 아직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거슬림을 동반하고 있다.’(23쪽) 라고 언급할 뿐, 구체적으로 올빼미부대에 대한 기술은 없다. 그리고 ‘의문사 사건’이나 ‘자살 사건’ 등,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를 비롯한 모든 선전수단을 동원하여 ‘반당분자’ ‘한국 정보기관의 첩자’라는 식으로 공격했던 일련의 사건에 관해서 작품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다. 다만, 조총련 내에서 1972년부터 김병식을 비판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그를 북으로 소환하는 것으로 사태가 수습되었다. 이 사건은 조총련 내에 화근을 남기고 많은 사람이 이 시기에 조총련을 떠났다는 내용만을 등장인물을 통해 전하고 있다.

이것은 김석범이 1968년 조직에서 완전히 이탈하게 되는 시점과 거의 사건이 맞물려 있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지 않은 하나의 이유로 보인다.

ある。私はここに在日二世の思想、自己検証の創造的な展開を見る。日本の"法"に従って「帰る」といっているのではない。それはおれは朝鮮人なのだ"という、曠野で叫ぶような人間宣言の声である。

재일조선인 주인공 황태수의 옥중 ‘전향문제’를 다루고 있는 「왕생이문」은 1945년 10월 김석범이 송태옥과 동행해서 부중(府中) 교도소 안의 예방감금소를 방문하여 도쿠다 큐이치(徳田球一)와 시가 요시오(志賀義雄) 등을 만난²⁵²⁾ 실제 경험을 이야기로 만들어진 것이다. 황태수가 실제 송태옥이라는 인물이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작중에 ‘GHQ의 명령으로 부중(府中) 교도소에서 석방된 도쿠다와 시가 그 외의 「출옥전사」를 400여 명이 마중 나갔고, 도쿄 비행회관에서 성대한 출옥 환영대회를 했던 것도 재일조선인들이었다’(438쪽)라는 표현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협화회에서 ‘내선일체’와 ‘성전완수’를 외친 재일조선인이 그로부터 2년이 지나 조직의 간부가 되어 ‘전향’을 입에 담고 사람을 매도하는 시대(131쪽)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작가는 황태수의 전향이 ‘위장’이었건 아니면 목숨을 위한 타협이었건 비굴하게 재일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돌이킬 수 없는 과오로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결국 낙오자의 죽음으로 마무리하며, 해방 전 계급투쟁과 식민지 독립 투쟁을 했던 활동까지 부정당하는 재일조선인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작열하는 어둠」에서 ‘4·24 한신교육투쟁’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이나, 재일조선인 사회에 어떠한 피해가 있었는지, 또 투쟁의 결과로 재일조선인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극히 부분적이다. 다만, 작가는 주인공 ‘나’가 투쟁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체험한 상황을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다.

작가가 ‘4·24한신교육사건’을 이야기에 끌어들이는 것은 주인공이 민족교육학교 폐쇄에 반대하는 과거 혁명 운동에 참여한 이력과 정세운이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시켜 자살하기 전에 GHQ의 통역사로서 자신들과는 대립하는 측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다.

정세운은 조직 활동을 하면서 과거 자신의 행동에 후회하고 결국에는 깊은 니힐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주인공 ‘나’는 그런 정세운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정작 조직 이탈자인 자신의 고독과 허무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심경을 그리고 있다.

김석범의 소설은 역사적 현실 속의 사건에 대한 발단과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기술하고 있지 않지만, 객관적 현실에 관한 자의적 해석을 감상이라고 보고 배척하며 작가는 현실에 바탕을 둔 리얼리즘에 가치를 두고 작품을 쓰고 있다.

252) 宋惠媛., 앞의 글, 605쪽, 「八一五解放」後、急激に虚無的になって内に閉じこもりだす。社会主義志向との相克が強い。10月宋太玉と同行して府中刑務所内の予防抱禁所を訪問、徳田球一・志賀義雄らに会う。

자신이 사건을 체험하며 겪은 일에 살을 붙이듯 허구의 세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등장 인물에 투영된 자신의 모습을 객관화시키며 개인 ‘나’의 문제를 사회적 존재인 ‘나’의 문제로 끌어내고 있다.

3. 4·3 정명을 위한 김석범 소설 읽기

작가의 작품 세계는 사건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나 사건 자체에 관한 기술에서 비껴나 있다. 작가의 4·3 소설이 자신이 직접 체험하지 못한 사건에 관한 문학적 형상화로 과연 실제 사건과 어떤 개연성을 가졌는지도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작가의 소설은 학살당한 자식과 부모의 죽음 앞에 마음껏 통곡할 수 없었던 4·3을 재현하여, 슬퍼할 자유마저 박탈당한 인간의 자유에 관하여 물음을 던지고, 자신이 겪는 니힐리즘의 극복을 위한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다.

내가 쓰고 있는 세계는 허구의 세계이지만, 현실 세계를 전제로 하면서 억압된 세계 속에 갇힌 인간의 존재 방식, 나의 발상은 그러한 곳까지 미치지 못했다. (중략)

4·3에 대한 접근방식은 제주도만이 아니라, 모든 정치가 초래하는 극한의 폭력 속에서 침묵을 강요받고 말을 할 수 없었던 인간의 마음이라면 체험자의 마음은 파괴되어 있으니까요. 253)

작가의 4·3에 대한 접근 방식도 정치와 권력이 초래한 폭력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을 표면화시키기 위해 등장인물의 모습에 조금씩 반영하고 있다.

「1949년 무렵의 일지에서」는 재일인 ‘나’의 입장에서 참혹한 현실을 앞에 두고 체험과 비통함에 할 말을 잃은 작가의 모습이 투영돼 있다. 일본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건너가 사건 현장의 참혹함을 마주한 주인공은 4·3의 실상에 압도된 관찰자의 입장일 수밖에 없다. 작품의 내용은 4·3으로부터 피난한 피해자의 증언을 듣고 난 후의 감상과 수집한 정보, 그리고 어릴 때 잠시 머물렀던 제주도의 모습을 상상하고, 자신은 외부자로 사건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단계에서의 사건의 형상이다.

253) 金石範, 『《火山島》小説世界を語る!』, 右文書院, 2010. 33쪽. 私が書いていた世界は虚構の世界ではあったけれども、現実の世界を前提にしながら抑圧された世界のなかに閉じこめられた人間の存在のありかた、私の発想はそういったところまで届いていなかったんですよ。(中略)

四・三への接し方は、濟州島だけでなく、あらゆる政治がもたらす極限の暴力のなかで沈黙を強いられて言うことも言えずに生きてきた人間の心の状態と言いますか、体験者の心は破壊されていますからね。

김석범이 「까마귀의 죽음」을 창작한 것은 조총련 조직에서 활동하던 시기이다. 작가는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 사상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제주섬의 ‘소요’ 진압을 위해서 남한 정부와 미군이 전술 병력뿐만 아니라 국방경비대와 해안 경비대, 경찰 병력까지 파견해 지휘, 작전, 보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²⁵⁴⁾을 한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무장대의 혁명적 활동상과 제주민의 수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인공 정기준은 해방된 공간에서 일제 강점기에 친일했던 자와 미군정에 의해 비합리 상황이 만들어진 데에 분노한다. 정기준이란 인물은 실제 작가가 선학원에서 함께 조선 독립운동을 할 때 알고 지냈던 실천적 혁명사상이 강한 장용석과 미군의 통역으로 재일조선인 민족교육 운동과 대립적 위치에 있다가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 정세운이라는 두 사람을 모델로 하고 있다.

작가는 비밀당원의 신분으로 가면 속에 본 모습을 숨기며 살아가는 정기준이라는 인물의 행적과 심리묘사를 통해 조직과 4·3의 현실 대해 저항의 분노를 드러낸다.

70년대 들어와 작가는 「만덕유령기담」에서 4·3에 대한 사건 자체의 전개보다는 민중의 시각에서 공권력에 대한 저항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민담 형식으로 4·3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대중에게 좀 더 가깝게 소개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

만덕은 사건과 무관한 삶을 살던 사람이다. 자신의 전부라 생각하는 관음사가 공권력에 의해 소각되는 일을 겪고 외부적 상황이 인간의 본성을 변화하게 하고, 자신도 권력자처럼 경관들의 거처가 되어버린 S 절을 방화한다. 적극적 저항 의식을 보였지만, 이념적인 저항을 표출한 것은 아니었다.

4·3 소설 속의 제주 사람들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나 북한을 지지하기 때문에 봉기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실존적 저항이거나 절망적 투쟁이었다²⁵⁵⁾는 점에 김석범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작가의 4·3 소설은 증언과 정보가 조금씩 늘어가면서 장편 「화산도」에 와서는 이야기 자체가 기록화 되어 가면서 다양한 인간 군상을 등장시켜 거대한 역사를 소설로 완성한다. 주요 등장인물 이방근은 작가의 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인물로 이데올로기에 치우치지 않고 강한 현실 비판 의식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좌익 운동에 가담하며 실천적 혁명 운동에 가담한 남승지, 해방된 조국의 현실에 절망하고 무장봉기가

254) 허상수, 『4·3과 미국』, 다락방, 290쪽.

255) 허상수, 앞의 책, 286쪽.

과연 승산이 있는가 하는 냉철한 안목의 소유자 양준오 등이 작가의 의식 속에서 탄생한 인물들이다.

2001년 발표한 「만월」²⁵⁶⁾에서는 4·3에 관한 보다 많은 증언과 정보를 바탕으로 제주도의 토속 신앙과 문화를 작품에 소개하고 있다. 무의식 세계의 매개체 역할로 무당을 등장시키고, 체험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작가의 4·3 소설은 다양성을 갖게 되었다.

하야시 고지는 전후 일본 제국주의의 멍에에서 해방되어 독립된 조국 건설 운동에 힘써야 할 상황에서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 등의 싸움의 장이 된 제주도는 김석범에게 민족의식을 상징하는 공간²⁵⁷⁾이라고 했다. 작가는 제주도를 지리적 공간의 실체를 넘어서는 ‘이데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4·3의 현장에서의 인간의 생존 방법에 대한 의미를 조명하고 있다.

김석범의 문학적 의도는 권력과의 싸움이라고 강조한 나카무라는 4·3 후반에는 게릴라 측에 의한 학살도 있었고, 봉기가 극좌모험주의였던 측면도 있을 것이라 언급하였다. 그렇지만 봉기는 해방과 독립을 위해 미군정과 민족 반역자에 대한 ‘의거’이고 ‘민중항쟁’으로, 4·3의 정명을 둘러싼 싸움은 죽은 자에게 정의를 환기하는 작업²⁵⁸⁾이라고 하였다.

작가가 상상력을 바탕으로 4·3의 역사적 사건을 소설로 구체화한 것은 권력에 의한 학살과 구속된 사람들을 해방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바라는 심경에서이다. 함몰된 역사에 대한 강한 표현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불투명한 재일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내적 동기와 이어지고 있다. 재일조선인의 관찰자적 입장에 의해 4·3을 구성하고 상상력, 창의력에 의해 현실을 재현하는 것으로 역사의 기록을 다시금 조명하게 하는 힘을 발휘한다.

김석범 문학이 서사화가 용이하지 않은 격동기 해방정국의 정치 이데올로기 상황(미군정, 이승만 정권, 남북분단 등)과 굴절된 제주도(제주4·3사건)의 사회문화 지점

256) 『만월(滿月)』은 『군상(群像)』 2001년 4월호에 발표되었다. 4·3 당시 보름날(滿月) 밤에 어머니와 함께 총살당할 위기에서 아기였던 문성규가 기적적으로 생존하게 된다. 10대 후반에 일본으로 건너간 그는 사건 후 50년이 지나 비로소 4·3 사실과 마주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어머니의 시체 옆에 떨어져 있던 붉은 동백꽃이 오사카와 제주도, 生者の 세계와 死者의 세계를 연결하며 문성규를 과거로 이끈다.

257) 林浩治, 「金石範文学論·在日の実存を濟州島に結ぶ—イデーとしての濟州島—」 『神奈川大学評論 / 神奈川大学評論編集専門委員会 編』, 2016. 180쪽.

258) 中村一成, 앞의 글, 340쪽.

을 거대한 이야기의 세계로 담아냈고 있다.²⁵⁹⁾ 작가의 4·3 소설은 분열된 이데올로기에 의해 과거의 역사 속에서 오류를 범했던 인간의 모습을 되새겨보고, 그 안에서 인권을 유린당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한다. 작가의 작품 속 허구의 세계가 주는 사실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김석범의 작품 연구는 역사 속에서 4·3의 정명(正名)을 위한 기초 작업에 작가의 작품 연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명이라는 말은 ‘불의(不義)한 일에 “정의”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그것을 “불의”라고 하고 바로 잡겠다.’ 즉 이름을 바로 하겠다는 공자의 말을 의미한다. 이봉호의 논문을 보면, ‘공자는 춘추시대 당시의 혼란이 일어난 원인을 ‘언어적 질서가 바르지 못함(名不正)’으로 보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명을 제시했다. 공자는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예악과 형벌이 적절하게 시행되지 못하며, 이는 백성들의 삶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른다고 본다. 그래서 정치에서 급선무는 이름을 바로 잡는 것으로 제시했다’²⁶⁰⁾고 했다. 제주 4·3은 때로는 제대로 된 이름 없이 그저 ‘사건’으로만 불리고 있었다. ‘4·3의 정명(正名) 운동’에서 정명은 4·3을 사건, 사태, 항쟁이라고 불리는 데에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제대로 된 명칭을 써야 한다는 의미이다.

작가는 문학적 업적을 인정받아 일본에서는 「화산도」 전 3권 제1부 완결로 1983년 제11회 오사라키지로(大佛次郎)상과, 1997년 「화산도」 제2부 전 7권 완료 후, 제39회 마이니치(毎日)예술상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4·3의 진상을 규명하고, 평화적 인권운동을 펼쳐온 상징적 인물로 평가되어 2015년 4월에 첫 제주4·3평화상²⁶¹⁾과, 분쟁, 차별, 폭력, 전쟁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사유하고 극복하기 위한 문학적 실천으로 제1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²⁶²⁾을 받았다.

259) 김환기, 「김석범·화산도·<제주4·3>- 화산도」외 역사적/문학사적 의미 -, 『일본학』 41호, 2015. 10쪽.

260) 이봉호, 「공자의 ‘正名’과 노자의 ‘非常名’- 노자의 도와 소쉬르의 언어학: 제대로 된 만남 -, 『哲學研究』, 제 148집, 2018, 272~273쪽.

261) ‘제주4·3평화상’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처참한 제노사이드인 제주4·3사건을 화해와 상생의 신념으로 해결한 제주민의 평화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공익법인인 제주4·3평화재단이 제정한 상임. 수상 대상자는 제주4·3사건의 해결에 기여했거나 인류 평화, 인권 신장, 민주 발전, 사회 통합에 공헌한 국제적인 인사를 선정 시상함. 범국제적으로 제주4·3운동의 발원이 됐던 1988년 4·3사건 40주년 동경 추모행사는 김석범과 그의 문학이 큰 원동력이 되었으며, 1987년 탄생한 ‘제주도4·3사건을 생각하는 모임. 도쿄’를 주도하는 이론적 리더로 이 모임을 발전시켜오고 있으며, 이어서 ‘4·3을 생각하는 모임. 오사카’의 결성과 이들 단체를 통한 4·3과 세계 평화, 인권에 관한 문제를 확산 시켜 왔다.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 보도자료」 2015. 3. 30.

262) 통일로 문학상은 분단문학을 주로 다뤘은 소설가 이호철(1932~2016)을 기리는 문학상이다. 이 상의 의미는, 남과 북으로 분절된 민족의 대립·충돌·갈등을 문학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을 뿐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의 분쟁, 차별, 폭력, 전쟁으로 인한 문제를 함께 사유하고 극복할 수 있는 문학적 실천이다. 1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은 「화산도」 등을 통해 제주 4·3사건을 알린 공을 인정하여 작가 김석범이 수상했다.

작가의 작품에 대한 문학적 평가 이전에 2015년 10월에는 수상소감²⁶³⁾이 이념 논쟁에 휘말려 『화산도』와 『까마귀의 죽음』이 국내에서 완역되어 재출간되면서 작가 초청 행사에 한국 정부로부터 입국이 거부되었고, 2017년에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수 있었다. 불과 2년의 세월 차이로 한국으로의 입국이 ‘鬼門’을 통과한다고 할 정도로 정권의 분위기에 따라 순탄하지 않다.

무국적 신분인 작가의 국적을 둘러싸고 국내 입국이 몇 차례 문제시되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조선적’은 한일 양국에서 인정되지 않아 제주 4·3사건 5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할 당시에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것, 정치 활동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입국 조건에 작가가 응하지 않자, 입국 불허의 상황까지 갔다. 결국에는 심포지엄 참가자들의 항의 성명이 받아들여지게 되어 폐회 날에 입국하였다.

나의 입국 허가는 한국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전진과 신정부의 민주적 성격을 나타내고, 그리고 나 개인을 넘어 정부가 제주도 4·3 국제심포지엄-학술대회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의미는 크다.²⁶⁴⁾

이렇게 작가는 자신의 입국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작가의 정치적 발언은 작품에 대한 평가 이전에 작가의 사상 평가가 우선시되어 사회적 공론을 일으키게 되었고 정치적 맥락에 가려 그 문학성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작가가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사상과 연관해서 그의 문학을 바라보면 김석범의 문학은 정치적 해석에 그치게 된다. 작가는 『화산도』 번역 출판에 즈음하여 국내 입국이 불가능한 시점에 일본에서 자신의 문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보내왔다.

문학이 정치와 대립하는 것은 정치가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억압하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2017.09.07. (<http://news.chosun.com>.)

263) 김석범은 평화상 수상에서 “남한 만의 단독정부, 반공이 국시인 대한민국, 그 정부의 정통성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 제주도를 소련의 앞잡이 빨갱이 섬으로 몰았다. 그리고 “해방 전에는 민족을 팔아먹은 친일파, 해방 후에는 반공 세력, 친미 세력으로 변신한 민족반역자들이 틀어잡은 정권이 제주도를 젖먹이 갓난아기까지 빨갱이로 몰아붙였다.”는 말과 함께, “이승만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표방했지만, 과연 친일파, 민족반역자 세력을 바탕으로 구성된 이승만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할 수 있었겠느냐? 여기서부터 역사의 왜곡, 거짓이 정면에 드러났으며, 이에 맞서 단선·단정 수립에 대한 전국적인 치열한 반대 투쟁이 일어났고, 그 동일 선상에서 일어난 것이 4.3사건이었다.”라는 소감을 발표하였다.

『4·3 “문제없다”고 해놓고 뒤통수, 4·3평화상 감사 요청한 정부』 제주의 소리, 2015.04.14. (<http://www.jejuori.net>)

264) 金石範, 「韓国民主化は実ったか」, 『新編「在日」の思想』, 講談社, 2001, 274쪽.

私の入国許可は韓国における民主主義の前進と新政府の民主的性格を表わし、そして私個人を超えて政府が濟州島四・三国際シンポ-學術大会を公的に認めたことを意味するもので、その意味は大きい。

폭력으로 변하여 마물(魔物) 노릇을 하기 마련이기에 문학이 정치를 위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학의 정치성이란 정치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의 위장(胃腸) 안에서 정치를 녹이고 소화하여 자신의 삶과 뼈로 만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²⁶⁵⁾

김석범은 소설이나 비평에 한국 정부와 재일조선인 조직에 관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며 정치적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조직에 관한 비판 의식은 이탈하기 전부터 작품에 나타난다. 「까마귀의 죽음」에 조직의 비밀 당원인 정기준이 애인 양순이의 죽음 앞에 ‘당을 미워하고 조국을 미워한다.’(75쪽) 라는 심경 표현으로 당을 향해 비판하고 있다. 작가는 「까마귀 죽음」은 조총련 조직에 활동하는 중에 당에 대한 비판 의식을 작품에 표현함으로써 자신은 정치적이지만, 정치에 복종하지 않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였다.

문학은, 모든 것이 자유가 아니면 안 됩니다. 자유의 개념도 여러 가지 있지만, 단순히 언론의 자유라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공산당 이데올로기에는 그러한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당의 일정한 방침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문학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속에서 쓸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원이면서, 그 당의 문학 방침과 잘 맞지 않는 작가도 있습니다. 나의 경우, 그러한 조직과 잘 타협해서 갈 수 있는 타입이 아닙니다. 나는 훨씬 이전에 그 조직을 떠났으니까요.²⁶⁶⁾

작가는 한글로 발행하던 『문학예술』의 편집장이었지만, 『문예수도』에 일본어로 「까마귀의 죽음」을 발표했다. 당시 책을 내는 것은 조총련의 문예동(재일조선문학예술동맹)로부터 비준을 받아야 했기에 외면됐다. ‘일본어가 아닌 것,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아닌 것, 김일성을 추앙하는 내용이 아닌 것,’ 이라는 이유로 조총련의 부의장 허남기가 완곡하게 부인하였다.²⁶⁷⁾ 작가는 소설의 출발점에서부터 지배하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는 문학적 자유정신으로 문학으로서 정치적인 활동을 이어가고자 했다. 작가

265) 김석범, 「『火山島』에 대하여」 특별기획 일본에서 온 편지, 1988. 6.13, 454쪽.

266) 金石範, 『《火山島》小説世界を語る!』, 右文書院, 2010. 256쪽. 文学はね、というか、あらゆるものは自由でなければいけない。自由の概念もいろいろありますけどね。単に言論の自由でもいいじゃないですか。極端に言えば、共産党のイデオロギーには、そういう言論の自由がないです。党の一定の方針があって、その範囲内で文学するというのは難しいです。そのなかで書ける人もいると思うんだけど、黨員だけどその党の文学方針とうまくいかない作家もいるわけです。私のばあい、そういった組織とうまく折りあっていけるタイプじゃないです。私はもうずっと以前にそういった組織から離れましたから。

267) 金石範, 앞의 책, 267쪽.

의 4·3 대한 집착은 좌절된 자신의 사상을 4·3의 역사적 현실로 재구성하려는 노력이다.

4·3에 관련해서 작품을 쓰는 것은, 인간의 자유라는 문제와도 관계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라는 것은 역시 보편적입니다. 개별적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개인을 뛰어넘습니다. 픽션의 문제에서도 역시 인간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 살아가므로 거기에 보편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개인을 초월하는 것, 개인이지만 문학은 개개인을 뛰어넘는 문제를 읽는다는 것이다. 거기에 또 다른 개개인이 공감을 가진다는 것, 그것이 예술 최고의 존재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²⁶⁸⁾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이어지며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남과 북의 체제 어느 쪽으로도 편향되지 않은 자유정신을 작품에 담아내고 있는 김석범의 소설에서 4·3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지주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4·3이라는 역사 공간과 재일을 연결하고 있는 김석범의 4·3 소설은 한반도의 해방과 분단 시점의 혼란한 시대상을 그리며 국내 문학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어·국적·정체성의 경계에서 역사적 사건에 적응하며 삶을 이어온 김석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재일조선인인의 형상을 되새겨보고 현시점에서 재일조선인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원류를 거슬러 생각해보는데 김석범 문학연구의 의미가 있다.

268) 金石範, 앞의 책, 71~72쪽. 四・三事件に関わることは、人間の自由という問題にも関係すると思います。自由というものはやはり普遍的なものですよ。個別的なものではあるけれども、必ず個を越える。フィクションの問題であってもやはり人間というのは他者との関係で生きているわけですから、そこに普遍ということがあるわけです。どこかで個を越えたもの、個であるけど文学が持った個を超えた問題を読むということ。そこで別の個が共感を持つという、それは芸術の最高の存在のあり方だと思います。

VI. 결론

역사적 사건 과정에서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재일조선인 작가 김석범의 소설을 살펴보았다. 작가의 작품은 일제강점기에서 기인한 한반도의 분단,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빼놓을 수 없다. 작가는 한반도와 재일조선인 사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소재로 자신의 체험과 상상력의 세계를 더하여 역사적 현실을 재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국적자인 작가의 재일(在日)의 존재 조건이 작품의 전제가 되고 있고, 재일조선인 조직과 관련된 작품과 재일 동포사회를 배경으로 한 소설 속에 작가 자신인 ‘나(私)’와 ‘나’의 분신을 배치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구축하고 있다.

작가의 소설에 등장하는 재일조선인 주인공 ‘나’의 의미는 ‘재일조선인’이라는 처지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주인공은 남한과 북한, 재일조선인 사회와 일본의 정치적 환경이 빚어낸 경계인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김석범의 작품 세계를 세 가지의 주제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첫째는 재일 동포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성찰한 작품이다. 해방 후 2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광복의 날의 심경을 그린 「허몽담」에서는 자신의 언어와 의식이 일본화 되는 것에 대한 자기반성과 함께 민족적인 것, 조선적인 것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이방인의 삶에서 오는 번민을 「밤」에서 그리고 있다. 작가는 재일조선여인들의 생과사를 들여다보면서 고국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주인공의 심리에 의탁하여, 4·3의 참상을 겪고 고향 제주를 등지고 북으로 가려는 여인의 삶과 북한에 막연한 동경심을 갖고 북송선을 타는 재일조선인의 모습을 관조한다. 결국 작가는 주인공의 ‘귀국’에 관한 심경을 명확하게 결정짓지 않고 있다. 이국땅 일본에서 삶을 마감한 어머니의 모습을 조국의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귀환의 안식처로 귀결하며 망향의 심정을 이야기한다.

둘째는 재일조선인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학적 정치 활동의 성격을 지닌 작품이다. 작가는 재일조선인 조직에서 사회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혁명의 실천자가 되기를 바랐지만, 재일조선인 조직 내에서 패권 다툼으로 점철된 상부 조직과 북한 체

제에 대한 무비판적 옹호에 대한 반감으로 조직에서 이탈한 후 극심한 허무 의식에 사로잡힌다.

1968년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탈퇴로 개인적 삶의 환경 변화를 겪는 시기에 일본어로 본격적인 창작을 결심하고, 문학과 정치적 활동을 조화시키려는 자세에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작가는 자신이 알고 있는 현실을 작품화할 필요성을 가지고 주인공의 말과 행동을 통해 체험했던 일을 그려내거나 혹은 자신의 분신을 배치하여, 꿈·환상·취기·의식의 흐름을 활용한 에피소드를 통해 재일조선인 사회와 한반도의 상황을 재구축했다.

‘김병식 사건’ 등으로 얼룩진 조직에 대한 비판의식을 1974년에 발표한 「도상」에서 처음 드러냈다. ‘당’·‘조직’이라는 궤도를 벗어나 작가로서의 삶을 걸어가는 주인공의 심적 부담감을 확인할 수 있다. 1979년에 발표한 「왕생이문」에서도 재일조선인 조직과의 갈등을 기본 틀로 제시하고 있다. ‘나’라는 일인칭 시점과 함께 일제강점기에 사회주의 혁명 활동을 하다가 감옥에 수감돼 있던 황태수라는 제3의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다. 해방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위장으로 전향(轉向)을 한 황태수는 해방 후 조직과의 갈등과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한 죄책감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객사한다. 김석범은 재일조선인 조직 활동가의 행동을 해방 전과 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재일조선인에게 조직의 의미를 묻고 있다. 작가가 조직을 나온 20년이 지난 시점에 발표한 「작열하는 어둠」에서는 조직 이탈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며 조직을 떠난 이유를 섬세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셋째는 재일조선인의 시점에서 이방인의 삶을 극복하기 위해 창작한 제주도 4·3 작품이다. 작가의 4·3 소설은 해방 이후, 제주도에서 일제 권력이 물러난 공간에 미군정이 들어서고 공권력과 무장대의 대치 상황과 양민 학살 등, 4·3을 전후로 약 1년 반 정도의 제주도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1948년 제주4·3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1951년에 김석범은 일지 형태의 기록으로 작품화한 「1949년 무렵의 일지에서-죽음의 산의 일절에서」에 사건의 참상을 재일조선인의 시점에서 형상화했다. 이 작품을 출발점으로 1957년 「까마귀의 죽음」에서는 재일조선인의 삶을 접고 해방된 조국 건설의 의지를 다지고 귀향한 지식인의 저항의식을 4·3사건을 통해 그리고 있다. 1970년대 「만덕유령기담」에서

는 외부적 상황에 의해 제주 민중의 인간성 변모 과정과 실천의 의지를 그리고 있다.

김석범의 4·3 소설의 원형이 되는 위의 작품은 이후 장편 「화산도」를 비롯한 4·3 소설로 수렴되고 있으며 김석범은 역사적 현실 앞에 무시되는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자유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가 4·3평화상 수상에서 “해방 공간의 역사 재심과 청산은 앞으로 남북 평화통일의 든든한 담보이며 초석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듯이, 역사적 상황에 대한 보다 올바른 판단과 정명(正名)을 위한 작업에 김석범 문학은 의미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일조선인 김석범이 창작 활동을 통해 재일의 허무감과 재일조선인 조직에서 탈락분자라는 상실감으로부터 자기 구제·구원의 길을 찾고,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고자 4·3을 구상하고 소설로 구체화한 것을 살펴보았다.

작가의 작품 안에는 언어문제와 국적문제, 이데올로기에 휩쓸린 재일조선인의 문제 등, 재일조선인이 안고 있는 문제를 재일인의 시각에서 문학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김석범 소설은 현시점에서 재일조선인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그 출발의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 김석범, 김석희 역, 『까마귀의 죽음』, 도서출판 각, 2015.
- 김석범, 김환기·김학동 역, 『화산도』 전 12권, 보고사, 2015.
- 金石範, 『金石範作品集 I』, 平凡社, 2005.
- 金石範, 『金石範作品集 II』, 平凡社, 2005.
- 金石範, 『火山島』 I ~ III, 1983. IV ~ V 1996. VI ~ VII, 文藝春秋, 1997.
- 김석범, 김석희 역, 『까마귀의 죽음』, 소나무, 1988.
- 김석범, 이호철·김석희 역 『火山島』 실천문학사, 1988.

「단행본」

〈 국내 서적 〉

- 안병욱, 『민청학련 -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주의를 외치다』, 민청학련계승사업회, 2018.
- 현길언, 『정치권력과 역사왜곡』, 태학사, 2016.
- 현기영, 『순이삼촌』, 창비, 2015.
- 허상수, 『4·3과 미국』, 다락방, 2015.
- 김성재외 8인, 『4·3, 진실을 향한 그 의로운 행진』,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2014.
- 정찬원, 『재일한국인의 백년을 생각한다』, 현대일본총서, 도서출판 문, 2010.
- 박찬식, 『4·3과 제주역사』, 각, 2008.
- 테사 모리스 스즈키, 한철호 역, 『북한행 액서더스 - 그들은 왜 북송선을 타야 만 했는가?』, 도서출판 책과 함께, 2007.
- 신명직, 『재일코리안 3색의 경계를 넘어』, 고즈윈, 2007.
- 이승우 외 5명, 『재일동포의 법적지위 제한과 분쟁해결』, 북코리아, 2006.
- 김병택, 『제주현대문학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5.
- 제주문인협회, 『제주문학 - 제주출신 재일 동포들의 문학 활동』 제42집, 2005.
- 나카무라 후쿠지(中村福治), 『김석범 화산도 읽기-제주4·3항쟁과 재일한국인문학』, 삼인, 2001.
- 濟州文人協會, 『濟州文學』 제23집, 1993.

< 국외 서적 >

- 金石範, 『《火山島》 小説世界 を語る!』, 右文書院, 2010.
- 金石範, 『虚日』, 講談社, 2002.
- 金石範, 『新編 在日の 思想』, 講談社, 2001.
- 金石範, 『転向と親日派』, 岩波書店, 1993.
- 中村一成, 『ルポ 思想としての朝鮮籍』, 岩波書店, 2017.
- 尹健次, 『「在日」を考える』, 平凡社, 2001.
- 季刊在日文芸 『民涛』, 第1期 1号~10号, 1987-1990.
- 金泰能, 梁聖宗 訳, 『济州島略史』, 新幹社. 1988.
- ジョンメイル、文京洙 訳, 『济州島 四・三蜂起』, 新刊社, 1988.
- 『特集 在日朝鮮人の 現在』, 『季刊三千里』 50号 終刊, 1987, 夏.
- 竹田青嗣, 『在日という根拠』, 国文社, 1983.
- 在日朝鮮人の人権を守る会, 『在日朝鮮人の 法的地位』, 1964.

「연구논문」

< 학위 논문 >

- 임성택, 「김석범의 ‘4·3소설’연구 - 작중 인물의 유형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 吳恩英, 『在日朝鮮人文学における‘朝鮮的なもの’—金石範の作品を中心に—』, 名古屋大学 博士論文, 2012.
- 김화, 『韓·中 작가의 滿洲體驗 문학 연구- 滿洲國 건국 이후의 작품을 중심으로 -』,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 김학동, 『민족문학으로서의 재일조선인 문학 - 김사랑·김달수·김석범 문학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 정희선,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 운동(1945~1955)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 김순석,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 한국어 논문 >

- 이승진, 「재일조선인조직의 태동과 전개-1920~1950년대를 중심으로-」, 『일본학』 제46집,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8.

- 이봉호, 「공자의 ‘正名’과 노자의 ‘非常名’- 노자의 도와 소쉬르의 언어학 : 제대로 된 만남 -」, 『哲學研究』 제148집, 2018.
- 김동현, 「김석범 문학과 제주 -장소의 탄생과 기억(주체)의 발견」, 『영주어문』 제35집, 영주어문학회, 2017.
- 고명철, 「김석범의 ‘조선적인 것’의 문학적 진실과 정치적 상상력 - 김석범의 화산도 연구(2)-」, 『한민족문화연구』 57호, 한민족문화학회, 2017
- 하상일, 「김시종과 『진달래』」, 『한민족문화연구』 57호, 한민족문화학회, 2017.
- 고명철, 「해방공간의 혼돈과 섬의 혁명에 대한 김석범의 문학적 고투 - 김석범의 화산도연구(1)」, 『영주어문』 34집, 영주어문학회, 2016.
- 곽형덕, 「‘재일’의 근거로서의 화산도」, 『탐라문화』 53권, 제주탐라문화연구소 2016.
- 이한정, 「김석범의 언어론 -‘일본어’로 쓴다는 것」, 『일본학』 제42집,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6.
- 김환기, 「김석범·화산도·<제주4·3>- 『화산도』의 역사적/문학사적 의미」, 『일본학』 41호,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5.
- 김동윤, 「빛나는 전범(典範),관점의 무게」, 『까마귀의 죽음』, 도서출판 각, 2015.
- 김계자, 「환기와 소거 그리고 일본어 문학: 김석범의 「1945년 여름」」, 『한림일본학』, 25집,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4.
- 김정희, 「재일작가 김석범 문학의 다성성 연구 - 타원 구조와 그 유효성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40권,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 이한창, 「김석범의 「까마귀의 죽음」에 관한 고찰」, 『日本語文學』, 제56집, 한국일본어문학회, 2013.
- 이한창, 「김석범의 「1949년의 일지에서」에 관한 고찰」, 『日本語文學』, 제54집, 한국일본어문학회, 2012.
- 노종상, 「4·3사건의 문학적 형상화와 ‘심적거리(psychic distance)’ 현기영의 「순이삼촌」과 김석범의 「까마귀의 죽음」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통권79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 조수일·박종명, 「金石範의 「남겨진 기억(遺された記憶)」論 ‘신체’와 ‘정신’ ‘기억’ 서사를 중심으로」, 『日本語文學』 44권, 한국일본어문학회, 2010.
- 김종욱, 「국가권력의 폭력성과 디아스포라의 양상- 김석범의 화산도론」, 『비교한국학』 18권 3호, 2010.
- 소재영, 「재일동포문학의 민족 문학적 성격연구」, 『국학연구론총』 제4집, 태민국학연구원,

2009.

- 소명선, 「문학적 표상으로서의 <섬> —일본 근·현대문학 속의 ‘제주도’—」, 『동북아 문화연구』 제17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8.
- 金仁德, 「1948年 한신(阪神)教育鬭争과 在日朝鮮人 歴史教育 - 在日本朝鮮人聯盟의 民族教育運動 戰術과 關聯하여-」, 『한일민족문제연구』, 15권, 2008.
- 김석범, 「왜 일본語문학이냐」, 『창작과 비평』, 2007 겨울.
- 김학동, 「민족문학으로서의 재일조선인문학」, 『日本文化學報』 제84집, 2007.
- 김학동, 「김석범 한글 『화산도』 론 - 한글 『화산도』 의 집필배경과 「까마귀의 죽음」 및 『火山島』 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日語日文學研究』 제62집, 한국일어일문학회, 2007.
- 김혜연, 「김석범의 「까마귀의 죽음」 의 인물형과 디아스포라 역사의식 연구」, 『국제한인 문학연구』 제4호, 국제한인문학회, 2007.
- 이연숙, 「제주, 오키나와의 투쟁의 기억 - 까마귀와 소라게 이야기」, 『耽羅文化』 31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07.
- 김학동, 「金石範의 『火山島』 論 - 親日派와 共產主義者에 對한 認識을 中心으로 -」, 『한일민족문제연구』 13권, 한일민족문제학회, 2007.
- 정대성, 「김석범 문학을 읽는 여러 가지 시각- 그 역사적인 단계와 사회적 배경」, 『일본학보』 66권, 한국일본학회, 2006.
- 정대성, 「작가 김석범의 인생역정, 작품세계, 사상과 행동 서론적인 소묘로서」, 『한일민족문제연구』 9권, 한일민족문제학회, 2005.
- 한승옥, 「재일동포 한국어 문학작품 자료수집, 정리 및 그 민족 문학적 성격에 대한 연구 - 기초학문 육성지원 사업 과제 결과 보고서」, 한국연구재단, 2004.
- 황치복, 「한일 전향소설의 문학사적 성격- 한설야(韓雪野)와 나카노 시게하루(中野重治)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평론』 6권,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2.
- 박미선, 「김석범 문학의 4·3 연구 대응방법」, 『비교문화연구』 5권, 경희대학교 부설 비교문화연구소, 2002.
- 나카무라 후쿠지, 「김석범 문학이 재일조선인 문학에서 차지하는 위치」, 『용봉인문논총』 29권, 전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 이한창, 「재일 동포조직이 동포문학에 끼친 영향-좌익 동포조직과 동포 작가와의 갈등을 중심으로-」, 『日本語文學』 제8집, 2000..
- 김민철, 「일제하 사회주의자들의 전향 논리」, 『역사비평』 30호, 역사비평사, 1995.

〈 일본어 논문 〉

- 趙秀一, 「金石範『火山島』論: 重層する語りの相互作用を中心に」, 『社会文学』47編, 2018.
- 宋恵媛, 「金石範作品における通訳、スパイ、アメリカー複数の朝鮮文学をつなぐために」, 『日本学報』第111輯, 2017.
- 中村一成, 「思想としての朝鮮籍 第9回-金石範(上)文学は政治を凌駕する-」, 『世界』6, 2016.
- 中村一成, 「思想としての朝鮮籍 第10回-金石範(下)四・三という思想の戦場-」, 『世界』7, 2016.
- 林浩治, 「金石範文学論・在日の実存を濟州島に結ぶーイデーとしての濟州島ー」, 『神奈川大学評論』83編, 2016.
- 玄月, 「金石範作品集」金石範-「火山島」を取り巻く惑星のような作品群」, 文学界 12月, 2015.
- 呉恩英, 「金石範文学における‘におい’」, 『日本文化学報』第56輯, 2013.
- 和田圭弘, 「金石範の文学論について一九六三から一九七二まで」, 『言語社会』第3号, 2009.
- 呉恩英, 「金石範文学とその政治的背景」, 『日本文化学報』第43輯, 2009.
- 呉恩英, 「金石範の作品に表われる矛盾について一四・三事件不在の作品群を中心に」, 日本語文学 第38輯, 2008.
- 金石範, 「私の場合 国民・国籍」, 『季刊東北学』第27号, 2008.
- 林浩治, 「虚無と対峙して書く-金石範文学論序説-」 『社会文学』第26号, 2007,
- 宋恵媛, 「一九四九年頃の日誌から一死の山の一節からについて」, 『金石範作品集 I』, 平凡社, 2005.
- 北野昭彦, 「金石範「虚夢譚」の〈私〉と朝鮮育ちの日本人Fー在日朝鮮人〈私〉と在日性を照らすもう一つの装置-」, 『論究日本文学』第81号, 2005,
- 西成彦, 「小説の一言語使用問題-中西伊之助から金石範まで-」, 『植民地文学とその言語』, 『立命館言語文化研究』25巻 2号, 2002.
- 平塚毅, 『金石範報告・発言録への補足説明』 Rikkyo American Studies 21, 1999.

기타

- 박두진, 「조총련 최대 권력암투 ‘김병식 사건’ 전말」, 『DailyNK 발굴』2005, <http://www.dailynk.com/>, 2019. 4. 10.
- 제주의 소리, 「4·3 “문제없다”고 해놓고 뒤통수, 4·3평화상 감사 요청한 정부」, <http://www.jejeusori.net>,
-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 보도자료」 2015. 3. 30.

김석범 저작연보

저작연보는 주요 작품 위주로 정리하였고, 『계간삼천리』에 게재된 작가의 작품은 별도의 도표를 참고 바람

순번	연도	작품명	잡지·출판사
1	1951.12	一九四九年頃の日誌より-「死の山」の一節より-	朝鮮評論創刊号
2	1953.05	夜なきそば	文学報 四号
3	1958.11	これから	文芸首都
4	1957.08 1957.12	看守朴書房 鴉の死	文芸首都 文芸首都
5	1960.04	糞と自由	文芸首都
6	1962.05	觀徳亭	文化評論
7	1965- 1967.06	火山島 (한글)	文学芸術 (在日朝鮮文学芸術同盟機関誌) 九回連載中断
8	1969.08	虛夢譚	世界
9	1970.11	万徳幽霊奇譚	人間として
10	1971.04 1971.08 1971.11	長靴 故郷 夜	世界 人間として 文学界
11	1972.05 1972.06 1972.07 1972.09 1972.12 1972.12 1972.12	トーロク泥棒 キムジハと在日朝鮮人文学者 ことばの呪縛 彷徨 消えてしまった歴史 距離感 ことば、普遍への架橋をするもの	文学界 展望 筑摩書房 人間として 人間として 展望 群像
12	1973.03 1973.03 1973.06 1973.07 1973.10 1973.11	私にとってのことば 在日朝鮮人文筆家のことについて 李訓長 出発 民族·ことば·文学と私 詐欺師	早稲田文学 展望 文学界 文芸展望 文芸·教育 群像

순번	연도	작품명	잡지·출판사		
13	1974.04	1945年夏	筑摩書房		
	1974.04	夜の声	文芸		
	1974.05	途上	海		
	1974.07	在日朝鮮人文学について	新日本文学		
	1974.07	濟州島四三事件と李徳九	歴史と人物		
	1974.07	語れ、語れ、ひき裂かれた体で	中央公論		
	1974.10.11.12	私の中の朝鮮	月刊エコノミスト		
	1974.11	朴政権とテロリズム	中央公論		
14	1975.04	口あるものは語れ	筑摩書房		
	1975.09	遺された記憶	文芸		
	1975.秋号	誰かが書く	小説歴史		
	1975.10	六価クロム禍に思う	週刊エコノミスト		
15	1976.02-	海嘯(火山島)	文学界		
	1981.08				
	1976.10			日本語で朝鮮を書けるか	言語
	1976.11			民族・ことば・文学	創樹社
	1976.11			優雅な誘い	文芸
	1976.11	私の原風景—濟州島	すばる		
16	1977.08	「在日」の虚構	朝日新聞		
17	1978.07	マントギ物語	筑摩書房		
	1978.08	至尊の息子	すばる		
18	1979.08	往生異聞	すばる		
	1979.11		集英社		
19	1980.05	日本語の呪縛	言語生活		
20	1981.01	祭司なき祭り	すばる		
	1981.05	乳房のない女	文学的立場		
	1981.12	「在日」の思想	筑摩書房		
21	1982.01	幽冥の肖像	文藝		
	1982.08	酔夢の季節	海		
	1982.12	「トリョン峠の鳥」のこと	文藝		
22	1983.06-09	火山島 第一部 全三巻	文藝春秋		
	1983.12	濟州島を思う『世界の国シリーズ15朝鮮モンゴル』	講談社		
23	1984.03	どん底	すばる		
	1984.04	玄其榮について	海		
	1984.07	金縛りの歲月	すばる		

순번	연도	작품명	잡지·출판사
24	1985.07	帰途	世界
	1985.11	指紋押捺のこと	海燕
	1985.12	郷天遊記	すばる
	1985.12	これでもフェミニスト願望	早稲田文学
25	1986.09	金縛りの歲月	集英社
26	1986.06-1994.09	火山島 第二部	文学界
27	1988.11	なぜ四・三事件にこだわるのか	新刊社
28	1989.05	四二年ぶりの韓国私はないた	文藝春秋
29	1989.9-12	眩暈のなかの祖国	世界
30	1990.08	故国行	岩波書店
31	1991.04	夢、草深し	群像
	1991.04	権力は自らの正対を暴く	世界
	1991.12	故国再訪、成らず	文学界
32	1992.02	故国への問いー再訪を拒まれて	世界
	1992.06	弔辞ー李良枝へ	群像
33	1992.6,7,9,11,12,1993.2	「親日」について	世界
34	1993.07	転向と親日派	岩波書店
	1993.09	炸裂する闇	すばる
35	1994.02	テュとユマ	すばる
	1994.10	金日成の死、その他	文学界
	1994.12	光の洞窟	群像
36	1995.06	夢、草深し	講談社
	1995.12	黄色き陽、白き月	群像
37	1996.06	地の影	集英社
	1996.08	火山島 第四巻	文藝春秋
	1996.10	離れた森	群像
	1996.11	火山島 第五巻	文藝春秋
38	1997.02	火山島 全七巻	文藝春秋
	1997.02	再びの韓国、再びの済州島	世界
39	1998.05	忘却は蘇えるか	思想
	1998.10	紆茂る幼い墓	群像
	1998.10	「在日」にとっての国籍とは何か君李恢成への手紙	世界
	1998.10	いま、〈在日〉にとって〈国籍〉とは何か	世界
	1998.12	つぶやきの政治思想	青土社
	1998.12	かくも難しき韓国行	群像

순번	연도	작품명	잡지·출판사
40	1999.03	鴉の死 夢、草深し	小学館文庫
	1999.03	文化はいかに国境を越えるか	立教アメリカン・スタ ディーズ
	1999.05	再び、〈在日〉にとっての〈国籍〉について	世界
	1999.11	海の底から、地の底から	群像
41	2000.02	私に戦争体験—忠良なる大日本帝国臣民	文藝春秋
42	2001.04	満月	群像
	2001.10	在日朝鮮人文学-日本語文学 と日本文学(座談会)	すばる
	2001.11	なぜ書きつづけてきたか、なぜ沈黙してきたか	平凡社
	2001.11	苦難の終りの韓国行	文学界
43	2002.05	虚日	群像
	2002.08	W杯のナショナリズム	文学界
	2002.08	嘘は如何にして大きくなるか	文学界
	2002.12	日朝不正常関係と拉致問題 歴史は全うされるか	世界
44	2003.01,02	日本人は歴史を忘れたのか情況	情況
	2003.04	感情的「北朝鮮報道」が続くなかで考える日本人の「国 民感情」と「歴史の空白」	望星
	2003.04	濟州島四・三事件の復活	歴史地理教育
45	2004.01-03	鬼門としての韓国行	文学界
	2004.08	国境を越えるもの-「在日」の文學と政治	文藝春秋
46	2005.06	敵のいない韓国行	すばる
	2005.07	豚の夢(連作『壊滅』1)	すばる
	2005.09	金石範作品集 I (鴉の死、万徳幽霊奇譚、1945年 夏、夜、トーロク泥棒、詐欺師、資料)	平凡社
	2005.10	李芳根の死(連作『壊滅』2)	すばる
	2005.10	金石範作品集 II (途上、至尊の息子、往生異聞、祭司 なき祭り、乳房のない女、幽冥の肖像、夢、草深し、 炸裂する闇、満月)	平凡社
2005.11	『作品集』余話	月刊百科	
47	2006.春	四十年ぶりに「鴉の死」を読んで	前夜
	2006.10	映画 Dear Pyongyang を見て	世界
	2006.11	地底の太陽	集英社
48	2007.01	自由な韓国行	すばる
49	2008.02	私は見た、四・三虐殺の遺骸たちを	すばる
	2008.07	悲しみの自由の喜び	すばる
50	2009.04	異郷の日本語 金石範 崔真碩 佐藤泉 片山宏行 李静和	社会評論社

순번	연도	작품명	잡지·출판사
51	2010.04 2010.10	金石範《火山島》小説世界を語る！ 金石範 死者は地上に	右文書院 岩波書店
52	2012.02	金石範過去からの進行	岩波書店
53	2015.04 2015.10 2015.12	増補 なぜ書きつづけてきたか なぜ沈黙してきたか： 濟州島四・三事件の記憶と文学 火山島オンデマンド版 全7巻 終っていなかった生	平凡社 岩波書店 すばる
54	2017.09	消された孤独	すばる

『계간삼천리』에 수록된 김석범 작품목록

순번	연도	작품명	비고 (特集)
1号	1975. 2.1	「党派ぎらいの党派的ということ」	金芝河
2号	1974. 5.1	「驟雨」, 「濟州島四・三武装蜂起について」	朝鮮と「昭和五十年」
3号	1975. 8.1	「『まだん』の質問に答える」	江華島事件百年
4号	1975.11.1	「金芝河「良心宣言」を読んで」	日本にとっての朝鮮
5号	1976. 2.1	「「哀号」について」 ※架橋	現代の朝鮮文学
6号	1976. 5.1	「なぜ裁判か(一)」	今日の日本と韓国
7号	1976. 8.1	「なぜ裁判か(二)」	古代の日本と朝鮮
8号	1976.11.1	「なぜ裁判か(三)」	在日朝鮮人
9号	1977. 2.1	「なぜ裁判か(四)」	近代の朝鮮人群像
10号	1977. 5.1	「創作雑感」	韓国の民主化運動
12号	1977.11.1	「「批判」についての批判——明きめくらの説法」 「なぜ裁判か(五)」	在日朝鮮人の現状
13号	1978. 2.1	「なぜ裁判か(六)」 『骨片』	朝鮮の友だった日本人
15号	1978. 8.1	「夏、雑感」 「金奉鉉『濟州島血の歴史』」	8・15と朝鮮人
16号	1978.11.1	「結婚式の日」	朝鮮を知るために
17号	1979. 2.1	「金時鐘『猪飼野詩集』」	三・一運動六十周年
18号	1979. 5.1	「「在日」とはなにか」	在日朝鮮人とは
19号	1979. 8.1	「朴寿南編『李珍宇全書簡集』」	文化からみた日本と朝鮮
20号	1979.11.1	「民族虚無主義の所産」について	在日朝鮮人文学
22号	1980. 5.1	「 “これからどうすればよいか” 」	「4・19」20周年と韓国
23号	1980. 8.1	「光州虐殺に思う」	朝鮮・2つの36年
25号	1981. 2.1	「差別、雑感」	朝鮮人観を考える

A Study on the Characters in Kim Seok-beom's novel

Kim, Jeong-hee

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examine how Kim Seok-beom, a Korean-Japanese writer, has shaped the stories of people who were oppressed and alienated in historical reality. In this novel, the neighboring people are chosen, who play the role of 'I' and 'my other self' as a Korean-Japanese in the background of historical and political events. Based on their life, questions about historical reality are literarily raised in the novel.

The meaning of 'I', the main character in Kim Seok-beom's novel, can not be thought separately from the situation of 'the Korean-Japanese.' The 'I' as a Korean-Japanese is a man living in the boundar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Korean-Japanese society and Japanese political environment. The world of Kim Seok-beom's work is a space where the existence condition of the stateless Korean-Japanese becomes the subject for the author to confirm his thoughts based on historical reality events.

This novel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firstly, the fact the author reflects on his identity in the Japanese society is distinguishing. Secondly, this work has political character to reveal a sense of nihilism from deviance from, and a critical point of view experienced in the group of the Korean-Japanese. Thirdly, it is a work created to recognize the 4·3 incident in Jeju Island and overcome the nihilism that the strangers feel in their life as the Korean-Japanese.

Kim Seok-beom uses a method of expressing the reality that the main character 'I' knows showing the identity and political tendency of the Korean-Japanese. Therefore, the actuality that he experienced is thoroughly exposed. The story in the work is based on experiences the author went through, and the subject of expression is not an individual 'I', but the story of the Korean-Japanese who lives in social contradiction.

Kim Seok-beom, who was active in the Korean-Japanese organization, fell into a situation where he could not break away from nihilism due to the Korean-Japanese identity with which the author could not participate in the construction of the liberated country. In such a situation, He also got shocked to see the Jeju 4·3 incident through the testimony of a person who escaped

from the disaster in Jeju Island. Kim Seok-beom created the story with a theme of 4·3 to avoid the identity problem and inner futility that come from the life of Korean-Japanese.

In the 4·3 novel of the writer, he built his story through the life of the people of Jeju Island. Since he did not experience the 4·3 incident, the author imagined the situation of 4·3 incident as fiction. Throughout this novel, the author tries to ask how to live in the reality of pain and violence and to find the meaning of existence of Korean-Japanese

Kim Seok-beom, who left Jochongnyeon, the pro-North Korean residents' league in Japan in 1968, began his full-scale authorship in the 1970s using his own creative Japanese language. From this time on, he literarily shaped the agony about the identity of the Korean-Japanese 'I' along with the critical view about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association of the Korean-Japanese. Kim Seok-beom is a Korean-Japanese literary man in Japan who was trying to find a new breakthrough from a skeptical thought on ideology such as language use, his nationality, and meaning of his home country.

The existing studies on Kim Seok-beom's literature have focused on the political tendency of the writer by linking the analysis of the type of characters appearing in the representative works to the 4·3 and ideological ideas. In these analyses, but there would be a concern that the free spirit of literature dealing with the human emotions and reality of the world inside the work could be neglected.

Kim Seok-beom set up a character of a Korean-Japanese man who reflected his appearance in the novel and tried to express the situation of reality by using the imagery ideas with literary methods such as dreams, illusions, smells, odors, and flow of consciousness.

In his works after the departure of the Korean-Japanese organization, he explained how he was developing his political experience in Japan in the story, why the artist envisioned 4·3 and lived a homeland-oriented life. The critical consciousness of the historical reality seen in the world of works and the imaginative ability to reorganize historical events were based on the writer's sense of reality and ideas.

It was meaningful to study Kim Seok-beom's work in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focusing on the issue of the historical matters dealt with in Kim Seok-beom's literature and seeking the direction for the integration of ideology of South and North, and Left and Right.

Key Words

Korean literature in Japan, the General Assoc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Jeju 4·3, 4·3 novel, return, conversion, Kim Byeng-sik incident, Hanshin education incident, Literary formation, politics and literature